

너를 위한 세계

Prologue

1. 열다섯 살, 이별, 겨울

새벽부터 내리기 시작한 눈은 소리도 없이 소복이 쌓여 어느새 작은 봉분 위를 새하얗게 물들였다.

두터운 눈 이불이 덮인 어딘가 영성해 보이는 두 개의 흙더미는 알아보기 힘들겠지만 무덤이었다.

무덤에는 죽은 이를 기리는 비석 하나 없었다.

양옆에 나란히 솟아 있는 게 아니었다면, 그리고 그 앞에 묘비를 대신하는 작은 나무판자가 없었다면 누구도 그것이 무덤이라고는 생각지 못했을 것이다.

심지어 무덤을 쌓아 올린 당사자조차도.

‘이런 게 무덤이라니.’

소년, 알테어는 생각했다.

지난달 생일이 지난 소년은 열다섯 살이라고는 믿기 어려울 정도로 날카롭고도 어른스러운 분위기를 풍겼다.

여기서 말하는 어른스러움이란 그 나이 대의 아이는 대다수 가져보지 못한 감정을 두르고 있음을 뜻한다.

증오나 부채감, 그리고 방향모를 열망 등.

알테어는 이 모든 감정들을 팬케이크 반죽마냥 섞어 베일처럼 머리 위부터 뒤집어쓰고 있었다.

그러한 분위기가 소년을 제 나이처럼 보이지 않게 만들고 있었다.

어느새 지평선 너머로 태양의 붉은 머리꼭지가 보이기 시작했다.

소년은 눈살을 찌푸렸다.

하루 중 유일하게 태양을 맨 눈으로 볼 수 있는 몇 안 되는 그 영광을 마주하고도 소년은 기뻐할 수 없었다.

“젠장, 이런 날이 올 줄 알고 있었지.”

영원히 오지 않았으면 좋았을, 하지만 결코 오지 않으리라 믿지 않았던 하루의 시작이었다.

알테어는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주어지는 시간의 흐름을 저주했다. 참으로 빌어먹을 아침이다.

“조금이라도 더 냉동된 생선이 느끼는 기분을 알고 싶었는데..... 이제 앞으로 그럴 기회가 얼마나 있겠어?”

대단히 희극적인 어조로 크게 혼잣말을 중얼거린 소년은 힐끗 제 앞을 바라보았다.

하지만 자신을 등지고 선 인물은 여전히 미동도 않고 있었다.

혼잣말을 한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 소년은 혼잣말을 한 것이 아니었다.

그는 무덤 앞에 선 소녀에게 말을 건 것이다.

그녀에게서 어떠한 반응이라도 이끌어내고 싶어서, 그녀의 목소리를 듣고 싶어서.

“데네브.”

냉기를 머금은 겨울의 북풍이 소녀의 흰 머리칼을 이리저리 흐트러트리고 있었다.

발갣게 물든 손끝과 곳곳이 선 등, 그리고 베일마냥 내려앉은 비탄이 알테어의 새파란 푸른 눈에 남김없이 들어왔다.

끔찍한 애정과 비참함을 느끼며 알테어는 자신을 돌아보지 않는 소녀, 데네브를 향해 걸어갔다.

소녀의 얼굴은 알테어가 그녀의 옆에 다가서는 그 순간까지도 무덤에 고정된 채 움직이지 않았다.

“시간 초과야.”

붉어진 데네브의 볼과 작은 코끝을 보며 알테어가 말했다.

“이제 성으로 돌아가야 해.”

“.....돌아가면, 무엇이 있지?”

새벽 내내 침묵을 지키던 데네브가 마침내 입을 열어 물었다.
버석하게 마른 입술과 새하얗게 갈라진 목소리가 유령마냥 눈발 위를 공허하게 떠돌았다.

“나는.....무엇을 위해 돌아가야 해?”

밤보다도 깊은 그녀의 검은 눈동자가 미간을 찌푸리고 있던 알테어의 얼굴을 비쳤다.

알테어는 그 속에서 텅 빈 무(無)를 느꼈다.

아무것도 담지 않은, 담을 수 없는 허무가 참을 수 없는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알테어는 부모를 잃은 소꿉친구를 바라보았다.

열기조차 머금지 못해 차양마냥 드리운 속눈썹 위에도 소복소복 눈송이가 올라 앉아 있었다.

“더는.....아무것도 남은 게 없는데.....나는, 무얼 위해서.....”

그는 추위로 발강게 부르튼 그녀의 손을 잡아주고 싶었다.

쏟아낼 눈물조차 메말라 제자리에서 겨우 버티고 서 있는 소녀를 안아주고 싶었다.

하지만 그에게는 그럴 자격이 없었다.

소녀의 제일 친한 친구이면서, 가족 외에 그녀에게 가장 가까운 사람이면서 해줄 수 있는 게 고작 성에서 몰래 빠져나와 무덤 같지도 않은 무덤을 함께 만들어주는 게 전부인 그에게는 그럴 권리가 없었다.

‘내가 지켜주기로 했는데.’

치기어린 시절 세상 모든 게 자기 뜻대로 될 것만 같던, 거칠 것도 두려울 것도 없던 시절 아무런 망설임 없이 쉬이 입에 올렸던 약속을 떠올리며 알테어는 저도 모르게 그녀에게서 눈을 돌렸다.

제 마음이 속삭이는 비난을 견디기가 힘들어 그는 차마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볼 수 없었다.

위로도 건넬 수 없고 눈을 바라보지도 못하다니.

소녀에게 있어 자신이 얼마나 최악인지에 대해선 굳이 말을 꺼낼 것도 없으리라.

“.....그야 당연히 날 위해서지.”

데네브 엘 캄파넬라의 최악의 친구로 등극한 알테어 라셀 콘 비르마스는 캄파넬라 백작 부부의 무덤을 내려다보며 떨어지지 않는 입술을 겨우 떼며 말했다.

마음을 건 약속도 지키지 못하고 슬픔에 잠긴 그녀의 손을 잡아줄 수도 없다면 적어도 알테어는 데네브의 질문에 답을 해야 했다.

그녀에게 삶의 이유를 주어야 했다. 적어도 알테어는 그렇게 생각했다.

“나는 너를 이렇게 만든 그 모든 것들에 복수하고 싶거든.”

“.....”

“그리고 그 장면을 네가 봤으면 좋겠어.”

“.....그것 참 고상하신 취미네.”

알테어의 말에 어이가 없었는지 데네브가 작게 코웃음을 쳤다.

조금은 평소의 모습으로 돌아온 것 같은 그녀의 태도는 알테어의 심장에 작은 용기를 불어넣어 주었다.

그는 웃음이 나오려는 걸 꼭 참고 짐짓 근엄한 얼굴로 소녀를 향해 고개를 돌

렸다.

“말조심해.”

배운 대로 오만하게 보이도록 턱을 치켜든 그가 같은 눈높이에 선 소녀를 향해 목소리를 깔며 말했다.

“난 비르마스의 왕이야.”

더는 참을 수 없었는지 소녀의 입에서 작은 웃음소리가 새어 나왔다.

“세상에, 너 같은 울보가 왕이라니.....”

바람이 새는 듯한 힘없는 소리였지만 초승달마냥 휘어진 눈꼬리는 그녀가 미소 짓고 있음을 나타내는 확실한 증거였다.

“백성들은 이걸 아나? 벌써부터 왕국의 앞날이 걱정되는데.”

“무엄하다고 말하고 싶은데.”

알테어는 그녀의 미소에 가슴이 따뜻해짐을 느꼈다.

한 번도 입 밖으로 꺼낸 적 없지만 소녀는 소년이 가진 몇 안 되는 보물이었다.

“나도 막 그렇게 생각하던 참이었으니 이번 한 번만 용서해 줄게.”

“.....알테어, 굳이 나 때문에 위험을 무릅쓰지 않아도 돼.”

데네브가 말했다.

“네가 복수를 한다고 해서 내 부모님이 살아 돌아오는 것도 아니잖아.”

그녀는 이제 처연해 보이는 미소를 입가에 달고 있었다.
소녀는 장례조차 치르지 못한 제 부모의 무덤을 바라보았다.

“나도 알아. 부모님은 사형당하셨지만 나라도 살아남은 걸 감사히 여겨야하는 상황이라는 걸. 이렇게.....무덤이라도 만들어드릴 수 있는 걸 다행으로 여겨야 한다는 걸.”

소녀는 한 손으로 제 눈을 덮었다 떼었다.
밤을 샌 여파가 이제야 몰려오는 지 짙은 피로와 허탈함, 그리고 무력감이 그녀의 얼굴 위로 내려앉았다.

“부모가 반역죄를 저질렀음에도 살아남다니. 이 얼마나 행운이야.....”

떨지도 않고 담담이 있는 사실만을, 주변 사람들이 앵무새처럼 반복적으로 떠들어대던 말들을 따라 내뱉는 데네브의 목소리에 알테어의 눈썹이 위로 솟구쳤다.

가능하다면 알테어는 그 앵무새들의 목을 전부 비틀어버리고 싶었다.

“하지만 누명이잖아.”

“.....누명을 썼다는 증거가 없잖아. 반면 반역을 했다는 증거는 있지.”

“제대로 된 증거도 아니었는걸. 게다가 그 증거의 사실여부를 확인하기도 전에 네 일가(一家)는 반역죄로 처형되었지.”

“제발, 알테어!”

필사적으로 억누르던 떨림이, 어떻게든 납득하고자 묻어뒀던 의문들이, 겨우 자신의 처지를 받아들이고자 했던 위선이 마침내 터져 나왔다.

뜨거운 것이 데네브의 목구멍 너머로 울컥 치솟아 올랐다.

그래, 억울하지 않을 리 없었다.

화가 나지 않을 리도 없었다.

그녀는 그저 이 상황을, 자신만 살아남은 이 지독한 현실을 꾸역꾸역 삼키고 있을 뿐이었다.

“그래, 우리 가문이 어떤 개새끼에 의해 누명을 썼다고 하자. 셸시우스 후작님도 변방으로 쫓겨난 마당에 너 혼자서 뭘 어떻게 할 수 있는데? 이 상황을 받아들이는 것 외에 내가 뭘 할 수 있지? 널 위해 살라고? 웃기지마!”

알테어는 데네브가 자신의 목살을 잡는 걸 가만히 지켜보았다.

코앞에서 비난 가득한 고함을 듣고 앞뒤로 몸이 흔들려도, 조막만한 손으로 어깨와 가슴을 맞고 있어도 알테어는 움직이지 않았다.

“네가, 네가 나한테 뭐라도 되는 줄 알아? 네가 뭐라고.....내가 왜 널 위해서..... 내 혈연은, 내 가족들은 나 빼고 모두 참수 당했는데.....내가 뭘 위해서.....나만, 이렇게.....염치없이 살라고.....”

마구잡이로 내려쳐지던 손길에 점점 힘이 빠졌다.

마침내 제풀에 지친 데네브는 쥐고 있던 알테어의 목살마저 놓고 제자리에 주저앉아 엉엉 울었다.

알테어는 그녀의 울음을 지금 처음 들었다.

그는 눈발 위로 올려 퍼지는 그 서러운 울음소리를 잠시 가만히 귀 기울여 들었다.

소중한 것을 잃어버린 그녀의 절규를 영원히 기억할 수 있도록, 그는 이 모든 순간의 소리를, 감각을, 감정을 가슴 속 가장 깊은 서랍 안에 넣어 두었다.

“데네브.”

듣고 싶지 않은, 하지만 앞으로 결코 잊을 일 없는 서글픈 울음을 뱉는 소녀의 앞에 무릎 꿇은 알테어가 조심스레 그녀의 양 손목을 잡고 끌어당겼다.

저항할 힘도 없는 데네브는 순순히 알테어가 잡아당기는 대로 끌려갔다.

눈물 젖어 엉망진창인 얼굴이 드러나며 눈가에 맺힌 물방울과 젖어든 속눈썹, 그리고 지쳐 소리도 내지 못하는 창백한 입술이 알테어의 눈에 아리게 박혔다.

“난 캄파넬라 가에 반역이란 누명을 씌운 모든 이들을 싹 다 잡아 죽여 버릴 거야. 아니, 말하지 마 그냥 들어. 난 네게 이 모든 고통을 준 이들에게 똑같이, 아니 그 이상을 갚아줄 거야.”

확신에 찬 소년의 시린 푸른 눈을 보며 데네브는 ‘어떻게?’ 라고 묻고 싶었다.

“그리고 넌 내 바로 옆에서 그 모든 과정을 보게 될 거야.”

정말로 그렇게 해줄 거냐고, 저를 위해 감히 그 일을 할 수 있겠냐고 희망을 갖고 싶었다.

“난 복수 같은 걸 바라지 않아.”

하지만 대신 그녀의 메마른 입술 사이에선 다른 말이 흘러나왔다.

모순적이게도 데네브가 가지고 있던 또 하나의 진심이였다.

죽은 이는 돌아오지 않는다.

아무리 울부짖고, 슬퍼하고, 복수를 부르짖어도 죽음이란 그런 것이다.

그녀는 아무것도 남지 않을 복수를 하다 위험해 처할 지도 모를 제 하나뿐인 소꿉친구가 걱정되었다.

더는 아무도 그녀의 곁에 남지 않았기에 더더욱.

알테어는 이제 데네브에게 남은 단 하나뿐인 인연이었다.

“상관없어. 누가 널 위해 한데?”

하지만 이런 데네브의 걱정은 눈곱만큼도 모르는 건지 그도 아니면 모르는 척하고 있는 건지 알테어는 특유의 그 재수 없는 표정을 지으며 코웃음을 쳤다.

“이 복수는 널 위해 하는 거야.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라고. 모든 건 다 널 위해서야. 널 위한 마음은 눈곱만큼도 없다고.”

“.....”

다섯 살짜리 어린아이도 그런 거짓말엔 속아 넘어가지 않을 거라고 데네브는 생각했다.

하지만 무슨 생각에서인지 알테어는 황망해하는 그녀의 얼굴을 보며 웃음을 터트릴 뿐이었다.

“왜 그렇게 봐? 내가 재수 없게 구는 거 처음 봐?”

평소와도 같은 그 태연자약한 말투에 데네브는 ‘아니.’ 라고 대꾸하고 싶었다.

처음 봤을 때부터 너는 항상 그랬다며, 앞으로도 평생 재수 없을 거라고 핀잔을 주고 싶어졌다.

하지만 데네브는 아무런 말도 하지 못했다. 아니 할 수 없었다. 이제 더는 그녀의 처지가 전과 같지 않았기 때문이다.

오늘 이후로 데네브는 알테어의 ‘앞으로’를 알 수 없을 것이다.

미성년자란 이유로, 후계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왕자의 친구라는 이유로 살아남는 걸 용서받았지만 그의 옆에 남아 있는 것까지 용납될 리 없었다.

“이제 일어나, 정말 가야해.”

미련인지 후회인지 원망인지 아니면 그 전부인지.

알테어는 감히 짐작도 할 수 없는 감정들을 양분 삼아 뿌리내린 데네브의 다리가 미동도 않자 그는 한 번 더 그녀를 재촉했다.

정말로 그러고 싶지 않았지만 이 이상 꾸물거렸다간 꽤 많은 이들이 곤란해지고 말 것이다.

“더 늦게 가면 다들 네가 감옥에서 도망친 걸 눈치 채고 말 거야.”

“못 가.”

정말 다시 만날 수 있을까, 언젠가 내가 네 옆에 있을 수 있을까, 같은 물음이 그녀의 입 안에서 덧없이 흘러졌다.

힘없는 그들이 지금 확신할 수 있는 미래는 아무것도 없었다.

“뭐, 그 칙칙한 방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은 마음은 이해하는데 네가 안 가면 네가 빠져나오는 걸 눈감아준 앙헬이 네 침대를 차지해버리고 말걸. 조명은 침침해도 이불은 폭신하니 앙헬은 좋아할 지도 모르겠네.”

“그게 아니야, 멍청아.”

비르마스 왕국의 어린 왕에게 끝내주는 수식어를 선사하며 데네브가 피식 웃음을 터트렸다.

미래는 불확실해도 지금 이 순간의 안식만큼은 손에 쥐 수 있을 만큼 선명했기 때문이다.

그녀는 먼저 자리에서 일어난 알테어를 향해 손을 뻗었다.

“다리가 풀려서 못 일어나겠어. 도와줘.”

“.....저런.”

잠시 몸을 멈칫하던 알테어가 데네브의 무릎 밑으로 손을 넣었다. 그 때문에 차가운 눈덩이가 그의 소매 안으로 들어갔다.

차가워 진저리칠 법도 하건만 알테어는 아무런 내색 없이 데네브를 안아 올렸다.

“앙헬이 아쉬워하겠네.”

“.....감옥의 침대를? 펍이나 그러겠다.”

데네브는 눈앞의 아직은 옛된, 알테어의 부드러운 얼굴선을 바라보았다. 햇빛을 반사하는 흰 눈들 때문인지 평소보다 빛이 강했다. 모든 것이 타는 듯이 눈부서 데네브는 눈을 감았다.

“우린 꼭 다시 만날 거야.”

그녀의 생각을 읽기라도 한 건지 데네브의 입 안에선 안개마냥 흩어졌던 의문들이 알테어의 입을 통해 형체를 갖추고 확신이 되어 튀어나왔다.

알테어의 말을 들은 데네브는 입술을 즈려물고 그의 목을 끌어안았다. 다가올 이별이 한층 더 선명하게 느껴졌기 때문이다.

데네브는 파도처럼 밀려오는 두려움과 외로움에 몸서리쳤다.

“반드시 다시 만날 테니까, 그 때까지 꼭 살아 있어야 해.”

뜨거운 숨결과 쉼은 울음으로 축축하게 젖어 들어가는 자신의 어깨를 모른 척 하며 알테어가 말했다.

그는 지금 딱 그녀가 울고 있는 만큼 속이 부글부글 끓어올랐지만 내색하진 않았다.

내색해봤자 알테어가 데네브를 위해 해 줄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으므로.

“날 위해서라도 그래야 해. 꼭이야.”

알테어는 데네브가 자신을 위해서 존재해주기를 바랐다.

언제 다시 만나게 될 진 모르지만 만약 그렇게만 된다면, 그 날 이 온다면 알테어는 그녀만을 위한 세계를 만들어 줄 것이다.

그럴 것이라고 그는 지금 이 순간 맹세했다.

Chapter 1. 빛의 아이

2. 열 살, 첫 만남, 여름(1)

세계가 태어나는 순간을 목도한 적이 있는가?

태양과 별이 처음 빛을 발해 세상을 비추던 순간이라든가 끝없이 펼쳐진 하늘 위로 새하얀 뭉게구름이 지상에 첫 그늘을 드리우던 순간이 아닌 그보다 훨씬 더 작고 연약한 그러나 결코 무력하지 않은 존재, 인간의 안에서 태어나는 세계를.

영광스럽게도 과거 알테어에게는 그 순간을 목격할 기회가 있었다.

공기를 달구는 무자비한 햇빛으로 인해 가만히 있어도 숨통이 죄어오던 어느 한 여름의 정오 날이었다.

알테어는 그 날 일어났던 모든 일들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었다.

왜냐하면 그 날은 그에게 제왕학을 가르치는 교수가 배탈이 나서 몸져누웠다가 검을 가르치는 기사단장이 급한 임무로 인해 자리를 비우게 되는 우연이 차례차례 겹쳐 그에게 단비와도 같은 휴일을 선사해 주었기 때문이다.

하루의 시작을 늦잠으로 시작하는 것만큼 즐거운 일이 또 있을까.

평소보다 훨씬 느지막이 일어나 부드러운 이불 위를 뒹굴며 침대 위에서 아침 식사를 마친 알테어의 기분은 구름 위를 떠돌아다니는 것 마냥 가뿐했다.

하지만 모처럼의 휴일이 생긴 것에 의한 기쁨에 잠겨 있던 것도 잠시, 언제나와 같이 성 안에서 하루를 보내야 한다는 사실에 싫증을 느낀 알테어는 다른 이들의 눈을 피해 몰래 성 밖을 나가려던 아버지를 졸라 그의 뒤를 따라 나섰다.

당연하지만 일국의 수장, 레굴루스 카를 콘 비르마스는 처음엔 알테어의 동행을 반대했다.

그를 따르는 몇 안 되는 수행원들도 만장일치로 고개를 저었다.

왕은 엄한 목소리로 단칼에 안 된다고 말했고 수행원들은 뿔로통해진 알테어를 살살 달래 성 안으로 돌려보내려 하였다.

하지만 알테어는 겁을 먹지도 자신이 거주하는 성으로 돌아가지도 않았다.

알테어는 아버지가 자신을 데려가도록 만드는 방법을 알고 있었다.

아주 쉬웠다.

자신을 데려가지 않으면 이 자리에서 큰 소리로 울어버리겠다고 말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다.

“감히 그럴 생각 말거라, 알테어 라셀 콘 비르마스.”

어린 왕자의 맹랑한 협박에 한층 더 매섭게 표정을 굳힌 그는 위엄 서린 제왕의 가면을 둘러쓰며 그를 향해 호통쳤다.

“그건 왕자답지도 못한 행동일뿐더러 비르마스의 이름을 이은 왕실의 자제로서 용납되지 못할 언사다.”

“아버지가 지난주에 어머니나 케틀렉 공작과 대면하기 전에 위스키 반병을 비운 것처럼요?”

“.....”

“그리고 보니 분명 주치의가 당분간 금주해야 한다고 했던 거 같은데.....”

“.....”

“그보다 저 진짜로 두고 가실 건가요?”

왕은 제 맹랑한 어린 아들을 함께 데리고 나가지 않을 수 없었다.

어떻게 알아낸 건지 서랍장 뒤편에 숨겨 놓은 위스키에 관한 사실을 꿰뚫고 있는 건 둘째 치고 그가 레굴루스의 입에서 거절의 말이 내뿜어 지는 순간 소리를 지르기 위해 숨을 들이 키고 있었기 때문이다.

왕은 알테어가 어떤 식으로 울음을 터트리는지 알았다. 너무 잘 알아서 문제였다.

“우리가 오늘 어디로 가는 지는 반드시, 반드시 비밀로 해야 한다.”

왕은 작은 한숨과 함께 마차의 맞은편에 앉은 알테어를 향해 말했다.

대체 목적지가 어디인지는 알 수 없었지만 늙은 왕은 어린 왕자에게 신신당부하며 몇 번이고 비밀을 지킬 것을 다짐받았다.

“결코 그 누구에게도 알려선 안 돼.”

그 '몇 번'이 열 손가락을 넘어가기 시작하자 알테어는 그와 눈을 마주치는 것을 포기하고 커튼 너머로 스쳐지나가는 수도의 정경에 대단한 관심을 보이는 척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레굴루스는 계속해서 알테어의 대답을 듣고 싶어 했다.

"알테어."

"걱정 마세요."

'제발'이라는 말을 목구멍 뒤로 힘겹게 씹어 넘기며 알테어는 들추고 있던 커튼을 다시 내렸다.

거미줄처럼 뻗어진 중앙대로의 상징인 니콜라이의 분수대가 두터운 자줏빛 벨벳 천 뒤로 모습을 감췄다.

마차의 흔들림에 몸을 잘게 떨고 있던 커튼 밑의 황금빛 술이 신경질적인 알테어의 손짓에 탄력을 받아 어지러이 흐트러졌다.

"맹세컨대 절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을 게요."

"네 말이 사실이라면 좋겠구나."

"정말이에요. 비밀은 꼭 지킬게요."

흔들리는 커튼 사이로 명멸하는 여름 햇살이 눈부셨다.

눈을 굴리고 싶은 걸 꼭 참은 알테어는 마차 바닥에서 시시각각 모양을 바꾸는 햇빛의 조각을 바라보며 자신이 낼 수 있는 최대한의 진심을 담아 솔직하게 말했다.

"가능하다면 전 또 아버지와 함께 성 밖으로 외출하고 싶어요."

아직 채 젖살이 다 빠지지 않은 어린 아들의 새하얗고 앳된 얼굴을 바라보던 레굴루스의 눈썹이 위를 향했다.

검은 속눈썹을 내리칸 채 무릎 위에 두 손을 모으고 있는 그는 답지 않게 매우 얌전해 보이는 것과 동시에 어딘가 지치고 무료해보였다.

“아버지가 어디서 뭘 하시든 상관없어요. 그저.....저도 함께 데려가 주셨으면 해요. 뭐든 성 안에서 시종장의 잔소리를 들으며 책을 읽는 것보단 백배 나은 거예요.”

그의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고 있던 왕은 저도 모르게 눈살을 찌푸렸다.

보기만 해도 입 안을 걸끄럽게 만드는 미묘한 거슬림이 알테어의 언행과 분위기 속에서 배어나오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 기시감은 단번에 알아차리긴 어려울 정도로 은근했지만 한 번 눈에 밟히면 다시는 무시할 수 없는, 그런 종류의 깨달음이었다.

알테어는 왕자궁의 시종장, 렉터의 잔소리와 매일 같이 쳇바퀴마냥 이어지는 수업의 지루함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는 자신과 같은 자리에 있는 걸 허락받은 이들이 얼마나 쿠키 틀로 찍어낸 반죽마냥 획일화 돼 있는지, 아무 생각 없이 던진 말 한 마디에 벌벌 떨거나 잊지도 않은 진의를 찾아내려고 애쓰는 지에 대해서도 이야기했다.

정작 만나고 싶은 사람들의 얼굴을 마주하기는 하늘의 별따기라는 알테어의 푸념에 그제서야 레굴루스는 그 거슬림의 정체를 알아냈다.

입 안에 난 종기마냥 허끝에 걸리는 그 불유쾌하고 기분 나쁜 기시감은 레굴루스 역시 익히 갖고 있는 감정이었다.

그건 십 수 년 전부터 그와 함께해왔고 지금 이 순간까지도 그림자마냥 그의 가슴 속 한 구석에 눌러 붙어 이제는 떼려야 뗄 수 없었다.

그 감정의 이름은 고독.

거대한 왕국을 통치하는 왕이라면, 지배자의 숙명을 짊어진 비르마스 가의 피를 이은자라면 누구나 짊어지게 되는 가장 기본적이고 원초적인 감정이었다.

레굴루스는 한 마디로는 설명할 수 없는, 온갖 감정이 뒤섞인 기묘한 얼굴로 자신과 같은 피를 공유한 혈육을 바라보았다.

그는 자신이 처음 왕자의 자리가 고독하다고 느꼈던 때가 언제였는지 기억해 보려 했다.

고풍스런 멋과 위엄을 간직한 성이 언제부터 차갑고 공허한 공간으로 느껴졌는지, 내 것이라 생각했던 것을 믿지 못하고 의심하기 시작하던 때는 어느 시기부터였는지 기억해내고자 노력했다.

‘열다섯 살이었던가? 그도 아니면 열여섯?’

정확하진 않았다.

하지만 설령 자신이 틀렸다고 해도 그가 왕자라는 자리가 마냥 좋은 것만은 아니란 걸 깨달았던 때는 이보다 많으면 많았지 결코 적지는 않았다.

레굴루스 카를 콘 비르마스가 늙어도 열여덟 살 즈음에나 자리가 주는 책임감에 대해 깨달았던 걸 아직 열 살 밖에 되지 않은 알테어 라셀 콘 비르마스는 벌써부터 깨우치고 있었다.

30분 전까지만 해도 큰 소리로 울어버리겠다며 떼를 쓰던 이 어린아이가!

레굴루스는 아직 젖살도 다 빠지지 않은 알테어의 얼굴을 바라보며 만감이 교차하는 것을 느꼈다.

“알테어.....”

동시에 그는 알테어가 적어도 감정적인 부분에 한해선 또래의 다른 아이들보다 예민하던 사실을 깨달았다.

아마도 전대 왕과 왕후의 관계나 이를 둘러싼 왕국의 전후사정이 레굴루스가 왕으로 군림하고 있는 현시대와는 극히 다르기 때문일 것이다.

물론 이것이 알테어가 성숙한 정신과 예민한 기질을 가지게 된 절대적인 원인이라 볼 순 없었다.

배우는 과목도 가르침을 받는 스승들도 성에서 근무하는 이들도 레굴루스가 왕자였던 시절과 그 무엇 하나 같은 게 없었으니 알테어가 지금의 성격을 형성하게 된 대에는 다양한 이유가 존재할 것이다.

그러나 레굴루스는 알테어가 품은 부정적인 감정과 그 나이대의 아이라면 느낄 일 없는 감각을 느끼고 있는 건 어느 정도 일부, 자신의 무관심이 기여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긴 한숨이 늙은 왕의 폐부 깊숙한 곳에서부터 흘러나왔다.

마치 어디서부터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지 모를 엉킨 실 뭉치를 마주한 기분이었다.

사실 레굴루스가 이러한 기분과 마주하는 건 처음이 아니었다.

더 자세히 말하자면 대관식 직후, 즉위한 그 순간부터 레굴루스는 이러한 감각을 매 순간 느껴왔다.

레굴루스는 자신의 해왔던 모든 선택이 잘못됐던 건 아니었는지 고민했다.

끔찍한 기분이었다.

물론 가장 끔찍한 건 과거는 바꿀 수 없고 설령 바꿀 수 있다 하더라도 그는 자신의 선택을 번복하지 않을 거란 사실이다.

해가 갈수록 커져가 이제는 왕실의 존속마저 위협하는 케틀렉 공작가의 파벌과 서로를 향한 일말의 감정조차 느낄 수 없는 의무뿐인 부부관계, 그리고 열여덟 살 이후로 지우려야 지울 수 없었던 검은 고독 자국.

그는 이미 아주 오래전부터 한계에 달한 체력과 나이를 핑계로 지켜야 할 의무들을 뒤로하고 도피하는 행동을 반복해왔다.

어쩌면 알테어에게도 저와 같은 숨구멍을 만들어주는 것이 그가 아들을 위해 해 줄 수 있는 최초의 선의이자 최소한의 예의일지도 몰랐다.

“네가 원한다면 이제부터 얼마든지 나와 동행해도 좋다.”

한 마디 한 마디, 입을 뿔 때마다 레굴루스는 혀과 입술에서 불에 타는 듯한 고통을 느꼈다.

살아 숨 쉬는 불꽃 뱀이 제 혀를 감싸고 입 안을 드나드는 것만 같았다.

그는 이것이 제 마음이 만들어 낸 허상임을 알았다.

하지만 잘못된 선택을 할 때마다 느껴지는 이 육신거림은, 고통은 진짜보다도 더 진짜 같았다.

남아 있는지도 몰랐던 양심이 지금이라도 입을 다물라고 명령했다.

“앞으론 나가기 전에 네게 사람을 보내 전갈하마.”

그러나 그는 도무지 제 혀를 멈출 수가 없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양 태연한 척을 하는데 도가 튼 얼굴은 색 하나 변하지 않고 다물지 못하는 입을 도와 레굴루스의 언사에 힘을 실었다.

알테어의 눈이 놀라서 동그랗게 뜨였다.

“정말요?”

“그래. 대신 이 모든 건 비밀로 해야 한다. 내가 심부름꾼을 보냈단 것과 성 밖

으로 외출을 하고 있다는 건 물론이고 우리가 지금 향하는 곳도 포함해서 전부다.”

“당연하죠! 아니, 제 말은 그렇게 할게요. 비밀로 할게요!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고 저만 알고 있을 거예요!”

“그래.....”

알테어는 이제야 제 나이다운 표정을 그에게 보여주고 있었다.
뜻밖의 휴일을 받았을 때처럼 밝고 눈부신 아이다운 얼굴.
아까까지 느끼고 있던 불쾌한 감정들은 눈에 녹은 듯이 깔끔하게 사라진 맑고 환한 미소가 그의 입에 걸려 있었다.

“그거면 됐다.”

레굴루스의 입은 바로 이 얼굴을 보고 싶었다는 듯이 그제서야 말을 멈추었다.
신이 난 얼굴로 감사인사를 뱉는 알테어를 보며 고개를 끄덕인 왕은 진한 보랏빛의 폭신한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댔다.
그는 이 잠깐 사이에 10년은 더 늙은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전혀 놀랍지 않은 일이었다.

3. 열 살, 첫 만남, 여름(2)

이른 오전, 성을 빠져나온 마차는 한참을 달리다 마침내 해가 머리 꼭대기에 다다를 때 즈음에서야 목적지에 도착했다.

놀랍게도 마차가 다다란 곳은 숲의 한가운데였다.

좁은 길 양옆으로는 몸통이 굵고 잎이 많은 이름 모를 나무들이 가득했고 산새들이 지저귀는 소리와 찌르르 울어대는 벌레 소리가 간간히 울려 퍼졌다.

서쪽에서부터 불어온 바람은 차가운 공기와 짙은 물비린내를 물고와 알테어의 코를 간질였다.

그는 그제서야 여기가 수도 외각에 위치한 작은 숲이라는 걸 깨달았다.

“이쪽이란다.”

참 멀리도 왔다고 생각하는 알테어를 그의 아버지, 레굴루스가 불렀다.

마차에서 내려 다듬어지지 않은 거친 흙길과 돌 틈으로 난 진녹(眞綠)의 잡초들을 바라보고 있던 알테어는 성큼성큼 거침없는 발걸음으로 길을 벗어나 나무 사이, 햇볕도 들지 않는 어두운 숲 안쪽으로 들어가는 왕을 보며 화들짝 놀랐다.

‘여기가 목적지가 아니었어? 아니 그 이전에 이런 숲엔 대체 왜 온 거지?’

뒤를 돌아보니 데려온 수행원들이 준비해 온 천과 풀이랑 나뭇가지를 엮어 만든 위장 덤불로 마차를 가리고 있었다.

마차가 이곳에서 멈췄다는 흔적을 지우기 위해 길에 난 바퀴자국과 말발굽 자국을 지우는 모습을 보며 알테어는 이상함을 느끼다 못해 수상쩍음을 감지했지만 입 밖으로 질문을 꺼내는 우(愚)를 범하진 않았다.

마차 안에서 그토록 비밀을 지키라 거듭해서 맹세를 반복시켰던 왕이었다.

적어도 그는 알테어가 이런 개방된 장소에서 질문을 던지는 걸 달갑게 여기진 않을 것이다.

“알테어님?”

“앞장 서. 나는 뒤따라갈게.”

왕자라는 단어조차 쓰지 않는 수행원들이 마차를 끌던 말들을 데리고 왕의 뒤를 따라 숲으로 들어갔다.

그들을 쫓아 알테어 역시 숲 안쪽으로 발을 들였다.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 정도로 쨍하던 여름 햇살이 나무 아래로 자리를 옮기자마자 눈 깜짝 할 사이 사라졌다.

뻑뻑하게 자란 나뭇잎과 이 나무 저 나무에서 뿔어 나와 열기설기 설킨 나뭇가지들이 지붕마냥 머리 위를 덮고 있었기 때문이다.

군데군데 좁은 틈새를 통해서야 겨우 보이는 파란 하늘 조각에 더위를 느끼고 소매를 걷어 올리고 있던 알테어는 만족스러움을 느꼈다.

가급적 소리 없이 움직이는 수행원들의 움직임을 본받아 그 역시 발소리를 죽이고 걸었다.

덕분에 가끔씩 말들이 투레질치는 소리와 버석해진 나뭇잎을 밟아 내는 소리, 그리고 새소리 외엔 들려오는 소리가 없었다. 인기척 역시 느껴지지 않았다.

비밀로 하라는 것 외에 아무 설명도 없었지만 알테어는 지금 그들이 위치한 장소, 그리고 조심스럽기 짝이 없던 레굴루스의 태도와 재빠르고 은밀한 수행원들의 연행을 미루어 볼 때 몇 가지 가설을 세워볼 수 있었다.

첫째, 지금 그들이 가는 곳은 다른 이가 알아서는 안 되는 장소이다.

‘하지만 다른 이라니, 대체 누구 말하는 거지?’

둘째, 레굴루스가 하고 있는 일은 남들 앞에선 드러낼 수 없는 일이다.

‘범위가 너무 넓어. 무차별적 살인에서부터 광장에서 옷 벗고 춤추기까지 전부 포함되는 일이잖아.’

셋째, 성에서는 할 수 없는 할 수 없는 일이다.

‘이건 좀 생각해 볼 만 하네.’

왕이 자신의 성에서 할 수 없는 일은 많지 않았다.
성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인물의 눈을 피하고 싶은 게 아니고서야.....

“아.”

그제서야 감이 잡히는 게 있어 알테어는 탄성을 뿜었다.
수행원 몇몇이 그 소리에 뒤를 돌아보았지만 알테어는 제 생각에 도취되어 알아차리지 못했다.

‘이건 외할아버지가 알아선 안 되는 일이군.’

알테어의 외할아버지, 그러니까 왕의 사위인 클라인 클로 케틀렉 공작은 왕국 비르마스의 단 네 명 밖에 남지 않은 개국공신 가문의 수장이다.

20년 전, 비네시스 제국과의 전면전쟁으로 이어질지도 모를 마찰을 평화롭게 중재한 공을 세운 것을 계기로 와 여러 귀족들 사이에서 지대한 영향을 끼치기 시작한 그는 지금에 와서는 왕국 내, 그 누구도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막강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다.

케틀렉 공작을 두고 보이는 귀족들의 반응은 정확히 두 가지였다.

그의 눈에 들고자 아부하거나, 두려워하며 경계하거나.

전자는 그가 바넷 공작보다도 대단한 인물이라며 치켜세우기 바빴고 후자는 그가 뒤에서 몰래 레굴루스 왕 대신 서류에 도장을 찍기도 한다며 언젠가 레굴루스 왕을 배신할 거라는 근거 없는 헛소문을 퍼트리곤 했다.

하지만 어느 쪽이든 진실의 여부와는 상관없이 왕인 레굴루스조차 그를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건 사실이었으므로 그의 권세가 어느 정도인지는 세 살 먹은 어린아이도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흠, 외할아버지가 알아선 안 되는 일이라.....’

성 안에서만 오가는 수많은 이야기들을 떠올리던 알테어는 이내 크게 눈을 굴렸다.

‘그래도 범위가 너무 넓은 건 똑같은데?’

여전히 무차별 살인에서부터 사람들 한 가운데서 나체로 춤추는 일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었다.

최악의 상황을 가정했을 때, 그 중 그도 동행해도 괜찮은 범위 내의 일을 추론해보고 있던 알테어는 문득 저 앞쪽에서 환한 빛이 쏟아지고 있다는 걸 깨달았다.

그는 저곳이 레굴루스가 진정으로 향하고자 했던 목적지라는 걸 본능적으로 눈치챘다.

“오.”

길의 끝에 다다랐을 때 드러난 건 흰색과 푸른색이 뒤섞인 커다란 저택이었다. 이런 인적 드문 숲 한가운데, 그것도 수도 외각에 따로 저택을 지어 생활하는 귀족은 없을 테니 이 저택은 별장일 터였다.

알테어는 이 별장의 색감이 최악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다.

흰색과 푸른색이라니.

숲보다는 바다 근처의 별장에 어울리는 색이지 않은가.

자신들이 정문이 아닌 뒷문을 통해 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알테어는 방금 가로지른 저 숲길이 일종의 지름길이란 걸 알아차렸다.

레굴루스나 다른 수행원들이 이곳에 발을 들인 게 하루 이틀 일이 아니란 뜻이었다.

오는 내내 암전히 침묵을 지키고 있던 알테어는 슬슬 이 저택의 주인이 누군지 궁금해졌다.

“어서 오세요, 레굴루스님.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택 안으로 들어서자 잘 차려입은 중년의 남자가 레굴루스와 알테어를 맞이했다.

알테어는 레굴루스가 저택의 집사에게 자신을 소개하는 동안 별장 내부의 풍

경을 감상했다.

저택 내부는 외부의 색 배합만큼 최악은 아니었지만 역시 까다로운 알테어의 심미안을 만족시킬 순 없었다.

바닥에는 약 두 세대 전쯤에나 유행하던 두꺼운 두꺼운 진청색 카펫이 깔려 있었고 벽에 걸린 그림들은 하나 같이 일관성이 없었다.

봄의 들판을 그려낸 분홍빛 풍경화 옆엔 무채색 빛 거울 바다가 그려진 그림이 있는가 하면 또 그 옆엔 뜬금없이 웬 여인의 뒷모습이 스케치 된 그림이 걸려 있었다. 심지어 그 옆에 걸려 있는 건 그림이 아닌 나무로 조각한 정체불명의 가면이었다.

이쯤 되자 알테어는 제 심미안의 기준이 높은 게 아니라 저택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이라는 결론에 도달했다.

최악은 천장에 매달린 상들리에였다.

높은 홀의 천장에는 샛노란 유리로 장식된 청동빛 상들리에가 매달려 있었는데 알테어는 그 상들리에를 향해 강한 혐오감이 드는 걸 도무지 억누를 수 없었다.

저 끔찍한 상들리에를 고른 인물에게 대체 어떻게 저런 쓰레기를 집 안에 둘 생각이 들 수 있느냐고 묻고 싶을 정도였다.

불행 중 다행이었던 점은 안내받은 응접실의 인테리어가 극히 평범했다는 사실이다.

붉은색과 갈색이 적절히 조합된 응접실은 비르마스 왕국에서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양식이었다.

짙은 갈색의 가죽 소파에 앉고 나서야 알테어는 홀과 복도에서 느꼈던 불편함이 가라앉는 것을 느꼈다.

그들을 안내해 준 집사는 두 사람이 소파에 앉자 다른 손님을 맞으러 가보겠다며 양해를 구하고 밖으로 나갔다.

마침내 둘 뿐이었다.

대접받은 차의 달콤함에 눈살을 찌푸리고 있던 알테어가 주변을 둘러보았다.

그는 방 안에서 느껴지는 인기척이 없다는 사실을 두 번, 세 번 확인했다.

“그래서.....”

아무도 없단 사실을 완벽히 확인한 그가 그제서야 입을 열었다.

“여기는 어딘가요?”

소파의 상석에 앉아 익숙하다는 듯이 깎지 낀 두 손을 배 위에 올린 왕의 모습이 알테어의 눈에 담겼다.

왕, 레굴루스는 그를 돌아보지도 않고 대답했다.

“캄파넬라 백작의 별장이다.”

듣도 보도 못한 귀족가문의 이름에 알테어는 잠시 기억을 뒤져야 했다.

‘캄파넬라 백작이라면 분명 이름이.....이에르곤 바론 캄파넬라였었나?’

캄파넬라 백작가는 남쪽 지방에 영지를 둔 작은 귀족 가문으로 머리가 좋아 학자 출신이 많다는 걸 제외하면 별 특징이랄 것도 없는 평범한 가문이었다.

가문의 역사가 깊은 것도 아니고 돈이 많다거나 권세가 강한 가문도 아니었기에 알테어가 캄파넬라 가문에 대해 알고 있는 거라곤 캄파넬라 가문의 가주, 이에르곤 백작이 대륙의 역사와 그에 관련된 문학에 매료된 학자라는 것뿐이었다.

그것도 그가 집필한 서적으로 역사를 공부한 경험이 있기에 알아낸 사실이었지 원래라면 이에르곤 백작 같은 약소 귀족에 대한 정보가 알테어의 귀에 들려 올 일은 그가 죽었다 깨어나도 없을 것이다.

그렇기에 알테어는 제 아버지를 올려다보았다.

이 저택의 주인이 누군지에 대한 정보만으론 그들이 이곳에 온 이유가 다 설명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한 달에 두 번, 이곳에서 백작의 역사 강의를 있다.”

어째서인지 느리고 깊은 한숨을 내뿔으며 레굴루스가 말했다.

“그걸 들으러 왔단다.”

“고작 강의하나 듣자고 여기까지 오셨다고요?”

숲을 가로지르며 늘어났던 가설들이 한낱 망상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깨달은 알테어가 불만을 감추지 못하며 통명스레 물었다.

휴지조각이 된 제 생각들을 잡아 뜯는 상상을 하며 그는 버터 맛이 강하게 나는 동그란 과자 하나를 작살냈다.

“왜 백작을 성으로 부르시지 않고요?”

“나 말고도 그의 강의를 듣고자 하는 이들이 있기 때문이지.”

“아버지의 요청이라면 그에게 같은 강의를 두 번 시키실 수 있으실 텐데요.”

“.....바보 같은 소리 하지 말렴, 알테어.”

가운데 딸기잼이 들어간 과자를 벌써 다섯 개째 입 안으로 밀어 넣고 있는 알테어를 향해 눈길조차 주지 않은 그가 피곤이 가득 묻어나는 얼굴로 속삭였다.

“나는 그를 존경하고 있단다. 그가 먼 지방에 머무르고 있는 것도 아니고 나를 통해 부당한 이득을 취하고 있는 것도 아니니 그의 편익에 맞춰 몸을 직접 움직이는 수고 정도야 얼마든지 할 수 있단다.”

“다른 이들에게 행선지를 비밀로 하면서까지요?”

단맛이 나는 차에 달디 단 과자라니.

혀가 단맛으로 마비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테어는 오늘 처음 깨달았다.

“고작 백작의 강의를 듣는 것뿐이라면 마차 안에서 그렇게 철저하게 비밀을 맹세할 필요가 있었을까 싶네요.”

“내가 백작에게 강의를 듣고 있다는 걸 안다면 분명 못마땅해 하는 이들이 있

을 거란다. 어쩌면 네 말대로 그들은 백작을 성으로 초빙하고 싶어하겠지.”

손가락에 묻은 과자 부스러기를 일부러 손수건이 아닌 혀로 닦아내던 알테어는 문득 레굴루스의 말에 기시감을 느꼈다.

그는 곧 아버지가 말하는 ‘그들’이 ‘케틀렉 공작’을 가리키는 단어임을 깨달았다.

“다시 말하지만 나는 그를 존경하고 있단다. 그에게 필요 이상의 수고나 민폐를 끼치고 싶지 않아.”

“뭐, 알겠어요.”

‘일단은.’

알테어는 눈을 굴리지 않으려 노력하며 레굴루스처럼 폭신한 소파 등받이에 몸을 기댔다.

예민한 그의 직감이 아버지가 아직 무언가를 더 숨기고 있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었다.

“여기서 알았다는 건 아버지가 그를 엄청 존경하고 있단 사실 하나만큼은 확실하게 알았다는 뜻이에요.”

하지만 알테어는 굳이 그 부분을 건드려 들추고자 하지 않았다.

그의 육감은 레굴루스가 무언가 비밀을, 그것도 아주 중대한 사실을 감추고 있다는 걸 알려주고 있었지만 그와 동시에 그에게 침묵하라 경고주고 있었기 때문이다.

알테어는 그 경고를 따랐다. 그가 제 육감을 따라 움직였다 손해 본 일은 없었다.

적어도 아직까지는.

어렸을 때부터 그의 직감은 대체로 잘 맞아 떨어지는 편이었다.

알테어는 아직도 자신이 처음 느꼈던 육감이 무엇인지에 대해 기억할 수 있었다.

그건 지금으로부터 약 4년 전, 그러니까 6살의 어느 추운 겨울날의 일이었다.

그 날 정확히 두 사람 사이에 어떤 감정이 오갔기에 그런 예감이 든 건진 잘 기억나지 않았다.

하지만 알테어는 창밖에서 휘몰아치는 눈보라보다도 싸늘한 부모님의 창백한 얼굴을 바라보며 그들이 평생 자신에게 인간으로서 갖춰야 할 기본적인 예의 이상의 애정을 보이지 않을 거라는 걸 직감했다.

그리고 그 직감은 지금 이 순간까지 변하지 않고 맞아 떨어진 채였다.

4. 열 살, 첫 만남, 여름(3)

백작의 수업을 듣는다는 다른 사람들이 도착했는지 문밖이 조금 소란스러워졌다.

잠시 후, 가벼운 노크와 함께 들어온 집사가 셀시우스 후작과 르벨폰 백작, 카시어스 남작 부부, 그리고 다헬 남작 부인이 도착했다는 사실을 알려주었다.

“준비해야 할 자료 때문에 강의는 30분 후 시작할 예정입니다. 다들 다른 응접실에 모여계신데 가보시겠습니까?”

“그러지.”

레굴루스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알테어에게 같이 수업을 듣겠냐고 물었다.

“싫어요.”

당연하게도 알테어는 이를 거절했다.

“모처럼 생긴 휴일이라고요. 저는 오늘 공부 안 할 거예요.”

이에르곤 백작의 저서를 모두 찾아 읽어본 독자로서 그의 강의를 어떨지 궁금하지 않다면 거짓말이겠지만 알테어는 정말로 쉬고 싶었다.

물론 레굴루스가 그의 곁을 비우게 되겠지만 알테어는 혼자 있는 것에 익숙했다.

어렸을 때부터 갖은 경험으로 그는 혼자 놀거나 사색하는 일엔 도가 터 있었다.

“알겠다.”

알테어의 심정을 이해했기 때문인지 그도 아니면 애초에 강의를 같이 들을 생각이 없었던 건지 레굴루스는 그에게 두 번 권하지 않았다.

짧게 고개를 끄덕인 왕은 알테어에게 예의에 맞게 행동하라는 당부 외에 별다른 말없이 방을 나섰다.

“건물 안을 마음대로 돌아다니셔도 괜찮습니다.”

방에 남은 집사가 차분한 목소리로 알테어를 향해 예를 갖추며 말했다.

“물론 원하신다면 밖으로 나가 정원을 구경하셔도 됩니다. 장미가 아주 예쁘게 피었습니다. 사용인을 부르시면 그곳으로 차나 과자를 더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알았어.”

“다만 숲 안에는 멧돼지나 곰 같은 위험한 야생동물이 서식하고 있으니 저택 밖으로만 나가지 말아주세요.”

“그 밖에 다른 주의사항은? 들어가지 말아야 할 방 같은 건 없어?”

“없습니다.”

당당한 그의 말에 알테어의 눈이 조금 커졌다.

그 모습이 귀엽게 느껴졌는지 아주 희미하게 집사의 입가에 웃음기가 감돌았다.

“백작님께서서는 알테어님이 서재의 책을 읽어도 좋고 아무 방의 침대에서 숙면을 취하셔도 괜찮다 하셨습니다. 별장이라 얼마 없지만 사용인들을 전부 알테어님의 팔다리라 생각하고 불러주세요.”

“.....”

“아, 마음이 바뀌신다면 강의에 참여해도 좋다고 하시니 언제든 개의치 말고 들러 주시면 됩니다. 강의는 바로 위층의 오른쪽 복도 끝에 있는 가장 커다란 방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알테어가 집사의 말을 온전히 이해하는 데는 조금 시간이 걸렸다.

캄파넬라 백작의 저서는 꼼꼼하고 고증 가득하며 객관적인 눈으로 사실을 전하는 한 편 얼핏 냉정하다고 느껴질 법한 주관적인 평가가 가끔씩 눈에 띄었는데 이 때문에 알테어는 저도 모르게 그가 차갑고 깐깐하며 다소 신경질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집사가 전하는 백작의 언동으로 추측컨대 그는 느긋하다 못해 태평하고 자비로우며 나긋나긋한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

“배가 고프시진 않으십니까? 백작님께서 직접 공수해 오신 비네시스 제국 산과자가 있습니다. 아주 부드럽고 맛있는데 한 번 드셔보시겠습니까?”

“어어?”

“지금 드시고 계신 차와 잘 어울릴 겁니다.”

“.....아니, 아니야. 필요 없어. 지금은 배가 불러.”

포근한 미소와 함께 권해진 그 제안에 알테어는 이 달디 단 차와 과자를 함께 내라고 지시한 게 캄파넬라 백작의 소행임을 깨달았다.

레굴루스가 차에는 손도 대지 않았다는 사실을 떠올려 볼 때 그 다과는 오직 알테어, 그를 위해 준비된 것이었다.

그 순수하고도 날 것의 호의가 낯설어 알테어는 저도 모르게 눈살을 찌푸리며 손가락을 꼼질댔다.

뜨거운 열기를 가진 벌레가 온 몸을 기어 다니는 것 같이 피부 위가 간질간질하고 따스했다.

“그럼 다른 필요한 게 있으시다면 불러주세요. 저는 주방에 있을 예정입니다.”

집사가 매끄러운 동작으로 소리도 없이 방문을 닫고 나가는 그 순간까지 알테어는 미간을 찌푸리고 있었다.

기분이 나쁜 건 아니었다.

아니, 오히려 이 모든 상황이 자신에게 호의적이니 좋다고 봐야했다. 하지만 무엇이 어떻게 좋은 거란 말인가?

알테어는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정확히 어디가 왜 이상한 건지 몰라 도리어 그 사실에 기분이 나빠졌다.

한참을 고민하던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알테어는 생각이 막혔을 땐 가만히 앉아 있는 것보단 몸을 움직이는 게 도움이 된다고 믿고 있었다.

다른 사람들은 모두 2층의 강의실에, 혹은 이곳과는 다른 응접실에 모여 있는지 복도는 적막하고 고요했다.

제자리에 서서 가만히 주변을 둘러보던 알테어는 밖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다.

정체불명의 인테리어로 도배된 저택 내부는 그의 사색을 방해했기 때문이다.

날이 조금 덥더라도 꽃과 나무를 눈에 담는 쪽이 그의 정신건강에 훨씬 더 이로웠다.

‘장미가 예쁘게 피었다고 했던가? 그럼 정원 쪽으로 가볼까.....’

정처 없이 여기저기 헤매는 것보단 목적지를 정하고 움직이는 게 당연히 더 효율적이었다.

처음 온 장소에서 길을 잃고 싶지 않다면 더더욱.

‘정원으로 갔다가 장미를 구경하고 되돌아오자. 햇볕이 강하니 바깥에 오래 있는 건 좋지 않겠지.’

알테어는 간단하지만 빈틈없는 제 계획이 만족스러웠다.

집사에게서 미리 정원에 대해 이야기를 들어둔 게 도움이 되었다.

‘좋아, 모든 게 완벽해.’

알테어는 생각했다.

하지만 당당하게 정문을 열어젖힌 그는 문득 떠오른 또 다른 생각에 몸을 멈췄다.

“아.....그런데 어느 쪽으로 가야 정원이 나오는 거지?”

계획은 완벽했다.

그가 목적지의 방향을 모른다는 사실을 제외한다면.

생각해보니 집사는 정원의 장미가 예쁘다고는 했지만 그 예쁜 장미가 핀 정원이 어디 있는지는 알려주지 않았다.

‘.....기왕 알려주는 거면 전부 다 말해주지 왜 반쪽짜리 정보만 말한 거야?’

미리 물어보지 않은 제 잘못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알테어가 입술을 삐죽이며 주변을 살폈다.

혹시라도 정원이 정문 근처에 있을까 싶어서였다.

하지만 정문 앞에는 마차가 들어올 수 있도록 잘 닦인 길과 짧게 자른 풀밭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망했네.”

결국 알테어는 벽을 따라 저택을 한 바퀴 도는 것으로 계획을 대폭 수정했다.

이런 방법이라면 길을 잃을 일도 없고 어딘가에 있을 정원을 찾을 수도 있을 터이니 일석이조였다.

게다가 정원을 찾고 나면 장미구경 후 왔던 길로 되돌아가기만 하면 되니 처음 세웠던 계획을 무너트리지 않아도 되었다.

모든 일이 다시 계획대로 흘러간다는 감각에 알테어의 기분이 다시금 좋아졌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 감정은 채 5분도 지나지 않아 태양 빛을 받은 안개마냥 흩어져버렸다.

“아야!”

갑자기 나타난 정체불명의 방해물 때문이었다.

벽을 따라 걷다 나온 첫 모퉁이를 막 돈 순간 알테어는 갑작스레 튀어나온 무언가에 세차게 몸을 부딪쳤다.

반동으로 몸이 밀려난 그는 흠바닥 아래, 거하게 엉덩방아를 찧었다.

아래에서부터 올라오는 고통에 알테어는 눈살을 찌푸렸다.

넘어질 때 착지 위치가 좋지 않았는지 눈물이 핑 돌 정도로 아팠다.

“너, 괜찮니?”

알테어가 눈물을 참는 동안 머리 위에선 목소리가 들려왔다.

높고 가는, 어린 여자 아이 특유의 고음이었다.

고개를 들자 귀 밑까지 내려오는 짙은 갈색 머리에 밤하늘마냥 푸른 빛 섞인 검은 눈을 가진 여자애가 그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녀의 품 안에는 풀냄새가 짙은 커다란 바구니 하나가 들려 있었다.

“일어날 수 있겠어?”

내밀어진 작고 새하얀 손에 알테어는 입을 딱 벌렸다. 눈앞의 소녀가 제 또래처럼 보였기 때문이다.

‘그런데 나만 넘어졌다고?’

부딪친 건 둘인데 뒤로 밀려난 건, 그것도 눈물이 맺힐 정도로 아프게 넘어진 건 알테어 뿐이었다.

검술 수업을 통해 체력 훈련도 병행하고 있는 알테어에게 있어 이 사실은 꽤나 충격적이었다.

알테어는 빠르게 소녀를 훑어보았다.

체격은 호리호리했고 햇빛을 많이 받진 않았는지 피부가 희었다.

꾸미는 걸 좋아하는 성격은 아닌지 곱슬거리는 머리 위엔 아무런 장식도 달려 있지 않았다.

입고 있는 옷 역시 실용성을 중시한 레이스 하나 없는 단정한 원피스였다.

키는 알테어보다 한 뼘 정도 컸지만 이 시기의 여자애들이 남자 애들보다 키가 큰 건 왕왕 있는 일이었다.

즉, 이 여자애가 그가 밀려 넘어질 정도로 대단한 체격이나 특별한 체형을 가진 건 아니라는 뜻이다.

알테어는 자존심이 상했다.

".....너, 몇 살이야?"

"11살. 지난주에 생일이 막 지났어."

예상대로 그녀는 알테어와 나이차이가 별달리 나지 않았다.

알테어는 기분이 뚝, 땅 아래로 곤두박질치는 걸 느꼈다.

"넌 손님이야? 아버지의 강의를 들으러 온 건가? 그럼 지금 여기 있으면 안 될 텐데. 몇 분 뒤면 곧 강의 시간인....."

"아니, 난 강의를 들으러 온 게 아니야."

기분이 상한 알테어가 내밀어진 손을 무시하며 혼자만의 힘으로 자리에서 일어났다.

심통이 났기 때문인지 저도 모르게 통명스런 목소리가 튀어나왔다.

"목적지도 모르고 아버지를 따라왔을 뿐이야. 그보다 너, 정원이 어디 있는지 알아?"

"정원? 정원은 왜?"

“내가 거기로 가고 싶으니까.”

소녀에게 정원에 대해 물어본 건 그녀가 ‘아버지의 강의’ 라는 표현을 썼기 때문이다.

캄파넬라 백작의 가족관계에 대해선 아는 게 없었지만 알테어는 그 대화로 그녀가 백작의 딸이란 사실 정돈 짐작할 수 있었다.

알테어는 소녀의 유리구슬 같은 눈동자가 도록 굴러가는 것을 보았다.

예상과는 달리 쉬이 나오지 않는 대답에 괜히 물어봤나, 라는 생각이 들 때였다.

속눈썹이 낮게 내려앉은 소녀의 눈이 알테어를 향해 휘어졌다.

“그런데 시시한 곳 말고 좀 더 재밌는 장소가 있는데 거기로 안 갈래?”

그렇게 속삭이는 그녀의 목소리는 매끄러운 비단표면을 떠올리게 했다.

부드럽고도 달콤한. 듣는 상대를 속이고 위험한 일을 꾸밀 때 사람들이 흔히 내는 목소리였다.

알테어의 본능이 반사적으로 경고음을 울렸다.

“내 비밀 장소야.”

질은 남빛 눈동자가 위험할 정도로 번뜩이며 겁먹은 10살짜리 소년의 얼굴을 두 눈에 담았다.

“장미 정원 같은 곳보다 훨씬 더 재밌을 걸?”

“.....필요 없어.”

자신이 고작 한살 차이 나는 여자 아이에게 겁먹었던 사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알테어가 다시금 눈살을 찌푸리며 차갑게 내뱉었다.

역시 그녀에게 질문을 던지는 게 아니었다. 조금 귀찮더라도 사용인을 불러 물

어볼 걸 그랬다고 알테어는 생각했다.

“내가 궁금한 건 정원으로 가는 길의 방향이야.”

“오, 좋아. 네가 정 그렇다면.....저기, 저쪽으로 쪽 가기만 하면 돼.”

대단히 희극적인 어조로 허리를 숙인 소녀가 한쪽 팔로 성 뒤편으로 향하는 길을 가리키며 말했다.

저 과장된 말투 때문인지 그도 아니면 한쪽만 올라간 입꼬리 때문인지는 몰라도 알테어는 그녀가 저를 비웃고 있다고 느꼈다.

왜 저를 비웃는 건지 알테어는 그 이유를 알 수 없었다.

느낌만 믿고 면전에다 대고 뭐라 할 순 없었기에 알테어는 가만히 서서 그녀의 얼굴을 노려보았다.

“그럼 정원의 장미를 잘 즐기도록 해.”

몸을 돌린 그녀가 알테어를 향해 손을 흔들었다.

“너랑 아주 잘 어울리겠다, 장미 소년.”

“뭐라고?”

방금 그 말로 이젠 확실해졌다.

그녀는 그를 업신여기고 있었다.

“너! 지금 당장 거기서!”

울컥 치밀어 오른 화에 알테어가 소리 높여 그녀를 불렀지만 소녀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다.

그녀는 도리어 어디 따라올 테면 따라와 보란 듯이 달리기 시작했다.

“멈춰! 멈추라니깐!”

노기 서린 알테어의 목소리에도 소녀는 잡힐 듯, 잡히지 않을 듯 달리는 것을 멈추지 않았다.

어느새 숨이 턱 끝까지 차올랐다.

그래도 또래 아이들 중에선 체력적으로 뒤쳐지지 않는다고 생각했는데 그런 그의 생각을 비웃듯이 소녀와 알테어의 거리는 도무지 좁혀지질 않았다.

소녀는 사슴과도 같이 가볍고 날쌔다. 하지만 알테어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오히려 이를 악물고 달리는 속도를 조금 더 올렸다.

‘반드시 잡아주겠어!’

잡아서 반드시, 그를 비웃고 놀린 대가를 치르게 해 줄 것이다.

그런 알테어를 다시금 비웃듯이 귓가를 스치는 바람소리에 소녀의 웃음소리가 스며들어 있었다.

알테어의 눈에서 불꽃이 튀었다.

5. 열 살, 첫 만남, 여름(4)

하늘은 높고 흘러가는 뭉게구름은 평화로웠으며 햇살은 따스하고 불어오는 바람은 기분 좋은 산들바람이었다.

한 마디로 좋은 날이다.

도시락이라도 싸들고 피크닉을 가기 좋은 이 맑고 화창한 날, 알테어는 흙바닥을 구르고 또 굴렀다.

그간 했던 체력 훈련이 헛되지 않았는지 마침내 소녀를 따라잡아 넘어트린 알테어가 그녀와 몸싸움을 벌이고 있었기 때문이다.

“당장 사과해!”

“무엇을?”

서로 우위를 점하기 위해 풀밭 위를 구르다 알테어는 소녀의 주먹에 코를 얻어맞아 코피를 흘렸고 소녀는 알테어에게 머리채를 붙잡힌 탓인지 머리칼이 엉망이라고 말하기도 부족할 정도로 부풀어 올라 있었다.

거친 싸움 끝에 마침내 소녀의 위에 올라탄 건 알테어였다.

굴욕적이라는 표정으로 얼굴을 와그작 일그러트리며 소녀의 얼굴을 내려다보며 알테어는 순수하게 승리감을 맛봤다.

“날 업신여기고 비웃었잖아!”

“내가 언제?”

소녀가 발뻘했다.

얄미운 그 얼굴에 알테어는 바닥에 내리누르고 있던 소녀의 손목위로 좀 더 힘을 가했다.

“안했다고 할 셈이야? 내가 장미랑 어울린다고 했던 말도, 나를 장미소년이라 불렀던 것도 어디 한 번 부정해보시지 그래?”

“그래 뭐, 그런 말을 하긴 했지.”

사나운 알테어의 추궁에 그녀는 마침내 발뺌하던 걸 멈추고 비웃음을 입가에 걸었다.

무엇이 즐거운 건지 기분 나쁜 웃음소리를 흘리던 소녀는 이내 알테어를 흘겨 보았다.

“너, 울보에 겁쟁이잖아? 그런 녀석한테 장미가 어울린다고 한 게 뭐가 나쁜 데? 화려하기만 하고 연약한 게 너랑 닮았잖아.”

“뭐? 누가 울보에 겁쟁이라는 거야? 그리고 난 연약하지 않아!”

“나랑 부딪쳐서 넘어진데다 아파서 울먹이기까지 했잖아.”

“.....”

“콧물 흘쩍인 것도 다 봤어.”

하필이면 소녀는 알테어가 아파서 얼굴을 찡그렸던 순간의 일을 하나도 빠짐 없이 기억하고 있었다.(알테어는 그 때의 일을 죽을 때까지 얼굴을 찡그렸다고만 표현할 예정이다.)

그렇지 않아도 자존심이 상해있던 알테어는 그녀의 말에 한층 더 기분이 가라 앉았다.

반박할 말이 쉬이 떠오르지 않는다는 사실이 가장 짜증스러웠다.

“너 왕족 모독죄라는 거 들어봤어?”

“뭐?”

할 말이 없다고 신분 차이로 밀어붙이다니.....

입 밖으로 내뱉으면서도 치사하다는 자각은 있었다.

하지만 말로도 지기 싫은 치기 어린 마음이 조금 더 강했던 알테어는 동그랗게 떠진 소녀의 눈을 바라보며 의기양양한 표정을 지었다.

“네가 왕족이라고?”

소녀가 놀라 물었다.
알테어는 이제 그녀가 창백해진 얼굴로 잘못했다고 비는 모습을 상상했다.
그도 아니면 어쩔 줄 몰라 안절부절 못하다 울음을 터트리던가.
어느 쪽이든 너그러운 마음으로 소녀를 용서해 주며 우월감을 챙기는 미래를 그리던 알테어는 이내 깜짝 놀랐다.

“아하하! 네가 왕족이라고? 네가?”

소녀가 큰 소리로 웃음을 터트렸기 때문이다.
비웃음이 아닌 순수한 환희만이 담긴 그 웃음소리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 알 수 없어 알테어는 몸을 굳힌 채 멍청한 얼굴로 눈만 깜빡였다.

“네가 비르마스의 이름을 달고 있다고? 너 같은 울보에 겁쟁이가? 아하하! 내가 왕족 모독죄를 아냐고? 그러는 넌 왕족 사칭 죄가 뭔지 알아?”

그제서야 알테어는 왜 이 여자애가 깔깔대며 웃고 있는지를 깨달았다.
그녀는 알테어가 왕족이라는 사실을 알고 실성하거나 정신이 나간 게 아니었다.
단순히 그가 왕자라는 사실을 믿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넋이 나간 채 입만 헤 벌리고 있던 알테어의 눈이 대번에 사납게 치켜 올라갔다.

“난 알테어 라셀 콘 비르마스야. 비르마스 왕국의 일왕자이자 리히트 왕의 유일한 적손이라고.”

“그래그래. 난 하일린 신성국의 100번째 성녀야. 만나서 반가워.”

공식적으로 하일린 신성국의 성녀는 99대 성녀, 길잡이 루살린이 마지막이었다.

그 때문에 오랜 세월 지속되던 윤월력이 성력으로 바뀐 지 오래 건만 그런 알팍한 속임수에 대체 누가 속아 넘어가겠는가.

“너 내가 거짓말을 하는 거라고 생각하나본데.”

눈을 가늘게 뜬 알테어가 소녀를 향해 으르렁거리듯이 속삭였다.

“만약 내 말이 진실이면 그 뒷감당을 어떻게 하려고 그렇게 당당한 거야?”

“너야말로.”

잠시 낮이 나가있던 사이 소녀를 억누르던 손의 힘이 약해지거나 한 모양인지 눈 깜짝할 사이 다시금 우위가 뒤집어졌다.

시야가 한 바퀴 돌며 헝클어진 소녀의 갈색 머리 너머로 뿌연 하늘이 보였다.

아픔에 울먹이는 알테어의 얼굴이 소녀의 망막에 고스란히 맺혔다. 이제는 소녀의 얼굴이 승리감으로 도취될 차례였다.

사냥감을 눈앞에 둔 포식자의 눈을 한 소녀의 눈동자가 희게 빛났다. 알테어가 두렵다고 느낀, 바로 그 눈빛이었다.

“네가 진짜 왕족이면, 앞으로 내 입에서 나올 이야기들을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래?”

소녀의 손에 의해 바닥에 내리 눌린 알테어의 손목에 힘이 들어갔다.

하지만 알테어의 손목을 붙든 소녀의 양 팔은 알미울 정도로 꿈쩍도 하지 않았다.

“나는 왕족들은 전부 강하고 울곧을 줄 알았어. 레굴루스 폐하처럼.”

소녀의 남빛 눈동자가 훑, 가까이 다가왔다.
그녀가 갑작스레 알테어를 향해 고개를 내린 탓이다.

“너도 알다시피 레굴루스 폐하는 남에게 굽히느니 차라리 부러지겠다는 분위기를 풍기시잖아.”

알테어는 소녀의 작은 콧망울과 가늘게 떨리는 긴 속눈썹을 보았다.
그는 소녀가 입을 열 때마다 피부에 와 닿는 열기어린 숨결을 느낄 수 있었다.

“하지만 너는 다르지.....”

두 사람은 그 정도로 가까웠다.

“겁쟁이에 울보 왕자님.”

“당장 그 말 취소해!”

“그럼 대가를 치러야지.”

알테어의 위에서 일어난 소녀가 그를 내려다보며 차가운 목소리로 내뱉었다.
흙투성이에 얼굴 여기저기 생체기가 난 소녀는 몸시도 볼품없는 모습이었지만
헝클어진 머리칼 사이로 보이는 눈만큼은 무시무시할 정도로 빛나고 있었다.
알테어는 어쩐지 그녀에게서 시선을 땔 수가 없었다.

“내 입을 다물게 하려면 내 인식을 바꿔야해.”

소녀는 당췌고 무엇 하나 기죽을 게 없다는 태도를 보였다. 그런 소녀의 모습은 알테어를 혼란시켰다.

“네게 과연 그럴 용기가 있을까?”

그녀는 알테어의 신분 따위는 조금도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았다. 때문에 알테어는 소녀가 아직까지도 제 정체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건지 그도 아니면 알면서도 저렇게 뻔뻔하게 나오는 건지 감을 잡을 수 없었다. 하지만 단 한 가지, 확신할 수 있는 게 있었다.

“있어.”

알테어는 그녀에게 절대로 지고 싶지 않았다. 자리에서 벌떡 일어난 그가 소녀와 시선을 마주하며 그녀에게 성큼, 한 걸음 다가갔다.

“내가 뭘 하면 돼?”

무슨 대가를 치러야 할지, 무엇을 하게 될지 몰라 무섭지 않다면 거짓말이겠지만 알테어는 입술을 꼭 한 번 깨물었을 뿐, 몸을 떨지도 움츠리지도 않았다. 그는 도리어 당당히 어깨를 펴고 도전적인 눈을 한 채 소녀를 노려보았다.

“따라와.”

당찬 알테어의 대답에 도발하듯이 소녀가 한쪽 입꼬리를 올리며 대답했다.

“네가 진짜 겁쟁이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 있는 좋은 장소가 있어.”

바닥을 구르고 있던 바구니를 들어 올린 그녀가 앞장 서 걸었다.
알테어는 그 뒤를 따르며 도망치고 싶어 하는 제 마음을 꺾꺾 억눌렀다.
알테어는 자신이 느끼는 이 모든 혼란과 두려움을 죽어도 저 여자애가 눈치 채게 하고 싶지 않았다.
그것만은 절대로 있어선 안 될 일이었다.
하지만 까마득히 높이 솟은 인적 없는 탑 정상에 도착했을 때 알테어는 조금
쯤은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여도 좋았지 않았을까, 라는 나약한 생각을 품었다.
눈앞에 벌어진 상황은 그 정도로 무서웠다.

“몇 주 전 태풍이 불어 닥쳤을 때 무너져서 아직 공사 일정도 잡히지 않은 탑
이야.”

반쯤 부서진, 금방이라도 무너져 내릴 것 같은 위태로운 벽 위에 올라 선 소녀
가 알테어를 돌아보며 씨익 웃었다.
알테어는 끝이 보이지 않는 계단을 오를 때부터, 계단을 오르면서 아무도 마주
치지 않았을 때부터 이 상황을 예측했어야 했을 지도 모른다.
그는 황망한 얼굴로 맞은편에 자리한 또 다른 탑을 바라보았다.
여기저기 부서지고 지붕이 무너진 처참한 탑의 모습이 뚫린 벽 너머로 흰히
보였다.
지금은 태풍으로 인해 다 부서져 덧댄 나무판자와 천, 그리고 열기설기 대충
엮어 놓은 밧줄만이 그 흔적의 전부였지만 원래 이 자리엔 이 탑과 저 뚫린 벽
너머 보이는 탑 사이를 연결하는 다리가 있었다고 소녀는 설명했다.
그다지 알고 싶지 않은 내용이었다.

“아무도 오지 않으니까 방해할 사람도 없어.”

추락하는 게 두렵지도 않은 지 공포란 감정을 상실한 소녀는 임시라고는 하나
다리라고 보기엔 무척이나 위험해 보이는 나무판자 위로 성큼 뛰어올랐다.
빠격거리는 위태로운 소리가 알테어의 모든 신경을 앗아갔다.

“네가 정말로 겁쟁이가 아니라는 걸 증명하고 싶다면 이 다리를 건너!”

손잡이마냥 양 옆에 달린 밧줄을 잡은 소녀가 위험천만하게도 다리를 양옆으로 흔들며 소리쳤다.

금방이라도 끊어질 것 같은 위태로운 줄의 모습에 알테어는 이제 기절할 것만 같았다.

“그러면 나도 네가 올랐던 건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을게!”

엄밀히 말해 알테어가 시치미를 떴다 면 아무도 소녀의 말을 믿지 않을 게 분명했다.

일국의 왕자와 별 볼일 없는 백작의 딸. 사람들이 둘 중 누구의 말을 더 신뢰할지는 안 봐도 뻔하지 않는가.

설령 남의 이야기를 떠벌리기 좋아하는 사람들의 입을 통해 그러한 소문이 돈다 하더라도 알테어의 아이답지 않은 신중하고도 진중한 면모를 아는 대다수의 사람들은 곧 소녀의 말을 헛소리로 취급하고 무시할 게 분명했다.

영리한 알테어는 그 사실을 금방 깨우칠 수 있었고 소녀의 협박에 넘어가지 않고 제 안전을 챙길 수 있었다.

알테어가 지금 진정으로 평소와 같은 영민한 상태라면 말이다.

“좋아!”

많이 이들이 잊어버리곤 하지만 알테어는 아직 10살이었다.

똑똑하긴 하지만 예민한, 조심스럽긴 하지만 자존심을 굽히긴 죽기보다도 싫은 어린 아이였다.

눈앞의 이름도 모를 소녀에게 ‘졌다.’라는 감정은 절대로 느끼고 싶지 않았던 알테어는 있지도 않은 용기를 끌어 모아 아무렇지도 않은 척, 허세를 부리며 소녀를 쏘아보았다.

“내가 그 너털너털한 다리를 건너고 나면, 넌 감히 나를 모욕했던 일을 사과해야 할 거야.”

“네가 건널 수 있다면 말이지.”

가늘어진 소녀의 눈이 웃음기를 띤 채 알테어를 조롱했다.

“올보 왕자님.”

알테어의 눈에서 다시금 불꽃이 튀었다.

나쁜 일이 벌어졌을 때 사람들은 종종 ‘대체 어디서부터 일이 잘못됐던 걸까?’라고 자문하곤 한다.

사실 별 의미 없는 질문이다.

그 질문을 던졌을 때 이미 일은 벌어질 대로 벌어진 뒤고 눈앞의 사건이 일어난 원인에 대해 따져보기보단 어떻게 헤쳐 나갈 지에 대해 고민해 보는 것이 훨씬 더 건설적인 질문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알테어는 (다리의 3분의 1을 건너고 나서야 겨우)돌아온 정신으로 ‘왜 일이 이 지경까지 온 거지?’라는 질문을 멈출 수 없었다.

더 정확히는 알테어는 생각하는 것을 멈출 수 없었다. 왜냐하면 슬쩍 곁눈질한 발밑의 광경은 그에게 일순 머리를 핑 돌게 할 정도의 현기증을 안겨 주었기 때문이다.

무엇이라도 생각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설령 과거의 제 행동을 후회하는 일일지라도 자문하는 걸 포기했다간 알테어는 그 자리에서 그대로 쓰러질 것 같았다.

“왜 그래?”

앞서 걸어가고 있던 소녀가 비틀거리는 알테어를 향해 물었다.

“무서워서 포기하고 싶어졌어?”

‘절대 쓰러질 순 없어!’

적어도 저 여자애의 앞에서만큼은 나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으리라.
그렇게 재차 다짐하며 이를 악문 알테어는 소녀를 향해 눈을 부라리며 고개를 세차게 저었다.

“아니! 계속 가!”

알테어는 앞서 걸어가는 소녀를 향해 제발 이 빌어먹을 다리 좀 그만 흔들라고 말하고 싶었다.
하지만 다시 입을 여는 순간 아까 전 먹었던 버터과자들이 금방이라도 식도를 타고 기어 올라올 것만 같아 입을 다무는 것을 택했다.

‘저러다 떨어지면 어쩌려고.’

흔들릴 때마다 끼익거리는 기분 나쁜 소리를 들으며 알테어는 그녀의 뒷모습을 창백한 얼굴로 바라보았다.

소녀는 정말 겁을 상실한 게 분명했다.

대체 얼마나 많이 이 다리를 건너왔으면 겁이 나지 않게 된 건지, 자신이 소녀의 입장이라면 그런 날이 과연 오기는 하는 건지에 대해 알테어가 쓸데없는 망상으로 머릿속을 좀먹어가는 공포를 지울 때였다.

불길하게 끼익거림을 반복하던 소리가 어느 순간 툭 끊겼다.

투둑- 둑-

그 대신 무언가 뜯어지는 듯한, 찢기는 듯한 소리가 알테어의 귀를 메웠다.

제자리에서 멈춘 알테어는 다급히 소녀를 바라보았다.

소녀도 알테어보다 한 템포 늦게 그 사실을 알아차린 듯 얼굴이 희게 질려 있었다.

무너지는 다리보다도 먼저 소녀의 몸이 아래로 떨어졌다.

6. 열 살, 첫 만남, 여름(5)

귓가에 바람소리가 가득 찬, 이 급박한 상황 속에서도 알테어는 몇 가지 깨달은 게 있었다.

첫째, 이런 밧줄과 천으로 엮인 다리는 무너질 때 한꺼번에 와르르 무너지는 게 아닌 끊어진 부분부터, 그리고 무게가 가장 많이 실려 있는 부분부터 무너진다는 것.

둘째, 역시 이 다리는 위험한 게 맞았고 제정신이 똑바로 붙은 사람이라면 절대로 건너선 안됐다는 것.

마지막으로 세 번째.

“내 손을 잡아!”

그간 해왔던 체력 훈련은 역시 헛된 게 아니라는 사실이다.

알테어는 제 반사 신경이 그렇게나 좋을 줄은 몰랐다.

바닥이 꺼지고 머리털이 위로 솟구치는 섬뜩한 추락의 감각 속에서도 그는 한 손으로는 밧줄을 움켜쥐었고 다른 한 손으로는 바로 옆에서 낙하하고 있는 소녀를 향해 손을 뻗었다.

스스로 생각해도 경이로울 정도의 운동신경이었다.

소녀는 알테어만큼 반사 신경이 좋지 못했다.

하지만 생존본능만큼은 확실히 존재했는데 그 증거로 떨어지는 그 순간까지 비명도 지르지 못하고 목각인형마냥 뻣뻣하게 굳어 있던 소녀의 몸과 충격으로 얼어붙은 눈이 알테어가 손을 내민 순간 불이 붙은 것 마냥 번뜩였기 때문이다.

알테어는 소녀의 손을 붙잡았고 소녀는 그보다 한 발 더 나아가 알테어의 목을 끌어안았다.

아직 어린 알테어의 악력으로는 두 사람의 무게를 한 팔로 버틸 수 없었다.

밧줄을 붙잡고 있던 손이 빠르게 아래로 미끄러졌다. 손바닥이 불타는 것 같았다.

이대로라면 둘 다 바닥으로 추락할 터였다.

“저기, 창문!”

밧줄이 탑 아래를 향해 떨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밧줄을 붙들고 있던 알테어와 소녀의 몸도 탑에 가까워지고 있었다.

알테어는 소녀가 가리킨 탑에 난 창문을 보았다.

창은 위로 길고 끝으로 갈수록 가늘어지는 모양이었지만 어린애 두 명 정도는 충분히 들어갈 수 있을 너비를 가지고 있었다.

벽에 부딪치는 위치와 타이밍만 잘 맞춘다면 바닥으로 떨어지기 전에 저 안으로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았다.

“셋 세면 뿔 거야!”

탑으로 뛰어든다고 제 몸이 성할 거라는 보장은 없었지만 이대로 바닥으로 추락해 목이 부러지는 것보단 훨씬 나았다.

알테어는 두 번 생각 않고 창을 향해 모든 감각을 집중했다.

“꽉 붙잡고 있어! 하나, 둘……!”

셋, 하고 외친 순간 알테어의 목을 붙들고 있던 소녀의 양 팔에 힘이 들어갔다. 알테어는 밧줄을 놓고 소녀를 감싸 안은 채 창문 안으로 뛰어들었다.

“까아아악!”

다리가 무너질 때도 들리지 않았던 비명소리가 귓가에서 들려왔다.

알테어는 지금 이 순간 제게 손이 하나 더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그러면 그녀의 입을 막아 제 귀를 보호할 수 있을 테니까.

“깹!”

“으!”

창 안쪽으로 떨어진 순간 폭신한 무언가가 바닥을 구르는 알테어의 몸을 감쌌다.

구르는 걸 멈추고 나서야 알테어는 그것이 마른 건초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바닥에는 폭신한 건초더미가 발 디딜 틈 없이 가득 쌓여 있었다.

마른 건초 특유의 버석한 감촉과 퀴퀴한 냄새 속에서 몸을 일으킨 알테어는 아무도 드나들지 않는 낡은 탑 안에 왜 이리도 건초가 많은 건지 고민했다.

‘창고 같은데.....아무튼 덕분에 살았다.’

보아하니 이 탑은 태풍으로 무너지기 전엔 건초 창고로 사용되고 있던 것 같았다.

창문으로 뛰어들기 전 팔다리 하나쯤 부러질 각오를 다졌던 알테어에게 있어선 여러모로 다행스러운 일이었다.

“으음.....”

“!!”

그 때, 아래에서 들려오는 신음소리에 그제서야 소녀의 존재를 떠올린 알테어가 그녀를 돌아보았다.

시선을 돌리자 건초 더미 속에 파묻힌 소녀가 바구니를 꼭 끌어안은 채 얼굴을 일그러트리고 있었다. 기절했던 정신이 돌아오는 모양새였다.

알테어는 소녀가 추락하는 와중에도 바구니를 끌어안고 있었다는 사실에 감탄했다.

바구니 안에 무슨 가문의 비보라도 들어있는 모양이다.

“이봐, 괜찮아?”

알테어의 부름에 소녀는 잠에서 깨어나듯이 멍한 얼굴로 눈을 깜빡였다.

흐릿한 남빛 눈동자가 알테어의 얼굴을 담았다 지우길 반복했다.

“너.....어?”

순간 눈을 번뜩 뜬 소녀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어떻게.....아니, 여긴 어디야? 탑 안인 거야?”

기절한 사이 기억이 지워지기라도 한 건지 소녀가 멍청한 질문을 던졌다.
그래도 두 다리로 멀쩡히 서 있는 걸 보니 어디 크게 다친 곳은 없는 것 같았다.

“네가 창 안으로 뛰어들라고 했잖아.”

알테어가 말했다.

“그래서 뛰어들었어? 진짜로?”

믿을 수 없다는 얼굴로 알테어를 돌아본 소녀가 물었다.
그 질문이 기막히고도 어이없어 알테어는 미간을 찌푸렸다.

“그럼 어떻게 해? 그대로 둘 다 바닥으로 떨어져 죽을까?”

“아니, 나는 그런 뜻이.....널 타하려는 게 아니야.....”

손바닥으로 얼굴을 쓸어내린 소녀가 한숨과 함께 제자리에 털썩 주저앉았다.
이제야 당시의 일이 다 기억나는지 그녀는 핏기 가신 새하얀 안색으로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래, 확실히 그 상황에선 그게 가장 최선의 방법이었어. 아니, 사실 더 나은 방법도 있긴 했는데.....”

“널 버리고 나 혼자 사는 거?”

“.....그래, 그거.”

알테어는 눈을 굴렸다.

확실히 그에겐 이 소녀를 구할 이유가 없었다.

그녀는 알미운데다 그를 위험에 빠트린 원흉이고 건방지기까지 했으니까.

문제는 떨어질 당시엔 그런 생각들이 하나도 들지 않았다는 것이다.

“어차피 혼자 살았어도 오래 못 버텨줄 거야. 누군가 구하러 와 줄 때까지 계속 밧줄에 매달려 있을 수도 없었을 테니까.”

아무리 급박한 상황이라지만 그 순간 구해야겠다는 생각 외에 아무 것도 떠올릴 수 없었던 사실을 들키고 싶지 않아 알테어는 통명스런 목소리로 그렇게 말했다.

소녀의 동그란 눈이 알테어를 향해 고정되었다.

“네가 탑에 난 창을 발견해서 그나마 둘 다 살 수 있었던 거지. 어쨌든 실제로 우리 둘 다 목숨을 건졌잖아? 그러니 누가 살고 죽었을 경우는 고려하지 말자고. 안 그래도 기분 나쁘니까.”

실제로 알테어는 기분이 몹시 가라앉은 상태였다.

사실 그는 아직도 자신이 그 위험천만한 다리를 건너겠다고 결심했던 일도 도무지 믿을 수 없었다.

그 순간 정신이 나갔던 게 분명했다.

평소라면 죽어도 잃지 않았을 냉정함까지 잃어가면서 위험을 자초하다니.

일국의 왕자로서 도무지 있을 수 없는 행동이었다.

“.....그래, 맞아. 그건 사실이지.”

한 손으로 마른세수를 하던 모습 그대로 한동안 몸을 굳히고 있던 소녀가 알테어를 보며 천천히 입을 열었다.

고개를 숙이고 제 일련의 행동을 반성하고 있던 알테어는 갑작스레 눈앞에 들어오는 소녀의 얼굴에 화들짝 놀랐다.

창을 통해 들어오는 햇빛을 받아 소녀의 눈동자는 이제 바다의 심연과도 같은 푸른빛으로 빛나고 있었다.

“나 때문에 미안해.”

그녀가 말했다.

예상치 못한 그 말에 알테어는 다시금 놀랐다.

“그리고 구해줘서 고마워. 덕분에 살았어.”

그는 제 귀가 지금 무슨 소리를 듣고 있는 건지 도무지 믿을 수 없었다.

“아주 용감하더라, 너.”

알테어는 그녀의 입에서 미안하다거나 감사의 인사말이 나왔다는 사실에 놀란 건지 그도 아니면 그녀의 얼굴에 비웃음이 아닌 부드러운 미소가 떠올라 있어 놀란 건지 알 수 없었다.

한 가지 확실한건 그가 지금 굉장히 멍청한 표정을 짓고 있다는 사실이다.

알테어는 그 사실을 소녀가 지적하고 나서야 깨달았다.

“아하하, 너 표정이 왜 그래?”

".....내 표정이 왜?"

"귀신이라도 본 것 같잖아! 다리에서 떨어질 때도 아무렇지도 않아 했으면서!"

기이하게도 큰 소리로 울려 퍼지는 소녀의 웃음소리가 이제 더는 거슬리지 않았다.

스스로가 지금 어떤 얼굴을 하고 있는지 알아보기라도 하려는 듯이 손끝으로 입가를 더듬고 있던 알테어는 소녀의 환하게 휘어진 눈 속에 비친 제 모습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동자 속에 비친 그는 확실히 귀신이라도 본 것 마냥 어딘가 얼이 빠져 있었다.

알테어는 자신이 왜 이런 표정을 짓고 있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다.

그 때, 소녀가 입을 열었다.

"나는 데네브야. 데네브 엘 캄파넬라."

마침내 듣게 된 소녀의 이름에 알테어는 저도 모르게 가만히 눈을 깜빡였다.

"데네브?"

"응."

부르는데 별다른 강세를 두지 않아도 되는 소녀의 이름은 혀를 타고 부드럽게 넘어갔다.

혀가 이 천장에 닿게 되고 마는 그의 이름과는 영 딴판이었다.

"나는 알테어 라셀 콘.....아니, 아니다."

그녀의 이름을 되뇌다 알테어는 한 박자 늦게 제 자신을 소개했다.

“그냥 알테어라고 불러. 그게 좋아.”

“그냥 알테어?”

“응. 그냥 알테어.”

어째서인지 이 소녀에게까지 풀네임을 불리며 왕자소리를 듣는 건 어색할 거 같아 손을 내저은 알테어가 이름을 허락했다.

무슨 의미인지 알아들은 건지 소녀, 데네브가 작게 킁킁거리며 웃었다.

“나도 그냥 데네브라고 불러. 아버지는 데브나 뎀이라고 부르는데 난 그 애칭이 정말 싫거든.”

더없이 상냥한 미소와 스스럼없는 태도, 그리고 그를 알테어 라셀 콘 비르마스가 아닌 온전히 알테어라는 사람으로 바라보는 그 시선에 알테어는 그 순간 데네브의 안에서 무언가 변하는 것을, 아니 무언가가 태어나는 것을 보았다.

그것은 하나의 세계였다.

세계란 의지이기도 하고 가치관이기도 했으며 또 어떤 때는 인생관이나 신념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기도 했으나 지금 이 순간 그것은 알테어라는 이름의 형체를 띠었다.

알테어는 난생 처음으로 제 존재가 누군가의 안에 새겨들어가는 장면을 목격하고 있었다.

그것이 한 때 잠깐 타오르고 말 친애(親愛)의 감정인지 그도 아니면 평생을 함께할 심애(深愛)의 감정인지는 알 수 없으나 어쨌거나 데네브의 안에 지금 이 순간 ‘알테어’라는 세계가 창조되고 있었다.

아니, 어쩌면 그 반대일 수도 있었다.

마음이란 원래 타인이 헤아릴 수 없는 것이므로.

사실 지금 데네브의 안에서 ‘알테어’라는 세계가 창조되는 것이 아닌 알테어의 안에서 ‘데네브’라는 세계가 창조되고 있는 것일 지도 몰랐다.

알 수 없었다.

그러나 어느 쪽이든 알테어는 상관없다고 생각했다.

누군가가 자신을 선 안으로 받아들여준다는 감각은 믿을 수 없을 만큼 황홀했다.

자신이 누군가의 친애의 대상이 될 수 있을 거란 사실은 그 자체만으로도 짜릿했고 사실은 누구나 이런 평범한 관계를 가질 수 있다는 걸 떠올리면 가슴이 타는 듯이 아려왔다.

왜 자신은 이런 감정을 그간 느껴보지 못했던 건지, 지금이라도 알 수 있다는 걸 다행으로 여겨야 하는 건지 몰라 알테어는 잠시 혼란스러워졌다.

“알테어.”

고민은 오래 가지 않았다. 옆에 앉아 있던 데네브가 그의 이름을 불렀기 때문이다.

고개를 돌리자 그녀는 알테어에게로 고개를 숙였다. 주변에 아무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비밀스런 음모라도 이야기하듯이 그녀가 알테어의 귓가에 대고 속삭였다.

“다리 건너는 거 말이야, 그래도 조금은 재밌었지?”

“.....”

“으악, 아파! 너 숙녀에게 이게 무슨 짓이야!”

“숙녀는 무슨..... 너 아직도 정신 못 차렸구나?”

어이가 없다고 못해 기가 막힌 나머지 데네브의 넓은 이마에 손가락으로 딱밤을 날린 알테어가 버럭 소리를 질렀다.

“방금 다 죽을 뻔 한 거 기억 안나?”

“안 죽었잖아. 그게 중요한 거지. 그리고 네가 언제 어디 가서 이런 경험을 해보겠어? 좀 더 나이 들어서? 성인이 되서? 왕이 되고 나서? 아니면 다 죽어가기 직전에?”

“.....”

“생각해봐, 알테어! 다리에서 떨어졌는데 밧줄을 타고 올라와 살아남았다고? 이런 일 우리 말고 그 누구도 경험해 본 적 없을 거야. 다른 애들은 하려고 해도 용기가 없어 못할 걸?”

알테어는 차마 그 말을 부정할 수 없었다.

비르마스 왕국의 후계자로서 방금 전 있었던 일은 원래라면 결코 일어나선 안 될, 그의 오점과도 같은 일이었지만 10살의 알테어에게 있어 그건 말 그대로 평생의 자랑으로 삼을만한 대단한 경험이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생각하자 알테어는 데네브의 말대로 그 경험이 꽤나 재밌는 일이었다고 생각됐다.

‘.....어라? 이거 위험한데.’

저 말도 안 되는 감언이설에 홀라당 속아 넘어가다니.

알테어는 그제서야 데네브에게 소악마 같은 기질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 때문인지 짓궂게 미소 짓는 그녀의 얼굴이 어쩐지 갓 태어난 아기 악마를 떠올리게 했다.

‘뭐.....아무래도 상관없나.’

그 소악마에게 동조하며 알테어는 그녀를 향해 마주 웃었다.

어른스럽다느니 똑똑하다느니 같은 별의 별 칭찬을 다 들어도 그 역시 아직 제 나이의 틀을 벗어나지 못한 철없는 어린 아이일 뿐이었다.

알테어는 속없이 자신의 악마가 속삭이는 말들을 기분 좋게 받아들였다.

7. 열 살, 첫 만남, 여름(6)

가문의 비보라도 들어있는 줄 알았던 데네브의 바구니 안에는 정제된 약초들이 가득 들어있었다.

“오.”

잘 손질된 약초가 용도에 따라 정렬된 모습을 본 알테어는 순수하게 감탄했다. 크기도 정제된 상태도 제각각인 모습이 상당히 전문적인 기색을 풍기고 있었기 때문이다.

“왜 놀라?”

병에 담긴 약초들 중 특히 끈적거리고 고약한 냄새를 풍기는 약들을 접시에 덜어 담고 있던 데네브의 눈썹이 알테어의 감탄사에 맞춰 올라갔다.

“설마 약초 처음 봐?”

“그럴 리가.”

알테어가 어깨를 으쓱이며 답했다.

그는 데네브가 조심스런 손길로 약재들을 섞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야무진 손끝이 더하지도 덜하지도 않은 움직임으로 정량의 약초를 배합하고 있었다.

“처음 봤을 때 풀냄새가 나기에 소꿉놀이 세트가 들어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 왜 그런 거 있잖아, 풀로 만든 반찬이라든가 진흙으로 만든 밥이라든가.....”

“.....”

“그런 눈으로 보지 마. 누가 널 처음 봤을 때 이렇게 다양한 약재를 들고 다닐 거라 생각하겠어? 보통은 다들 나처럼 생각 할 거라고.”

점점 사나워지는 데네브의 눈길에 알테어가 변명하듯이 덧붙였다.

“소꿉놀이 세트라니, 캄파넬라 가문에 대한 모욕이야.”

소꿉놀이 세트라는 표현은 너무 했나, 라는 생각에 찢찢매는 알테어를 보며 코웃음을 친 데네브가 도도한 얼굴로 고개를 꺾 돌렸다.

“진흙뽕친 도시락 놀이는 이미 6살 때 졸업했다고!”

“그런 놀이를 해보긴 했다는 거네.”

수건에 남은 물기를 짜내는 데네브를 보며 어렸을 때부터 놀다가 손에 흙을 묻혀본 적은 단 한 번도 없는 알테어가 중얼거렸다.

“그 때의 재미를 잊지 못해 나이 들어서 다시 진흙에 손을 댄다 해도 11살이면 아무도 뭐라 하지 않을 거 같은데.....아야!”

“말조심해.”

알테어의 상처를 소독하는 척 하며 심술궂게 환부를 건드린 데네브가 그를 흘겨보며 말했다.

“그건 내 지성에 대한 모독이야.”

고작 풀과 진흙을 주물거리는 소꿉놀이를 다시하고 싶어 한다는 말이 그녀의 지성에 대한 모독이라면 데네브의 지능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뻔히 알 거 같다고 알테어는 생각했다.

"....."

생각만 했다.

입 밖으로 내뱉는 순간 데네브가 다시 손에 든 수건으로 알테어의 상처를 후벼 팔 테니까.

두 사람은 현재 탑에서 나와 저택 안쪽에 위치한 인적 드문 다용도실에 숨어 있었다.

왜 숨어 있었냐 하면은 두 사람의 몸골이 차마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했기 때문이다.

팔 다리 여기저기 난 자잘한 생체기와 얼굴 곳곳에 말라붙은 피딱지, 그리고 먼지와 흙이 가득 묻은 지저분한 옷이 환상의 콜라보를 이뤄 그들을 높은 신분의 자제가 아닌 어디 뒷골목을 구르다 온 동네 거지처럼 보이게 만들었다.

우연히 근처에 달린 거울을 통해 자신들의 꼴을 객관적으로 보게 된 두 사람은 자기들끼리 조용히 이 사태를 수습하는데 동의했다.

"젠장, 에반이 알면 난리가 날 거야."

몸을 움직일 때마다 훑날리는 먼지에 데네브가 질색하며 혀를 찼다.

어떻게든 약초 안에 이물질이 들어가는 걸 방지하기 위해 그녀는 얇은 기름종이로 그릇 위를 덮은 채 작업을 계속했다.

"에반?"

"이 별장의 집사야. 키 크고 나이 좀 있고 어린아이라면 좋아서 사족을 못 쓰고.....여기 도착했을 때 만나지 않았어?"

"아."

알테어는 어렵지 않게 제게 온화한 미소를 보내던 중년의 남자를 떠올릴 수 있었다.

그가 빈 과자 접시와 찻잔을 보며 흐뭇한 표정을 지었던 일도 떠올랐다.

“.....그 남자가 에반이군. 이름을 몰랐어.”

“평소엔 온화한데 문제가 생기면 아버지보다도 무섭게 굴어. 다른 건 몰라도 장난치다가 tap에서 떨어진 일은 절대 그가 알게 해 선 안 돼.”

혹시라도 들리게 됐을 때의 일을 떠올리는지 데네브가 어깨를 부르르 떨었다. 알테어는 깜짝 놀라 그런 그녀를 빤히 바라보았다.

“뭐야?”

시선을 느낀 데네브가 알테어를 돌아보며 물었다.

“왜 그래? 표정이 이상한데.”

“.....그냥, 조금 놀라서 그래.”

얼떨떨한 감정을 떨쳐내지 못하며 알테어가 대답했다.

“네가 다리에서 장난쳤던 일을 잘못이라고 느끼긴 하는구나 싶어서 말이야.”

“뭐?”

“난 네가 재밌었다고 하기에 그게 나쁜 일이라곤 조금도 생각 하지 않고 있다고 여겼.....아야!”

“내가 바보냐! 당연히 잘못된 일이라곤 생각하고 있지!”

방금 전 환부를 닦았던 물먹은 수건에 의해 불의의 일격을 입은 알테어가 아픈 뒤통수를 감싸며 억울한 눈으로 그녀를 돌아보았다.

“너한테 그게 당연한지 내가 어떻게 알아?”

“그게 당연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

해가 동쪽에서 뜨고 서쪽에서 지는, 불변의 진리를 이야기하는 태도로 말을 이어가는 데네브의 모습에 당연하지 않아도 그녀의 옆에 있고 싶다고 생각한 알테어는 바보가 된 기분이었다.

“확실히 지금 생각하면 재밌었고 대단한 이야깃거리긴 하지만 그거야 우리 둘 다 팔 다리 멀쩡하니 할 수 있는 생각이잖아. 두 번은 하지 말아야겠다는 반성은 당연히 하고 있다고.....”

진짜로 반성하고 있는 건지 데네브의 얼굴은 더없이 진지했다.

그 모습을 바라보며 복잡 미묘한 감정에 휩싸여 있던 알테어는 결국 작게 헛웃음을 흘렸다.

“네가 진짜로 반성하고 있는 거라면 에반에게 네 잘못을 고하고 벌을 받아야 하는 거 아냐?”

“.....혼나기는 싫은 걸.”

“책임은 지기 싫은 거네.”

“네가 에반에게 혼나본 적이 없어서 그렇게 쉽게 말할 수 있는 거야. 에반이 화내면 진짜 무섭단 말이야.”

“내가 여기 사는 것도 아니고 캄파넬라 백작의 자식도 아닌데 언제 그 집사에게 혼나 볼 일이 있겠냐?”

“.....”

구구절절 맞는 말에 반박할 말이 떠오르지 않는지 데네브의 입이 다물어졌다. 혼자만 혼날 거라는 사실에 화가 났는지 그녀의 얼굴엔 불만이 가득했다. 잠시 후, 환부에 바를 약이 완성되자 그녀가 알테어를 향해 손짓했다. 그들이 입은 상처는 대부분 상처라고 말하기 민망할 정도로 자잘했지만 알테어의 오른쪽 손바닥에 입은 상처는 달랐다. 빠른 속도로 낙하하며 빗줄에 쏠린 탓에 피부가 벗겨지고 주변이 보기 힘들 정도로 벌겋게 달아올라 있었다.

“너 탑에서 있었던 일, 꼭 비밀로 해 줘야해.”

소독할 때처럼 대단히 조심스런 손길로 약을 바르기 시작한 데네브가 알테어에게 재차 당부했다. 상처부위에 약초가 닿자마자 거짓말처럼 열감과 고통이 빠르게 가라앉았다. 그 즉각적인 효능에 알테어는 데네브가 이런 일을 한두 번 해 본 게 아니란 걸 깨달았다. 더불어 그녀가 약초를 다루는 일에 재능이 있다는 사실 역시.

“안 그럼 다음부터 날 보는 일이 무척이나 어려워 질 거야.”

약초를 환부에 붙이는 데네브의 손길이 너무나도 조심스러웠기 때문인지 알테어는 고통보단 간지러움을 느꼈다. 데네브는 이제 바구니 안에서 봉대를 꺼내고 있었다. 알테어는 그녀가 장난치는 건지 그도 아니면 진실을 말하고 있는 건지 감을 잡기 어려웠다.

“그야 물론 내가 그 일을 나서서 이야기 할 일은 없겠지만.....그래도 언젠가는

들키지 않을까?”

“안 들켜.”

뭘 믿고 그렇게 단언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데네브의 얼굴은 확신에 가득 차 있었다.

“우리들만 입 다물고 있으면 돼. 완벽한 비밀이지.”

“난 그런 거 안 믿어.”

꼼꼼하게 붕대를 감는 데네브의 손놀림을 가만히 바라보고만 있던 알테어가 말했다.

“두 사람 이상 아는 순간 평생 가는 비밀 따윈 없어.”

“그 동안 너한테 평생 가는 비밀을 지켜줄 만한 친구가 없었던 게 아니라?”

“.....”

예고도 없이 훅 들어온 진실에 알테어는 순간 무슨 말을, 아니 무슨 생각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어졌다.

그 질문은 예상했던 것보다(예상하지도 않았었지만) 날카롭고 아프게 그의 속을 후벼 팠다.

데네브의 눈이 장난스럽게 휘어진 걸 보고 나서야 알테어는 그녀가 저에게 장난을 친 거란 걸 깨달을 수 있었다.

“그러는 넌 있었고?”

썩 기분 좋은 장난은 아니었다.

“아니, 없었지.”

추궁하듯 가늘어진 알테어의 눈에도 굴하지 않고 데네브가 당당히 대답했다.

“그러니 지금부터 알아보자는 거지. 이런저런 사정들로 여태까진 알아볼 기회가 없었지만 지금은 아니잖아?”

손가락으로 서로를 가리키는 데네브의 장난스런 제스처에 알테어는 결국 웃어버렸다.

자잘한 상처까지 치료를 다 끝내고 두 사람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이제는 이 흙먼지 가득 묻은 옷을 갈아입을 차례였다.

다용도실에서 나온 그들은 사용인들의 눈을 피해 조용히 복도를 가로질렀다. 목적지는 데네브의 방이었다.

데네브는 놀라울 정도로 소리 없이 민첩하게 움직였다.

의식적으로 숨소리조차 낮춘 그녀의 모습에 알테어는 깜짝 놀랐다.

“그렇게 움직이는 건 대체 어디서 배운 거야?”

마침내 데네브의 방에 도착해 더는 소리를 죽일 필요가 없어지자마자 알테어가 물었다.

카펫이 깔린 복도건 대리석으로 만들어진 계단이건 데네브에게선 발소리 한번 나지 않았다.

바로 옆에서 그 모습을 본 이상 알테어는 도무지 묻지 않고는 건딜 수 없었다.

“혼자 익혔어.”

커다란 옷장 문 너머에서 데네브가 답했다.

그녀는 방에 발을 들이자마자 알테어가 입을만한 옷을 고르기 위해 옷장에 달

려든 상태였다.

“숲에서 약초를 캐다보면 야생동물들을 피해야 하는 경우가 자주 있는데 개네들은 정말로 예민해서 조심스레 움직여야 하거든.”

“.....너 혼자 숲에서 약초를 캔다고?”

알테어가 믿을 수 없어 다시 물었다.

“그래.”

“캄파넬라 백작이, 아니 그 무서운 집사가 네가 혼자 숲을 다니는 걸 허락한단 말이야?”

“.....”

대답이 없는 걸 보니 다른 사람들의 눈을 피해 몰래 돌아다니고 있는 모양이다. 숨기는 비밀 한 번 참 많다고 알테어는 생각했다.

“다음에 또 올 거지?”

남녀 공용으로 입을 수 있는 자신의 흰 셔츠와 검은색 바지를 건네 준 데네브가 알테어에게 물었다.

그녀는 어느새 푸른빛 감도는 레이스달린 외출복으로 갈아입은 후였다.

“다음에 오면 같이 숲에 들어가 보자. 나만 아는 비밀장소 보여줄게.”

“비밀 장소라면 처음 만났을 때 네가 같이 가자고 했던 거기?”

“응, 맞아.”

흥분했는지 불을 발강게 물들인 그녀가 잔뜩 기대서린 목소리로 알테어를 향해 눈을 빛냈다.

“항상 그런 장소를 나만 알고 있는 건 아깝다고 생각했거든. 그 정도로 좋은 곳이야. 너도 분명 좋아할 걸.”

“그 에반이라는 집사 말은 다르던데. 담벼락 안쪽은 어디든 돌아다녀도 좋지만 숲은 위험하니 들어가지 말라고 충고하던걸?”

“그러니 에반에겐 비밀로 해야지. 응? 가자. 분명 재밌을 거야. 어때?”

“흠.”

한참을 고민하듯 심각한 표정을 지어보이던 알테어가 마침내 파티션 위에 매달린 데네브를 향해 입을 열었다.

“일단 저리가, 데네브.”

이제 겨우 소매의 단추를 푼 그가 불만스레 눈살을 찌푸렸다.

“너 때문에 옷을 갈아입을 수가 없잖아.”

“대답 들으면 갈게. 그래서 다음에도 올 거야 안 올 거야?”

“저리 가!”

사나운 알테어의 외침에 데네브가 투덜거리며 파티션 아래로 내려갔다. 데네브의 시선이 사라지고 나서야 알테어는 이제야 옷을 갈아입을 수 있었다. 손을 다쳤기 때문인지 셔츠 하나 벗는데도 시간이 꽤 걸렸다.

데네브가 침대 위에 올라앉은 건지 파티션 너머로 이불이 크게 출렁이는 소리가 들려왔다.

기다리는 게 지루한 건지 그녀가 알테어를 향해 소리쳤다.

“어차피 누가 본다고 닳는 것도 아닌데 좀 보면 어때서 그래? 너 나 좋아해?”

“시끄러워!”

8. 열 살, 첫 만남, 여름(7)

데네브는 알테어가 다음에도 저를 만나러 와준다면 함께 할 수 있는 놀이의 목록을 읊어주었다.

종류는 다양했다.

비밀기지를 보여주는 것 외에도 책읽기와 저택탐험, 체스 등. 아무 말이나 막 내뱉는 거 같은데도 알테어가 생각하기에 괜찮은 놀이거리가 열 손가락은 거뜰히 넘어갔다.

파티션 너머로 노랫가락 같은 그녀의 목소리를 가만히 듣고 있던 알테어가 물었다.

“그렇게 나랑 놀고 싶으면 내가 여기 오는 걸 기다릴 게 아니라 네가 내 쪽으로 오는 게 어때?”

셔츠에 한쪽 팔을 꿰며 그는 성에서 둘이 함께 놀 수 있을 만한 일들을 꼽아 보았다.

상상만 했을 뿐이건만 알테어는 신이 나는 걸 느꼈다.

그녀가 성에 온다면 알테어는 자신이 수집해 둔 귀한 서책이라든가 희귀한 식물들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

다른 이들과는 재미없기만 하던 카드 게임도 제 기분에 전전긍긍하지 않는 데네브가 상대라면 꽤 흥미로울 것 같았다.

“그 편이 더 빨리 만날 수 있을 거 같은데.”

“나보고 왕성으로 오라고? 농담이지?”

하지만 기가 막힌다는 데네브의 반응에 알테어는 뭐가 문제인지 몰라 고개를 모로 기울였다.

파티션 밖으로 고개를 살짝 빼자 형클어진 머리를 가라앉히기 위해 빗으로 머리를 잠재우고 있는 데네브의 뒷모습이 보였다.

“왜 안 되는데?”

“정말로 모르는 거야? 절차가 복잡하잖아. 내가 알기로 네 친구 후보가 되기 위해 줄 선 쟁쟁한 영식들이 한 둘이 아닌데 내가 무슨 재주로 그 치열한 경쟁률을 뚫고 네 옆으로 갈 수 있겠어?”

말하면서도 화가 나는지 침대 위에 앉은 데네브의 몸이 들썩였다.

“대면 신청을 한다 해도 1년, 아니 10년 후쯤에야 겨우 답이 돌아오겠지. ‘왕자님은 워낙 귀하신 몸이라 당신 같은 평범한 귀족 여자애와는 만날 수 없습니다. 자기 주제를 좀 아세요.’ 같은.”

알테어는 터져 나오려는 웃음을 꼭 참았다.

빈정거리는 데네브의 희극적인 어조에는 알테어를 유쾌하게 만드는 무언가가 있었다.

“물론 그럴 가능성도 빼놓을 수 없긴 하지만.”

혀를 깨무는 걸로 웃음을 겨우 참은 알테어가 다시 웃을 갈아입으며 말했다.

“내 말은 내가 널 성으로 초대하면 어떻겠느냐는 말이었어. 그리고 내가 그 영식들과 어울려봐서 하는 말인데 개들이랑 어울리느니 난 차라리 아까 그 탑에서 뛰어내리는 걸 택할 거야.”

키 차이 때문인지 데네브의 셔츠는 알테어에겐 조금 컸다.

나이차이는 고작 한 살밖에 나지 않는데 옷 길이 차이는 이리도 크다니.

자신의 느린 성장을 속으로 한탄하며 알테어가 말을 이었다.

“아무튼 어때? 그 방법이면 네가 그 재수 없는 쟁쟁한 영식들이랑 경쟁하지 않

아도 되잖아.”

“오오.”

파티션 너머에서 데네브가 감탄했다.

“그런 방법이 있었네.”

옷을 다 갈아입은 알테어가 밖으로 나오자 침대위에 앉은 데네브가 반짝이는 눈으로 그를 돌아보았다.

“근데 정말 그래도 돼? 괜찮은 거야?”

“안 될 건 또 뭐야? 내가 내 성에 내 친구를 초대하겠다는데 안 된다고 말릴 사람이 어디 있겠어?”

조금 긴 바지의 밑단과 셔츠의 소매를 접으며 알테어가 자신만만하게 말했다. 확신하는 그의 태도에 데네브는 크게 기뻐하며 함박웃음을 지었다.

“그거 잘됐다! 난 네가 한 번도 성에 가본 적 없고 공식석상에서 만난 적도 없는 여자애를 초대하면 문제가 생길 거라고 생각했어. 그런데 초대는 네 맘대로 할 수 있구나. 그거 다행이네!”

“.....아.”

지적 같지 않은 지적을 받고 보니 문제가 있었다.

알테어는 이곳으로 오는 내내 ‘비밀 절대 엄수!’를 외치던 아버지, 레굴루스의 얼굴을 떠올렸다.

약속의 중요성을 집요하리만치 강조하던 그의 모습은 사실 떠올리지 않기가 더 어려웠다.

“미안, 방금 이야기는 취소할게. 생각해보니 아무래도 안 될 거 같다.”

“뭐? 왜? 아깐 된다면서! 이 거짓말쟁이!”

안 된다는 말을 하자마자 눈살을 찌푸린 데네브가 알테어를 향해 손에 들고 있던 빛을 던졌다.

“내 기대 물어내!”

알테어는 허리를 숙이는 걸로 느릿하게 날아오는 그 공격을 피했다.
대충 던져진 빛이 포물선을 그리며 벽에 닿기도 전에 떨어져 바닥을 굴렀다.

“네가 한 번도 성에 오지 않았을 줄은 몰랐어. 공식 석상에서도 모습을 보인 적이 없으면 확실히 초대하는데 문제가 되지. 내가 널 어떻게 알았냐는 질문에 답할 수 없으니까.”

“오늘 만나서 알았다는 걸로는 안 돼?”

“안 돼. 아버지가 오늘 있었던 일은 전부 비밀로 하라고 하셨거든.”

“어째서?”

“그럼 캄파넬라 백작의 강의를 성에서 들어야 하니까.”

데네브의 얼굴엔 의아함이 가득했다. 먼지를 털어낸 신발을 다시 신으며 알테어가 자신도 이해할 수 없다는 기색을 가득 담아 대답했다.

“아버지는 다른 사람들과 같이 이곳에서 백작의 강의를 함께 듣고 싶으시데. 그런데 강의를 들으러 백작의 별장까지 직접 찾아오는 게 어떤 이들의 반발을

살 수 있나봐. 그걸 피하고 싶어서 여기 오는 걸 비밀로 하고 싶다셔.”

이곳으로 오게 된 경위를 설명하며 알테어는 레굴루스에게 수없이 강요받았던 약속들에 대해 데네브에게 말해주었다.

알테어의 설명을 다 듣고 난 후에도 그녀의 얼굴에 드리워진 의문은 가시지 않았다.

알테어는 그런 그녀를 이해했다. 의아한 건 그 역시 마찬가지였으니까.

“혹시 토론하시는 게 즐거우신가?”

침대 위로 몸을 눕힌 데네브가 다리를 흔들며 고민했다.

“아버지는 가끔 토론하는 방식으로 강의를 진행하시거든. 성에서 강의를 듣게 되면 그런 토론은 못할 거 아냐.”

“나도 몰라. 하지만 네 말을 들으니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드네.”

알테어는 침대에 드러누운 데네브의 옆에 앉았다.

화가 좀 가라앉았는지 그녀는 이제 뚱한 얼굴로 천장을 노려보고 있었다.

“그럼 역시 네가 날 찾아올 때까지 다시 만나긴 어려운 건가? 레굴루스 폐하가 아버지의 강의를 들으러 올 때만 만날 수 있는 거야?”

“그건 내가 다른 방법을 생각해 볼게. 아무리 그래도 한 달에 두 번은 너무 적잖아.”

“.....맞아. 기껏 놀 수 있는 범위가 넓어졌는데 이것저것 많이 해보지 않으면 아깝지.”

방법을 찾아보겠다는 알테어의 말에 기분이 풀렸는지 바로 생글생글 웃는 열

굴로 돌아온 데네브가 정체모를 콧노래를 흥얼거렸다.

알테어는 머릿속에 그녀의 빠른 기분전환에 대해 기억해두었다.

“그리고 보니 너는 혼자 있을 때 뭐하고 놀아?”

데네브가 몸을 일으키며 물었다.

“나는 약초를 키우거나 의학 관련 도서를 읽거나 길거리의 개나 고양이들을 찾아다니거나 샌드위치를 만들거나 음, 가끔은 아버지랑 체스를 두는데. 너는?”

중간에 뭔가 이상한 게 끼어있는 거 같았지만 알테어는 넓은 마음으로 지적하지 않고 넘어가기로 했다.

“나는.....어.....”

하지만 예상치 못하게 말문이 막혔다. 생각해보니 그는 노는 행위 자체를 해본 적이 손에 꼽도록 드물었다.

혼자 놀자니 그를 보며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장면을 보고 있다는 기운을 풍기는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따가웠고 다른 귀족 가문의 영식들과 함께 놀자니 하루 종일 제 비위를 맞추느라 찢절매는 모습을 견뎌야 했다.(그리고 다시 말하지만 그들이랑 노느니 알테어는 차라리 접시 물에 코를 박는 걸 선택할 것이다.)

아무튼 이 외에도 다른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 알테어는 혼자서, 그것도 주위의 사람들에게서 동정어린 시선을 받지 않을 수 있는 종류의 여가 거리를 선호했다.

책을 읽는다거나 산책하며 사색한다거나.....

‘.....생각해 보니 이 두 개가 전부네.’

알테어는 생각했다.

둘 다 놀 거리라 말하기엔, 그것도 제 나이 또래의 아이가 가질 만한 취미치고는 어딘가 2%쯤 부족해 보였다.

데네브에게 이 사실을 말하자 예상했던 그대로의 답이 돌아왔다.

“너.....가질 거 다 가졌으면서 의외로 재미없는 인생을 살고 있구나.”

알테어는 전자의 의견엔 동의할 수 없었지만 후자 쪽은 그럭저럭 납득할 수 있었다.

스스로 생각해도 책을 읽거나 사색하는 건 흥미롭지 않은 건 물론이고 어찌 보면 따분하다고 여겨질 법한 취미였다.

“내 취미도 일반적이진 않지만 넌 나보다 더하네.”

알테어는 데네브의 취미가 단순히 ‘일반적이지 않다.’로 정의될 수 있는 건지 잠시 고민했다.

한편 대단히 심각한 사안과 마주했다는 듯이 데네브는 얼굴을 딱딱하게 굳혔다.

누가 보면 내일 세계가 멸망할 거라는 소식이라도 들은 줄 알 것이다.

“내가 아는 사람 중에 이렇게 재미없는 여가시간을 보내는 사람은 네가 처음이야.”

“.....네가 아는 사람이 별로 없는 게 아니라?”

“안되겠다.”

데네브는 알테어의 물음을 무시했다.

“너, 다음에 날 찾아올 땐 별장이 아니라 우리 집으로 와.”

“너희 집? 수도에 있는 타운 하우스를 말하는 거야?”

“그래.”

데네브가 고개를 끄덕였다.

“특별히 너한테 내 비장의 장소를 가르쳐 줄게.”

“비장의 장소? 설마 또 다른 비밀 장소인 거야?”

긍정하는 데네브의 모습에 알테어는 원래 이렇게 비밀 장소가 많은 게 일반적인 일인 건지 고민했다.

그는 이에 관해 그녀에게 한 마디 해주고 싶기도 했지만 비교할 만한 대상의 또래를 알지 못하니 뭐라 말을 해야 할지 떠오르지 않았다.

“.....넌 비밀장소가 많구나.”

기껏 고민 끝에 나온 말이 이 정도이니 그가 얼마나 다른 아이들과 어울려 본 적이 없는지 더 설명할 것도 없으리라.

“원래 다들 자기만의 비밀장소가 하나씩은 있는 법이야. 내 입장에서 보면 몰래 혼자 있을 곳 하나 없는 네가 더 이상하다고.”

“가는 곳마다 시종들이 따라붙으면 너도 비밀장소 같은 걸 만들긴 어려울 걸?”

투덜거리는 알테어의 모습에 데네브는 숨죽여 키득거리며 ‘왕자님도 고충이 많은데.’ 라고 속삭였다. 알테어의 인상이 대변에 찌푸려졌음은 두 말할 것도 없었다.

손에 잡히는 대로 베개를 던지고 서로를 향해 이불을 둘러싸 내리 누르는 등 기껏 깔끔하게 차려입은 옷과 단정해진 머리를 다시 엉망으로 흐트러트린 두 사람은 문득 벽난로 위에 놓인 작은 시계를 보곤 깜짝 놀랐다.

어느새 시간이 훌쩍 흘러 있던 탓이었다.

이불에 목이 졸리는 중이었던 데네브가 서둘러 침대 위에서 일어났다.

슬슬 사용인들이 그들을 찾으러 돌아다니고 있을 터였다.

“명심해. 탑에서 있었던 일은 비밀인 거야!”

방을 나가기 전 신신당부하는 데네브의 말에 알테어가 눈을 굴렸다.

오늘은 참 기이하게도 누군가에게 비밀을 지킬 것을 당부 받는 일이 많았다.

“다른 사람들이, 아니 에반이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해야 할진 기억하고 있지?”

“그래.”

알테어가 말꼬리를 끌며 느릿하게 대답했다.

“정원에서 꽃을 꺾고 흙을 뒤집어쓰며 놀다 다쳤다는 그 어설피고 멍청해 보이는 변명 말이지?”

“그래, 그거.”

“아무도 안 믿을 거 같은데.”

“그럼 이것보다 더 좋은 변명 있어?”

알테어는 어깨를 으쓱였다.

그는 있지도 않은 감정을 말하는 데는 익숙해도 계획에 없는 이야기를 짜내는 데 익숙하지 않았다.

“없으면 그냥 조용히 내 말을 따라. 알았어?”

“예, 그렇게요. 물론 그래야죠. 암요.”

알테어가 희극적인 데네브의 말투를 흉내 냈다.

놀리는 듯한 그 어조에 데네브는 눈을 가늘게 뜨며 그를 노려봤지만 이런 일로 실랑이를 벌이고 싶진 않았는지 알테어를 두 번 타박하진 않았다.

“그보다 쪽 묻고 싶었던 게 있는데.”

“뭔데?”

방문을 열고 나가는 데네브의 뒤를 따라가며 알테어가 물었다.

강의는 여전히 진행 중이고 사용인들은 자기 할 일을 하느라 바쁜지 복도는 텅 비어 있었다.

“너 날 처음 봤을 때 나보고 장미소년이라 했잖아.”

크지도 않은 알테어의 목소리가 넓은 복도에 가득 울렸다.

“내가 진짜 장미랑 어울려? 첫 인상이 그래 보였어?”

“아니, 전혀.”

데네브가 대답했다.

“그냥 네가 재수 없게 굴기에 한 말이었어. 짜증나서 어떻게 해서든 신경을 건드리고 싶었거든.”

“.....”

“예상이상으로 성공적이었지만.”

이제는 알테어가 그녀를 흘겨볼 차례였다.

하지만 그가 데네브에게 통명스럽게 굴었던 것도 사실이었기 때문에 알테어 역시 데네브처럼 입을 다물었다.

9. 열 살, 첫 만남, 여름(8)

알테어가 평가하길 '영성하기 짝이 없는' 데네브의 변명은 시작부터 고충을 맞이했다.

1층으로 내려오자마자 마주친 에반이 두 사람을 향해 다짜고짜 선공을 날렸기 때문이다.

"서쪽 탑의 다리가 무너져 있던데 두 분께서는 이와 관련해 뭐 아시는 게 있으니까?"

가늘어진 에반의 눈이 빠르게 바뀐 두 사람의 옷과 몸 여기저기 난 상처를 살폈다.

그건 질문이 아니었다. 확인사살이었다.

눈치 빠른 알테어는 눈 한 번 깜빡이는 사이 그 사실을 깨달았다.

"서쪽 탑?"

그러나 당황할 법도 하건만 뻔뻔하고 녀석 좋게도 그는 도리어 에반을 향해 반문하며 시치미를 뚝 떴다.

저는 마치 아무것도 모른다는 양 순진무구한 표정을 지으며.

"어.....음, 그러니까.....글쎄? 그게 왜 무너졌지?"

하지만 데네브는 알테어만큼 유연하게 대처하지 못했다.

"뱃줄이 낡았나? 판자가 약해졌을 수도 있겠네."

".....야."

"오, 아니면 판자에 덧댄 천이 사고로 찢어졌을 수도 있고. 버리려고 모아뒀던 다 헤진 이불을 가져다 엮어놨으니 그 낡은 게 언제 어느 타이밍에 찢어질 지 누가 알겠어?"

".....데네브."

아니, 어디 대처하지 못했을 뿐인가.

그녀는 지능이 일곱 살 정도로 퇴화해 버렸는지 희게 질린 안색으로 헛소리를 늘어놓기 시작했다.

먹잇감을 노리는 매 마냥 날카로운 눈빛으로 무장한 집사, 에반 앞에 굴복해 버리고 만 것이다.

알테어는 열심히 작은 목소리로 소녀를 부르고 팔꿈치로 옆구리를 찌르기도 해봤지만 소용없었다.

데네브가 겨우 정신을 차렸을 땐 이미 입 밖으로 온갖 (치명적인)헛소리들이 전부 흘러나온 뒤였다.

"굉장하십니다, 데네브님."

어떻게 이렇게 멍청한 소리를 늘어놓을 수 있냐는 어조로 에반이 감탄했다.(적어도 알테어의 귀엔 그렇게 들렸다.)

"임시로 만들어 놓은 다리의 구조를 아주 꿰뚫고 계시는 군요. 혹시 서쪽 탑에 가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 아니! 안 갔는데!"

알테어는 눈을 크게 굴렸다.

데네브의 사고능력은 일곱 살이 아니라 다섯 살쯤으로 퇴화한 게 분명했다,

"하긴 그럴 리가 없으시죠. 아이나님께서 데네브님의 서쪽 탑 출입을 금지 하

셨으니."

"....."

알테어는 데네브의 눈이 시선 둘 곳을 찾지 못하고 지진 난 것 마냥 흔들리는 걸 지켜보았다.

"마음씨 여린 데네브님이 마님의 눈물어린 당부를 무시하고 거기 가셨을 리가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암요. 그럴 리가 없죠."

"....."

'마음씨 여린 데네브님' 이란 수식어에서 알테어는 또다시 눈을 굴렸다. 돌아가는 상황이 아주 가관이었다.

"하지만 이상하군요. 탑에 가신 적도 없으신데 데네브님은 대체 다리의 구조에 대해 어떻게 아신 겁니까?"

"그, 그야 임시 다리의 구조는 다 거기서 거기일 테니까....."

"아, 그렇군요. 제가 지식이 짧아 그걸 몰랐습니다. 아가씨께선 정말 현명하시군요. 그럼 기왕 제게 깨달음을 주시는 김에 한 가지 더 가르쳐주시겠습니까?"

에반이 비단결마냥 더없이 부드러운 목소리로 속삭였다.

서로 절대 알 리 없겠지만 그 순간 에반의 질문을 받은 데네브와 그녀의 옆에 있던 알테어는 동시에 똑같은 생각을 했다. '싫어.' 라고.

그러나 그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지 알리 만무한 에반은 입을 열어 말을 이었다.(사실 알았어도 그가 질문을 멈추는 일은 없었을 것이다.)

"데네브님께선 다리에 사용한 천의 출처도 알고 계시더군요.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무지한 저로선 어떻게 아가씨께서 그 사실을 아신 건지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데네브가 상대를 비아냥거릴 때 쓰는 희극적이고 과장된 말투는 에반에게서 배운 게 틀림없었다.

그녀보다 뛰어난 허 놀림과 그에 걸 맞는 적절한 표정을 짓는 에반의 모습에 알테어는 저도 모르게 감탄사를 흘렸다.

"부디 제게 가르침을 주시겠습니까?"

"아.....저기.....그건....."

'이건 글렀네.'

알테어는 깊게 한숨을 내쉬었다.

사실 그는 에반의 얼굴에 '잡았다, 요 녀석!' 정도로 해석될 만한 표정이 떠오른 걸 본 순간부터 변명하길 포기한 상태였다.

'뭐가 나만 입 다물고 있으면 완벽한 비밀이라는 거야?'

멀쩡한 왼손으로 마른세수를 하며 알테어는 생각했다.

'준비해 둔 거짓말은 한 마디도 못한 주제에.'

명백하게도 작전은 실패였다.

알테어는 데네브가 에반을 상대로 이 정도로 나약한 모습을 보일 줄은 상상도 못했다.

'고작 집사한테 왜 이렇게 찢찢매는 건지.....'

그의 성을 관리하는 시종장, 렉터를 떠올리며 알테어는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그리고 이렇게 중요한 사실을 대체 왜 사전에 나한테 말하지 않았던 거야?'

이럴 줄 알았다면 에반과 이야기하는 모든 과정은 알테어가 도맡았을 것이다. 알테어는 이와 관련해 두 가지 가설을 세웠다.

아직 그녀가 그에게 에반과의 관계를 말할 정도로 친밀감을 느끼지 못했든가 에반의 앞에서면 멍청해진다는 사실을 밝힌다는 게 부끄러웠던가.

어쩌면 둘 다 일수도 있었다. 어느 쪽이든 가능성은 충분했다.

"아, 아무튼 난 서쪽 탑의 다리에 관련해 아무것도 몰라! 다리의 밧줄이 끊어진 건 나랑은 아무 관계도 없다고!"

"오."

알테어가 생각에 잠긴 와중에도 데네브의 (멍청한)헛소리는 계속되었다.

"아가씨는 다리가 무너진 원인이 밧줄때문인 것도 알고계시는군요?"

"어.....?"

"전 다리가 무너졌다고만 말했는데 어떻게 다리가 무너진 원인이 끊어진 밧줄때문인 것도 알고 계시는 겁니까?"

"....."

"정말 대단하십니다, 데네브님. 탑 근처엔 가지도 않았는데 모든 걸 꿰뚫고 계시는군요!"

데네브는 에반의 앞에선 거짓말을 못한다.(혹은 다섯 살보다도 못한 사고 능력을 자랑한다.)

그녀에 대해 깨달은 또 다른 사실을 기억해두며 알테어는 시선을 돌렸다.

결국 데네브의 거짓말을 참다못한 에반이 참았던 화를 터트렸기 때문이다.

데네브가 몇 번이고 강조했던 대로 화가 난 에반은 몹시도 무서웠다.

알테어는 '제정신' 이라든가 '무슨 생각 이셨냐.' 라든가 '그렇게 가지 말라고' 외 기타 등등의 말들로 분노를 쏟아내는 집사의 말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다.

그는 이 순간만큼 자신이 왕자의 신분이라는 게 다행스럽게 느껴졌던 적이 없었다.

"그리고 대체 통하지도 않을 거짓말은 왜 자꾸 늘어놓으시는 겁니까!"

알테어가 왕자가 아니었다면 에반의 분노가 그에게도 화살을 돌렸을 것이 안 봐도 눈에 선했다.

지금도 그는 은연중에 데네브와 함께 알테어를 혼내고 싶은 기색을 풍겼다.

알테어는 그런 에반을 무시하며 창밖으로 보이는 정원에 시선을 고정했다.

'그러니까.....'

뜻밖에 깨달은 사실에 눈을 동그랗게 뜬 알테어가 생각했다.

'정원이 저기 있었군.'

정원에는 에반이 말했던 대로 장미가 참 예쁘게 피어 있었다.

붉은색과 흰색, 분홍색과 노란색의 장미들은 그 색이 진하고 선명했다.

환한 태양빛 아래 빛나는 꽃잎들은 보기만해도 싱그러운 기운이 흠뻑 묻어나 손을 가져다 대면 그 생기가 손가락에 묻어날 것 같다는 착각을 불러 일으켰다.

크고 탐스러운 꽃송이들이 그리 넓지 않을 정원을 화사하게 물들이는 것을 보며 알테어는 나직이 감탄했다.

야트막히 세워진 낮은 담길들이 홀로 사색하며 걷기 딱 좋아보였다.

데네브와 추격전을 벌이지 않았더라면 그는 지금쯤 제 취향의 산책길을 따라 혼자만의 생각에 심취해있었을 것이다.

'얻는게 있다면 잃는 것도 있는 법이지.'

딱히 데네브와 만났던 일을 후회하는 건 아니지만 저 정원을 거닐 수 없다는 건 몹시도 아쉬운 일이었다.(특히 에반의 잔소리가 끝나지 않을 것 같은 지금 이 순간은 더더욱.)

결국 데네브가 자신의 죄를 에반에게 고하는 걸 흘러들으며 알테어는 정원을 걷는 자신의 모습을 상상해보았다.

햇살이 강하니 바깥의 공기는 뜨겁게 달아올라 있을 것이다.

정원 곳곳에 설치된 지붕이 만들어 낸 그늘은 더위에 지친 그를 한숨 돌리게 만들 테고 그 때 깊숙이 들이마신 공기엔 장미향이 진하게 베어날 것이다.

그러면 그는 상념에서 벗어나 고개를 들고 정원에 가득 핀 장미를 눈에 담을 것이다.

그래, 지금 바로 그의 앞에 등을 돌리고 선 레굴루스 왕처럼.....

'.....아버지?'

알테어는 한 박자 늦게 정원 속에 녹아든 남자의 뒷모습을 발견했다.

그의 아버지였다.

아니, 그는 정말 알테어의 아버지였을까.

레굴루스가 몸을 돌렸다. 그와 동시에 알테어는 몸을 굳혔다.

'당신, 누구야?'

색색의 장미들 속에 파묻힌 그의 얼굴엔 항상 짓던 근심 어린 표정이 없었다.

부드럽게 미소 짓고 있는 얼굴이 어찌나 자연스럽게 편안해 보이던지 처음 마주하는 그의 낯선 면모에 알테어는 한순간 제 눈을 의심했다.

'당신은 또 누구고?'

그는 혼자가 아니었다.

긴 갈색머리를 우아하게 틀어 올린, 알테어는 처음 보는 나이 지긋한 여성이 레굴루스의 옆에서 그와 함께 걷고 있었다.

'당신들은 누구야?'

레굴루스가 여인을 향해 보내는 표정을 눈에 담은 알테어는 충격을 넘어 공포를 느꼈다.

지금 창 너머에 있는 사람은 알테어의 아버지가 아니었다.

위엄 있는 일국의 왕도 아니었고 왕비, 멜비나의 지아비도 아니었다.

그 사람은 레굴루스였다.

레굴루스 카를 콘 비르마스가 아닌, 그냥 레굴루스.

알테어는 모르는, 단 한 번도 만나본 적 없는 남자였다.

그 때 뒤에서 누군가 그들을 불렀다.

"다들 여기서 뭘 하는 건가?"

"아빠!"

깊고 나직한 울림을 가진 남자의 상냥한 목소리에 끝이 보이지 않던 에반의 잔소리가 겨우 멈췄다.

데네브가 상대를 향해 달려갔는지 작은 뿔박질 소리가 들렸다.

아니, 정말로 들렸던가?

갓가지 생각들로 인해 머릿속이 뒤죽박죽 얽히고 설켜 알테어는 확신할 수 없었다.

"백작님."

중년의 집사가 더없을 공손함과 존경을 담아 상대를 불렀다.

"죄송합니다, 강의가 끝나신 줄은 몰랐습니다. 바로 차를 준비해드리겠습니다."

"아니, 괜찮네. 자네 탓이 아니야. 어쩌다보니 진도가 예상보다 빨라 내가 휴식 시간을 조금 이르게 잡았다네."

에반의 실수를 가볍게 넘기며 남자는 부드럽게 웃음을 터트렸다.

"차는 천천히 준비하게. 수업 중에 잠시 자네가 가꾼 장미자랑을 좀 했더니 다들 구경하겠다고 정원으로 나가버려서 말이야. 다음 강의 시작 전까지만 준비해주게나."

"알겠습니다. 날이 더우니 차가운 디저트와 함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생각이야. 역시 자네밖에 없군. 그리 해주게."

이 별장의 주인, 이에르곤 바론 캄파넬라 백작이 바로 그의 뒤에 있었다.

알테어는 이쯤에서 그만 고개를 돌리고 그에게 인사를 건네야 했다.

그게 예의였으니까.

하지만 알테어는 도무지 창에서 눈을 떼 수가 없었다.

캄파넬라 백작과 에반의 대화를 모두 들었음에도 그는 레굴루스가 저 정체모를 여인을 향해 말을 거는 장면에서 시선을 돌릴 수가 없었다.

누군가 그의 눈을 창문에 붙여놓은 것 같았다.

"알테어?"

데네브가, 자신을 선 안으로 받아들여 준 최초의 인물이 그를 불렀다.

그는 그 부름에 답해야했다.

알테어는 초인적인 힘으로 돌아가지 않는 고개를 겨우 돌렸다.

"아, 알테어 왕자님."

데네브와 똑같은 갈색 머리에 푸른 빛 섞인 검은 눈동자를 가진 푸근한 체격의 남자가 데네브를 안아든 채 서 있었다.

그는 금테를 두른 작은 안경을 끼고 있었는데 그때문인지 지적인 학자 특유의 분위기를 풍겼다.

알테어가 어렴풋이 상상하던 모습 그대로였다.

"처음 뵙겠습니다. 이에르곤 바론 캄파넬라라고 합니다."

데네브를 바닥에 내려놓은 그가 가볍게 예를 취했다.

"사실 저는 왕자님이 아주 어렸을 때 먼발치에서 뵈는 적이 있었는데 그게 벌써 8년 전이군요. 정말 많이 자라셨습니다."

알테어 역시 마주 인사하며 그 말에 답했다.

사실 뭐라 답했는지는 잘 기억나지 않았다.

물먹은 솜뭉치가 목구멍을 틀어막은 것 마냥 입을 열 때마다 숨이 막혔고 가슴이 답답했다.

"알테어?"

기이한 알테어의 태도에 데네브가 조심스레 그의 팔을 붙잡았다.

"너 괜찮아?"

"아니."

알테어가 솔직하게 대답했다.

그는 고개를 돌리고 싶었다.

두 눈이, 머리가 창밖의 풍경을 다시금 눈에 담고 싶어 했다.

자신이 목격한 그 믿을 수 없는 광경을 확인하고 싶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알테어는 고개를 돌리고 싶지 않았다. 돌릴 수 없었다.

아까까진 창 너머의 광경에서 도저히 눈을 떼 수 없었는데 지금은 그 반대였다.

마음이란 참으로 기묘해 확인을 요구하는 머리와는 따로 놀아 다시 한 번 아까의 풍경을 보게 된다면 오늘 하루 먹었던 것들을 모조리 게워버릴 거라고 그에게 경고했다.

알테어는 쓰라린 위를 붙잡았다.

"조금 아픈 거 같아. 몸 상태가 안 좋아."

"뭐? 그거 큰일이잖아!"

"다리에서 떨어지시면서 크게 다치신 곳이 있으십니까? 머리라든가, 등이라든가."

"다리? 다리라니? 떨어져? 설마 서쪽 탑에 있는 그 엉성한 다리를 이야기하는 건 아니겠지?"

데네브와 에반, 그리고 캄파넬라 백작이 차례차례 비명을 질렀다.

에반이 백작에게 그와 데네브가 벌인 일에 대해 고하는 동안(백작은 다시 비명을 질렀다.) 알테어는 저를 부축하는 데네브의 어깨에 이마를 기댔다.

"특정 약초에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는 건가? 그도 아니면 약 배합이 잘못 된 건가? 설마 약초의 상태가 나빴던 건.....!"

".....네 탓이 아니야."

걱정스레 중얼대며 점점 삼천포로 빠지는 데네브의 혼잣말에 답하며 알테어는

눈을 감았다.

이제는 지끈거리는 두통이 그의 뇌를 휘저었다.

평범해 보이는 남녀의 산책.

서로를 향해 그 어떤 신체적 접촉도 뜨거운 감정이 오간 것도 아니었지만 알테어는 알았다.

그건 특별했다. 아버지의, 아니 레굴루스의 다시없을 더없이 특별한 순간이었다.

알테어는 그것을 알았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그만은 그 사실을 알 수 있었다.

10. 열 살, 첫 만남, 여름(9)

"시도하는 걸 바보 같다고 하지 마세요."

새끼손톱보다도 작은 싸라기눈이 거세게 부는 바람에 실려 유리창을 두드렸다.
투둑, 툅, 툅, 투두둑.

규칙이라곤 눈 씻고 찾아볼 수 없는 그 엇박자의 리듬은 얼핏 보면 겨울바람이 노래하기 위해 똥땅거리는 반주 같기도 했다.

'창문을 열면 노랫소리가 들려올지도 몰라.'

북풍의 노랫소리는 어떤 소리일까.

교사에게 배운 대로 완벽한 각도로 창잔을 기울인 알테어가 창을 향해 시선을 고정하며 생각했다.

창살 사이사이 성애가 잔뜩 낀 창문은 뿌영게 흐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들을 수 있다면 좋을 텐데.....'

썩썩한 홍차 맛이 입 안을 가득 메워 아이는 저도 모르게 눈살을 찌푸렸다.

'북풍도 기껏 노래하는데 관객이 없으면 얼마나 외롭겠어?'

말도 안 되는 생각이란 건 알았지만 알테어는 생각하는 걸 멈출 수 없었다.

그 나름의 노력이었다.

동화 속에서나 나올 법한 이야기를 상상하며 이 자리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든 일에서 신경을 끄기 위한 노력.

"내가 지금과는 완벽히 다른 누군가가 될 수 있을 거라곤 믿지 않아요."

하지만 그는 실패했다.

성에(성에 가득한 창이 유리표면이 거울 마냥 방 안을 흰히 비쳤기 때문이다.

원하지 않았음에도 알테어는 고개 숙인 어머니와 그녀에게 시선을 두지 못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선명히 볼 수 있었다.

"하지만 나는 평생 내가 아니었어요."

알테어의 어머니이자 현 비르마스 왕국의 유일한 왕비, 막 피어난 꽃봉오리 같은 젊음을 갑옷마냥 둘러 쓴 여인, 멜비나 라셀 콘 비르마스가 말했다.

오늘을 위해 한껏 치장한 것이 분명한 화려한 차림새가 알테어의 눈에 들어왔다.

유리창을 통해 보이는 그녀의 입술이 유난히도 붉었다.

"당신에게 맞춰 조금쯤 변한다고 해도 내겐 지금과 다른 점이 아무것도 없어요."

멜비나가 고개를 들었다.

그녀는 알테어와 똑같은, 가을 하늘처럼 맑고 유리알 같은 푸른 눈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니 내 노력을 비웃지 마요. 어설픈 배려로 그러지 않아도 된다고 포장할 필요도 없어요. 알테어를 위해서라면 필요한....."

"알테어를 위해서?"

그 때 무엇이 그의 심기를 건드린 건지 잔뜩 화가 난 표정의 레굴루스가 멜비나를 향해 고개를 돌렸다.

하지만 그녀의 새파란 눈과 마주한 순간 남자는 바로 다시 눈을 돌려버렸다.

알테어는 주름진 레굴루스의 얼굴이 무섭게 일그러져 있는 걸 보았다.

"당신이야 말로 포장하지 마시오."

떨어지지 않는 입술을 열듯이, 뱉어낼 수 없는 말을 꺼내듯이 그가 힘겹게, 아주 힘겹게 입을 열었다.

"나 역시 그 날 이후 내가 나인 적이 없었소."

말을 꺼내는 레굴루스도, 그의 말을 듣는 멜비나도 얼굴이 창백하게 질려 있었다.

대화의 내용을 조금도 따라갈 수 없었지만 그 순간, 알테어의 안에선 어떤 예감이 들었다.

변하지 않을, 어떤 절대적인 확신이.

"그러니.....부디 노력하지 마시오. 나를, 아니 우리를 위해 하는 말이오."

"....."

"이걸 위선이든 기만이든 뭐라고 표현해도 좋소. 그러나 나는 이게 내 진심이라고 말하고 싶소."

이 주에 한 번씩 가족끼리 모여 차를 마시는 게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해 제안한 건 대체 어디 사는 멍청이었을까.

식어버린 찻잔의 꼬트머리를 조막만한 손가락으로 문지르며 알테어는 흐릿하 기만 한 창 밖을 보았다.

겨울바람이 요란하게 노래하는 창밖이 그가 자리한 곳보다 더 따스해 보였다.

* * *

캄파넬라 백작은 두 사람이 탑 꼭대기에서 떨어졌다는 소식에 한 번, 알테어의 손에 감긴 붕대를 보고 두 번 비명을 질렀다.

왕국의 귀한 후계자인 알테어의 몸에 상처가 났다는 사실에 기겁한 에반은 의사를 부르라 부르짖었고 알테어는 그런 그를 말리며 손을 내젓다 현기증을 이기지 못하고 넘어졌다.

그 와중에 그를 부축하고 있던 데네브를 넘어트린 건 덤이었다.

에반의 비명 아닌 비명에 황급히 약상자를 가져오던 사용인은 발을 헛디터 계단을 굴렀다.

결국 그들은 진짜로 의사를 불러야 했다.

뭐 그 밖에도 알테어가 의사에게 진찰을 받고 데네브가 그에게 자신이 직접 만든 수제 연고를 챙겨주고 이런저런 문제들로 남은 강의가 취소되는 등의 사건이 있었지만 그다지 중요하진 않으니 설명을 생략해도 아무래도 좋을 일들이리라.

알테어는 연신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이는 캄파넬라 백작을 말리느라 한참 뒤에야 개판이라 불려도 전혀 이상치 않을 그 자리를 벗어날 수 있었다.

그의 손안에는 에반에게서 받은 두통약과 위장약들이 가득 들려 있었다.

알테어는 그것들을 모조리 제 뒤를 따라온 왕의 수행원에게 넘겨주고 마차에 올랐다.

때아닌 소란에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확인하기 위해 모여든 다른 귀족들의 눈을 피하기 위함이었다.

‘.....별 소용없었던 것 같지만.’

제때 몸을 피하지 못한 탓에 그의 얼굴을 알아본 귀족이 분명 있을 것이다.

알테어는 그들이 자신을 두고 무슨 이야기를 이러쿵저러쿵 짚어댈지 쉬이 상상할 수 있었다.

“.....후우.”

어쩐지 두통이 더 심해진 것 같았다.

그나마 캄파넬라 백작의 강의를 듣는 귀족들의 수가 적은 걸 다행으로 여겨야 하는 걸까.

레굴루스가 알테어에게 입을 다물라고 강요했다는 건 이미 다른 귀족들에게도

침묵을 지킬 걸 당부했다는 뜻이다.

데네브에게서 받은 사탕의 포장을 까 입에 넣으며 알테어는 소문을 내는 그룹의 규모가 작다는 사실에 만족하기로 했다.

사실 정말로 만족스러운 건 아니었다. 이건 더 정확히 말하자면 타협에 가까웠다.

‘그나저나.....앤 대체 나한테 뭘 준 거야?’

데네브가 준 사탕은 시큼하고 쓴 맛이 났다.

그 아수라장 속에서 요령 좋게도 그에게 작별인사를 건넨 그녀는 그를 배웅하는데 그치지 않고 꼭 가까운 시일 내에 다시 만나자는 약속까지 받아내는데 성공했다.

지금 입 안에서 굴리고 있는 사탕은 그 징표였다.

‘우웬.’

입에 넣자마자 혀를 괴사시킬 것 같은 끔찍한 맛에 알테어의 눈살이 절로 찌푸려졌다.

사실 이건 징표가 아니라 저를 골리기 위한 고도의 계략이 아닐까, 라고 알테어는 일순 생각했다.

하지만 그 끔찍한 맛 때문인지 도리어 정신은 번쩍 들었다.

시간이 조금 지나자 알테어는 저를 괴롭히던 두통이 조금씩 가라앉는 것을 느꼈다.

혀로 사탕의 동그란 표면을 집중해서 살살 훑고 있자니 혀에 걸리는 작은 알갱이가 있었다.

알테어는 그게 풀잎 같다고 생각했다.

‘설마 약초로 만든 사탕인 거야?’

제 손을 치료해 준 데네브의 전문가적인 솜씨를 떠올리던 알테어는 이게 제법 현실성 있는 상상이란 걸 깨달았다.

다리가 부러진 사용인을 진찰하던 의사도 알테어의 손을 보더니 완벽한 치료법이라 칭찬하며 12시간마다 약을 바르고 붕대를 갈라는 것 외에 별다른 처방을 내리지 않을 정도였다.

알테어는 의사의 뒤에 선 데네브의 콧대가 점점 올라가던 걸 떠올렸다.

‘.....치료사가 장래 희망인가?’

백작가의 귀족 영애가 의사나 약사가 되는 건 정말 드문 일이었다.

신기하다고 느껴지는 한 편 알테어는 그녀라면 충분히 그런 장래희망을 목표로 삼고 있어도 이상하지 않다고 생각했다.

이 잠깐 사이에 그는 제가 사권 첫 친구가 그리 평범하지 않다는 사실을 자각하고 있었던 것이다.

“오늘 네 행동은 정말 실망스럽구나, 알테어.”

데네브가 준 약통의 거친 뚜껑 표면을 문지르고 있던 알테어의 엄지손가락이 움직임을 멈췄다.

생각이 멈춘 탓이다.

그는 고개를 들어 맞은편에 앉은 아버지, 레굴루스를 바라보았다.

흔들리는 마차의 움직임에 맞춰 들쭉이는 커튼을 향해 시선을 응시한 그가 깊은 한숨을 뿜었다.

알테어는 그가 대화 내내 자신과 시선을 마주하지 않을 것임을 알았다.

“보는 눈이 많은 곳에서 것처럼 큰 소란을 피운 건 둘째 치더라도 왕위계승자로서 네 몸의 안전을 등한시 한 건 무책임하고 경솔한 행동이었다.”

알테어는 레굴루스의 얼굴을 유심히 살폈다.

진중한 모습으로 무겁게 입을 여는 그는 알테어가 수년간 봐온 익숙한 얼굴을 하고 있었다.

아버지이자 황제인 모습으로.

근심 가득한 얼굴과 마주하지 않는 눈, 그리고 온기 없는 차가운 목소리로.

알테어에겐 더없이 친숙하고도 낯익은 표정이었다.

"예의에 맞게 행동하라고도 당부했을 텐데 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 여자는 누군가요?"

수많은 생각들이 떠오르고 가라앉길 반복하다 마침내 터졌다.

여과를 거치지 않은, 머릿속에 떠오른 말이 눈 깜짝할 사이 입 밖으로 내뱉어진 것이다.

놀란 레굴루스의 눈이 둥글게 커졌다.

질문을 던진 알테어, 그 자신도 깜짝 놀랐다.

"아버지가 정원에서 어떤 여성분과 함께 산책하는 걸 봤어요."

하지만 알테어는 곧 자신이 그 질문을 던진 사실을 후회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아니, 도리어 마차가 출발하던 그 순간부터 줄곧 묻고 싶었던 질문이라는 걸 자각했다.

대체 그 여자는 어디 사는 누구기에, 레굴루스에게 무엇을 주었기에 한 나라의 왕이자 한 아이의 아버지인 그를 평범한 남자로 만든 것인지.

가족인 그조차 한 번도 본 적 없는 표정을 짓게 하는 건지, 알테어는 알고 싶었다.

"....."

때로는 백 마디 말보다 장시간의 침묵이 더 많은 정보를 전달하기도 했다.

끝까지 그와 시선을 맞추지 못하는 레굴루스의 모습에서 알테어는 그 사실을 깨달았다.

"그녀가 이유군요."

감도 좋고 눈치도 빠른 알테어는 번개처럼 깨달은 사실에 숨을 들이켰다.

“아버지가 캄파넬라 백작의 강의를 들으러 직접 별장으로 가시는 것도, 비밀을 당부한 것도 모두 그분 때문이었어요.”

“내가 본 그 사람은 다헬 남작부인이다.”

빠르게 돌아가는 알테어의 생각을 끊기라도 하듯이 침묵을 지키던 레굴루스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물 흐르듯이 흐르던 사고 속, 불협화음처럼 끼어든 정보에 굳어진 알테어가 눈을 깜빡였다.

‘다헬 남작?’

듣도 보도 못한 가문의 이름이었다.

적어도 알테어가 외우고 있는 귀족가문들의 이름 중 ‘다헬’ 이란 가문은 없었다.

‘미망인인 건가?’

비르마스의 법은 부부 중 작위를 가진 이가 사망했을 시 물려받을 자식이 없다면 그 배우자가 작위를 물려받게 되어 있었다.

사망한 이와 피가 섞인 혈연들이 정당치 못한 방법으로 작위를 가로채기 위해 앞다투어 싸우거나 가문의 이름을 물려받지도 않을 거면서 재산만 갈취해 가는 걸 방지하기 위함이었다.

단, 이러한 방법으로 사망한 배우자의 작위를 계승했을 시 당사자는 그 누구에게도, 설령 재혼 후 낳은 아이에게도 작위를 물려줄 수 없었다.

죽으면 그 가문은 그대로 대가 끊기는 것이다.

비르마스에서는 이런 작위를 계승할 수 없는 귀족 가문을 죽은 가문이라 보았

다.

이렇게 죽은 가문들은 후에 가진 땅도 재산도 권력도 명예도 모두 국고로 환수되었기 때문이다.

권세 높은 귀족 가문들이 먼 친척의 양자를 들여서라도 후계자를 정해두는 데는 다 이러한 이유가 있었다.

생각이 잠시 딴 길로 샀는데 만약 다헬 남작 부인이 이러한 경우로 작위를 계승했다면 알테어가 그녀의 이름을 들어보지 못한 것도 납득할 수 있었다.

오랜 시간 명맥을 이어온 여러 귀족 가문의 이름과 그들의 간략한 역사에 대한 것을 외우는 것만으로도 벅찬데 죽은 가문들에 대한 것까지 외울 틈이 어디 있단 말인가.

알테어는 따로 '다헬' 이라는 가문의 이름에 대해 기억해두었다.

나중에 따로 문장원(紋章院)이나 재무부에 보관된 서류를 뒤져 이 다헬 남작 부인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볼 생각이었다.

“역사에 대한 조예가 깊은 박학다식한 사람인지라 네가 본 것처럼 가끔 산책을 하면서 그날 강의에선 배운 내용과 관련해 의견을 나누곤 한다.”

문장원은 그렇다 치고 어떻게 재무부의 서류를 뒤져볼지에 대해 고민하고 있던 알테어는 조심스럽게 말을 잇는 레굴루스의 모습에 다시금 눈을 동그랗게 떴다.

“하지만 단지 그것뿐, 나는 그녀와 아무 사이도 아니란다.”

“.....”

“캄파넬라 백작의 강의를 듣는 같은 학생일 뿐. 우리 사이엔 네가 생각하는 그 어떤 일도 없었어.”

알테어는 기가 막혔다.

하필 변명을 해도 그런 말도 안 되는 변명을 하다니. 이렇게 되면 속아주고 싶어도 속아 줄 수가 없지 않은가.

코웃음을 치고 싶은 걸 억누른 알테어는 절로 높아지는 목소리를 참지 않고 되물었다.

“제가 뭘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북풍이 소리 높여 노래 부르던 겨울의 풍경과 알록달록한 여름의 장미 정원이 번갈아가며 알테어의 눈앞을 오가길 반복했다.

노력조차 포기하라고 말하던 아버지와 먼저 상대에게 말을 걸며 눈을 맞추려는 레굴루스의 얼굴이 머릿속을 물들었다.

포기해야만 하는 노력이란 무엇일까. 아무 사이도 아닌 건 또 무엇이란 말인가.

어른들의 일이란 복잡하고 또 복잡해 아무리 그가 감이 좋고 눈치가 빠르고 영특하다 하더라도 알 수 없는 일이 태반이었다.

수수께끼 같은 관계의 얽힘에 다시 머리가 아파와 알테어는 데네브가 준 사탕을 하나 더 까서 입에 넣었다.

그는 문득 이 맛있는 사탕만이 현재 그의 두통을 가라앉히는 유일한 치료제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알테어는 끝끝내 참아왔던 한숨을 터트렸다.

모든 것이 혼돈이었다.

11. 열 살, 권모술수, 여름(1)

"비밀로 하겠다는 약속, 잊지 마렴."

알테어가 반항적으로 제가 무엇을 알고 있냐고 되물었던 질문에 대한 레굴루스의 답이었다.

그는 그 말을 뱉은 이후 입을 다물었다.

그 이상의 변명도 설명도 알테어에게 할 필요 없다는 듯이.

늙은 왕은 커튼 사이로 보이는 해질녘의 붉은 노을에만 시선을 고정시킨 채 움직이지 않았다.

지친 것 같기도 하고 울고 싶은 것 같기도 한 그 얼굴에 대고 알테어가 얼마나 화가 났는지는 감히 말 몇 마디로 표현할 수 없을 것이다.

알테어는 처음으로 레굴루스의 면전에다 대고 그에게 있어 자신의 가치에 대해 묻고 싶었다.

어렵풋이 짐작은 하고 있었지만, 그래도 그의 입으로 직접 듣고 싶었다.

그 정도로 머리에 열이 올랐다.

하지만 알테어는 인내했다.

목소리를 높이며 질문한다고 그가 순순히 대답해 줄 리가 만무한데다 대답을 듣고 난 후 더한 분노가 치밀어 오를 가능성이 농후했기 때문이다.

'무엇을요?' 라고 묻고 싶은 마음까지 혀 너머로 넘긴 그는 성에 도착한 마차가 멈출 때까지 침묵을 지켰다.

마차 문이 열리기 직전까지 고집스레 침묵을 지키는 두 사람 사이의 공기는 계절을 뛰어넘어 찬바람이 뽕뽕 불었다.

그리고 영원할 것만 같았던 고요를 먼저 깨트린 건 알테어였다.

"캄파넬라 백작의 타운 하우스를 방문하고 싶어요."

조용하고 나직한 그 목소리에 마차 밖으로 나가려던 레굴루스의 몸이 멈칫했다.

몸을 돌리고 서 있었기 때문에 알테어는 그가 지금 무슨 표정을 짓고 있는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짐작은 갔다.

그를 대할 때 레굴루스의 얼굴은 대체로 일관적이었으므로.

"이번엔 저 혼자서 다녀오고 싶어요."

"안 된다."

굳어져 있던 레굴루스의 몸이 다시 움직였다.
그는 부드럽고도 위엄 있는 걸음으로 마차에서 떨어졌다.

"너는 대외적으로 그 가문과 어떤 접점도 없지. 갑자기 타운 하우스를 방문한다고 하면 주변 이들이 너와 백작의 관계를 의심할 거다."

"그럼 몰래 가면 되겠네요."

"알테어."

아버지가 아닌 왕의 모습으로 레굴루스가 경고했다.
그의 뒤를 따라가고 있던 알테어는 문득 이 모든 게 낯설게 느껴졌다.
이게 다 참 너머 보였던 그 환상과도 같던 광경 때문이었다.
아버지도 일국의 왕도 아닌 레굴루스라는 남자의 얼굴을 봤기 때문이다.
알테어는 본 적도 없고 왕비, 멜비나에겐 허락되지 않은 한 인간의 일면을 알아버려서, 그래서.....

"백작의 딸과 어울리는 게 즐거웠던 모양인데 외출은 한 달에 두 번 나를 따라가는 것으로 만족하렴."

레굴루스가 말했다.

"정도를 지키고 매사 자신의 행동을 조심할 줄도 알아야지."

정도, 조심, 행동.

알테어는 보이지 않는 손이 제 폐를 쥐어짜내는 것을 느꼈다.

그는 지금 이 순간, 세상 모든 것이 부조리하게 느껴졌다.

알테어는 이렇게 가끔, 아니 꽤 자주 그것을 느꼈다.

누구나 다 가지고 있지만 자신만 없는 것들을 발견할 때, 그 누구에게도 자신의 존재가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고 느낄 때, 세상물정 모르는 어린아이나 사고라는 걸 할 수 없는 백치 취급을 받을 때 특히 더.

나이에 비해 학업성취가 뛰어나 영특하다곤 여겨져도 고작 10살이기 때문인지 사람들은 그가 세상물정을 모른다고, 사람들 사이의 긴장감을 알아차리지 못한다고 여기곤 했다.

그가 왕이나 왕비 사이에 도는 정적이나 케틀렉 공작과 귀족들이 주고받는 대화의 의미를 알고 있다고 한다면 믿을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 것인가.

그러나 아이들은 때론 어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많은 것을 눈치 채곤 한다.

알테어는 그 부분, 타인의 비언어적 신호를 해석하는데 한해선 또래보다 특히 더 예리한 편이었다.

"정부를 둔 건 제가 아닌데도 조심해야 하나요?"

"알테어!"

엄한 왕의 시선에 알테어의 감이 여기서 입을 다물어야 한다고 경고했다. 하지만 그는 그러지 않았다.

바로 다음 주, 어머니 멜비나와 가져야 하는 티타임을 생각하면 속이 뒤집어질 것 같았기 때문이다.

그들은 이제 더 이상 셋이 모여 차를 마시지 않았다.

오직 알테어만이 어머니와 아버지와 각각 그것도 날을 정해서 따로 티타임을 가졌다.

그게 일반적인 일이 아니라는 걸 알테어는 겨우 1년 전에야 깨달았다.

"아 죄송해요. 정부 후보였나요?"

"그만!"

직감이 경고했던 대로였다.

"감히 내게 더 말대꾸할 생각 말 거라! 아무리 네가 내게 조른다 한들 백작가를 방문하는 걸 허락할 순 없어!"

그새 데네브에게 배운 희극적인 알테어의 비꼬는 목소리에 레굴루스는 크게 화를 내며 그를 꾸짖었다.

"여기서 내가 마음을 바꿀 거란 생각은 하지 않는 게 좋을 거다, 알테어 라셀콘 비르마스!"

한껏 성을 낸 레굴루스는 알테어의 대답은 듣지도 않고 바람소리가 날 정도로 세차게 몸을 돌려 걸어가 버렸다.

수행원들을 데리고 성의 어둠 속으로 들어가는 아버지의 뒷모습을 가만히 보고 있던 알테어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알테어님?"

그를 거처로 내려다주기 위해 기다리던 수행원이 의문을 표할 정도로 긴 시간이었다.

달빛이 만들어내는 긴 그림자를 응시하던 알테어는 아버지가 끝내 앞으로 저를 데리고 나가지 않을 거란 말은 하지 않았다는 걸 깨달았다.

다빈인지 다헬인지, 아무튼 그 남작 부인이 꽤 소중한 모양이다.

그 사실을 곱씹던 알테어는 제 속이 뒤틀리는 듯한 감각을 느꼈다.

".....돌아가자."

당연하지만 그는 이대로 포기할 생각이 없었다.

레굴루스가 마음을 바꿀 생각이 없다면 그가 마음을 바꿀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면 그만이었다.

그건 알테어에게 있어 아주 쉬운 일이었다.

또래의 아이들이 부모의 관심이나 사랑, 친구들과의 우정을 키우며 컸다면 알테어는 부모의 무관심과 케틀렉 공작이 보낸 감시의 눈 사이에서 눈치와 권모술수, 그리고 의심을 배우며 자라왔으므로.

‘굳이 약속을 어겨 비밀을 터트릴 필요는 없어.’

알테어는 생각했다.

‘아버지의 비밀을 알고 있다는 것 자체가 내 무기니까.’

본디 비밀을 가진 인간이란 경계가 심하고 의심이 많은 법이다.

특히 레굴루스처럼 조심스러운 성격을 가진 인물이라면 지금쯤 알테어가 약속을 지키지 않고 타인에게 비밀을 폭로했을 경우를 대비하고 있을 터였다.

알테어는 그것을 역이용하기로 했다.

언제 비밀이 터질지 모르는 그 아슬아슬한 불안감을 이용해 그는 레굴루스를 지치게 할 생각이었다.

‘한 일주일 정도면 되려나.’

레굴루스의 긴장을 일정 수준으로 유지하게 만드는 건 어렵겠지만 잘만 한다면 알테어는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데네브를 만날 수 있을 것이다.

알테어는 차곡차곡 제가 아는 사실들을 늘어놓으며 생각을 정리했다.

저 작은 머릿속에 수많은 변수를 가진 계획들이 세워지고 무너지길 반복하고 있다는 것을 아는 이는 아무도 없었다.

왕자궁으로 가는 길 내내 그의 뒤를 따르고 있던 레굴루스의 수행원조차 끝끝내 알테어가 얼굴에 띤 미소의 진의를 깨닫지 못했다.

다음 날 아침, 알테어는 일어나자마자 왕비와의 티타임을 오늘 오후로 앞당기고 싶다는 전갈을 보냈다.

"꼭 하고 싶은 말이 있다고 적어줘."

그는 직접 전갈을 적는 대신 시종장, 렉터에게 대필을 시켰다.

렉터 리븐 플라우스는 케틀렉 공작가의 먼 방계 인물로 10년 전 평생을 공작의 눈과 귀가 되는 것을 조건으로 알테어가 거주하는 궁의 시종장이 된 이였다.

그가 어떻게 이 사실을 알고 있느냐 하면은 알테어가 네 살인가 다섯 살 때쯤 왕비가 케틀렉 공작과 목청 높여 싸우면서 말해버렸기 때문이다.

왕비도 공작도 알테어가 너무 어려 당시의 대화를 잊어버렸을 거라 생각했지만 알테어는 그들이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했을지언정 대화의 맥락은 전부 기억하고 있었다.

알테어가 두 사람의 대화 내용을 완벽히 이해한 건 일곱 살 때였다.

두 사람이 말다툼을 벌였던 날로부터 꽤 긴 시간이 흐른 뒤였지만 그들이 대화 중에 흘렸던 정보는 알테어에게 있어 몹시 유익했다.

"내가 어머니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도 추가해주고."

바로 지금처럼.

스스로 쓸 수 있는 편지를 구태여 렉터를 통해 대필하는 이유는 그가 왕비에게 보내는 편지의 내용을 알았으면 했기 때문이다.

그래야 케틀렉 공작의 귀에 이 모든 내용이 들어가지 않겠는가.

"흠, 어머니를 기쁘게 하고 싶은데 꽃이라도 보내는 게 좋을까?"

중간 중간, 그는 제게 차를 따라주거나 옷매무새를 정리해주는 시녀들의 의견을 묻는 것도 잊지 않았다.

알테어는 시종장뿐만 아니라 이 방안에 있는 모든 이들이 편지에 대해 알았으면 했다.

조심스럽고 치밀한데다 예민하기까지 한 성정의 레굴루스가 뻔히 왕자궁의 시종장이 케틀렉 공작의 사람임을 알면서도 손 놓고 있을 리가 없었다.

누군지는 몰라도 시종장이 외할아버지를 위해 일하고 있는 것처럼 알테어는 이들 중 아버지를 위해 눈과 귀가 되어주는 사람이 있을 거라 믿었다.

‘나라도 그렇게 했을 테니까.’

성 내부에서 치열하게 돌아가는 정치의 생리에 대해 알테어만큼 잘 아는 또래 아이도 없을 것이다.

‘정치란 게 다 그렇지 뭐.’

그렇기에 알테어는 최대한 많은 이들을 방에 불러들여 수다를 떨었다.
누가 레굴루스의 눈과 귀인지는 몰라도 이 정도 모였으면 아버지가 심어둔 감시자가 한 명쯤은 있을 것이다.
알테어는 그 사람이 레굴루스에게 편지의 내용에 대해 전했으면 했다.
그 편지의 내용이 케틀렉 공작의 귀에도 들어갔다는 사실을 알았으면 했다.

“아니면 초콜릿이 나으려나.”

“꽃이요! 꽃이 더 좋아요!”

“왕비님은 꽃을 좋아하시니까 굉장히 기뻐하실 거예요.”

시녀들이 재잘재잘 떠들며 알테어의 물음에 답했다.

“근데 무슨 꽃을 보내실 건가요?”

“장미! 장미로 보내세요! 요즘 장미가 참 예뻐요.”

알테어의 시중을 드는 시녀들은 밝고 수다스러운 이들이 많았다.
알테어가 원한 일이었다.
그에게 제왕학을 가르치는 교수, 울프렉 백작은 말이 많으면 많을수록 왕족의

위엄과 품위, 그리고 신비로움이 떨어진다고 믿는 사람이었다.

그 가르침에 전부 동의하진 않았지만 알테어는 수다스러운 성격을 가진 이들이 공통적으로 가지는 문제점은 어느 정도 자각하고 있었다.

비밀을 지키기 어렵다든가, 성격이나 성향을 파악당하기 쉽다든가, 하지 말아야 할 말까지 뱉어버린 다든가.

알테어는 이를 역으로 이용해 사용인들이 뱉어내는 사소한 대화를 통해 수많은 정보를 얻어냈다.

레굴루스가 케틀렉 공작과 만나기 전에 양주를 컵도 없이 병째 들이켰다는 정보도 이들을 통해 알아낸 것이었다.

"그래, 장미로 하자."

그렇기에 알테어는 그들 앞에선 유난히 유순한 어린 양처럼 행동했다.

어리고 귀여운데다 상냥한 알테어의 시커멓게 썩어 들어가는 속내를 아는 이들은 아무도 없었다.

알테어는 더없이 무해하고 무지해보였다.

아이는 부러 그렇게 행동했다.

순진하면 순진해 보일수록 그들은 알테어에게 거리낌 없이 자신이 들은 정보들을 자랑스레 토해내 보일 것이다.

"렉터, 장미를 준비해서 같이 동봉해줘. 색은....."

"붉은색!"

"당연히 장미는 붉은색이어야죠, 왕자님!"

"붉은색으로 부탁할게."

알테어의 말에 시녀들이 저들끼리 떠들며 웃음을 터트렸다.

원래라면 있어선 안 될 일이었지만 주인인 알테어가 같이 웃고 넘기기 때문인지 아무도 그들을 제지하지 않았다.

옆에서 대필을 하고 있던 시종장 렉터조차도 아무렇지도 않게 그녀들의 수다를 지적하지 않고 넘겼다.

낮익고도 익숙한, 그리고 예상 그대로의 광경이었다.

‘하긴 데네브 같이 왕족을 상대로 자기 성질을 있는 힘껏 부딪쳐오는 애가 또 어디 있겠어.’

알고 있는 사실을 재확인했을 뿐임에도 불구하고 물밀 듯이 밀려오는 외로움에 알테어는 안타까움을 감추기 힘들었다.

아니, 오히려 알고 있기에 더더욱 그는 그녀가 보고 싶어졌다.

만나지 못한지 채 24시간도 지나지 않았건만, 알테어는 데네브가 아주 많이 그리웠다.

12. 열 살, 권모술수, 여름(2)

"왕자님, 아이스나 식물원에는 보석처럼 예쁜 푸른 꽃을 재배한데요."

마지막으로 몇 마디 말을 더 덧붙이는 걸로 왕비에게 보낼 편지를 끝마친 알테어는 한 시녀의 말에 고개를 들었다.

주홍빛에 가까운 붉은 머리에 볼과 콧잔등에 주근깨가 가득한, 얼마 전에 새로 들어 온 시녀였다.

아마 이름이 사라였을 것이다.

사라 유엘핀 베르넬.

베르넬 자작의 넷째 딸로 사교계에 데뷔하기 전, 예의범절을 배우는 걸 목적으로 성에 들어왔다고 한다.

"맞아요. 사파이어처럼 예쁘고 유리처럼 반짝인다는데 아주 먼 옛날에 단종됐던 걸 부활시킨 거래요."

사라의 말에 옆에 있던 다른 시녀가 냉큼 그 말을 받으며 반색했다.

비르마스 왕국 남쪽에 위치한 아이스나 식물원은 알테어가 태어났을 무렵 세워진 건물로 희귀하거나 단종된 식물을 재배하거나 연구하는 기관이었다.

하일린 신성국, 아니 이전 은연중에 하일린 왕국이라 불리는 나라에서 성녀가 태어나지 않게 된 이후 사제들이 가진 치유의 힘이 크게 약해졌는데 이에 자연스레 수많은 나라들이 신성력을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시작했다.

비네시스 제국에서는 마법을, 아르힌 공국에서는 연금술을, 그리고 비르마스 왕국에서는 약초의 연구를 통한 신약 개발에 공을 들였다.

아이스나 식물원은 그 투자의 일환 중 하나였다.

알테어는 문득 데네브를 아이스나 식물원에 데려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분명 그녀라면 식물원의 식물을 보며 환장할 것이 틀림없었다.

하지만 그건 상상으로만 남길 수밖에 없었는데 아무리 그가 왕족이라도 국가의 중요한 연구기관에 허락도 없이 들어갈 수 있을 리가 없었기 때문이다.

"왕자님, 식물원에 명령해서 저희 성에도 그 꽃을 들여요."

사라를 비롯해 다른 시녀들이 그를 즐겼다.

“정원이 화사하니 아주 밝아질 거예요.”

알테어는 그녀들의 목을 조르고 싶은 충동을 느끼며 소리 없이 다시 입꼬리를 올렸다.

대체 왕족인 그도 출입이 어려운 장소의 정보가 어떻게 일개 시녀들의 귀에까지 들어갔는지 도무지 알 수 없는 일이었다.

‘이런 건 아버지나 고위 귀족이 아니면 모를 정보인데.’

알테어는 생각했다.

‘그런 중요한 기밀정보를 이들이 알고 있다는 건.....혹시 아버지나 외할아버지가 보낸 감시의 눈이 또 있나?’

곰곰이 생각해보니 충분히 있을 법한 이야기였다.

그 의심 많은 인물들이 보험을 들어두지 않는다면 오히려 그게 더 이상할 것 같았다.

‘.....젠장.’

알아내야 할 골치 아픈 일이 더 늘었다고 생각하며 알테어는 지끈거리는 머리를 부여잡았다.

“그럴 수 있으면 좋겠지만 내 어리광으로 바쁜 아버지나 연구원들을 괴롭힐 순

없으니 정원사가 키운 장미로 만족하자.”

하지만 두통으로 고통 받는 한편 그는 겉으로는 아무렇지도 않은 척을 하며 시녀들의 말에 답했다.

약을 달라고 할 수도 없었다.

머리가 아픈 티를 낸 순간 그들은 온갖 호들갑을 떨며 의사를 불러오거나 그를 침대에 눕힐 것이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분명 식물원에서도 성에 그 꽃을 바치러 올 거야. 그렇지?”

꼼짝 않고 방에 하루 종일 구금될 그의 미래가 눈에 선했다.

알테어는 고심 끝에 설계한 계획을 제 손으로 망치고 싶지 않았다.

“왕자님은 너무 착해요!”

다행히 그의 연기가 잘 먹혔는지 아무것도 눈치 채지 못한 시녀들이 그의 성숙한 모습을 추켜 세워줬다.

“맞아요, 조금쯤 욕심을 부려도 될 텐데.”

“이렇게 속이 깊고 상냥하시다니..... 왕자님은 정말 훌륭하세요!”

알테어는 저도 모르게 헛웃음을 흘릴 뻔했다.

세상에나. 그가 착하고 상냥하다니.

대륙의 착하고 상냥한 이들은 다 죽은 게 분명했다.(데네브라면 분명 이 농담에 웃어줄 거라고 알테어는 생각했다.)

오전에 장미와 함께 보낸 전갈은 채 한 시간도 지나지 않아서 답이 왔다.

태양이 주는 열기가 가라앉는 오후 5시쯤 만나자는, 허락의 편지였다.

게다가 동봉한 꽃다발이 마음에 든 것인지 편지의 끝엔 멜비나 왕비의 친필서명이 들어가 있었다.

"정말 잘됐네요, 왕자님!"

알테어의 어깨 너머로 왕비의 답을 본 시녀들이 손뼉을 치며 기뻐했다.

"왕자님이 보내신 장미를 왕비님이 마음에 들어하신 게 분명해요!"

"그렇까? 그렇다면 정말 다행이다."

그래, 정말 다행이었다.

알테어는 지금 이 상황이 진심으로 기뻐다.

지금쯤이면 알테어가 왕비와의 티타임을 일주일이나 앞당긴 사실이나 그가 편지에 적은 '꼭 하고 싶은 말'에 대한 내용이 레굴루스의 귀에 들어갔을 게 분명했다.

알테어는 불안함에 발을 동동 구르고 있을 아버지의 모습을 흰히 그려볼 수 있었다.

어쩌면 그는 너무나 불안한 나머지 두 사람만의 티타임에 난입해 들어올 지도 몰랐다.

상상만으로도 즐거워 알테어는 눈꼬리까지 휘며 환히 웃었다.

알테어의 계획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는 보다 강도 높은 불안감을 레굴루스에게 선사하기 위해 약속시간보다 훨씬 이른 시간, 그러니까 편지를 받은 직후 자리에서 일어났다.

"마차는 필요 없어."

외출할거라는 그의 선언에 마차를 준비하려는 시종을 만류하며 알테어가 말했다.

"날이 좋으니 걸어서 갈게. 주변을 좀 산책하고 싶어. 그리고 이르게 도착하는 게 늦게 도착하는 것보다 훨씬 낫잖아."

"산책이요? 이 날씨에? 그리고 왕비님의 거처까지 걸어간다고요?"

"그건 안 돼요 왕자님! 왕비님의 거처까지 걸어가기엔 거리가 너무 멀어요!"

걸어가겠다는 그의 말에 시종들이, 특히 알테어의 뒤를 따라야 하는 이들이 기겁하며 그를 만류했다.

그들의 얼굴엔 이렇게 더운 시간에 태양 아래를 걷는 고역을 겪고 싶지 않다는 기색이 역력했다.

"그리고 산책이 길면 분명 왕비님 앞에 서기도 전에 지치실 거예요."

"맞아요. 게다가 왕자님이 혹시 피로를 견디지 못하고 쓰러지거나 하신다면..... 으아, 상상하기도 싫어요!"

"왕비님도 왕자님이 쓰러지는 모습은 보고 싶지 않으실 거예요! 마차를 타도록 해요, 왕자님. 네?"

알테어는 희미하게 웃었다.

수다스럽고 주인을 편하게 여기는 사용인을 가지면 이래서 안 좋았다.

그들은 고작 말 몇 마디로 알테어를 자신의 입맛대로 휘둘러 수 있을 거라 생각했다.

전부 주제넘은 건방진 소리라고 알테어는 생각했다.

"흠, 알았어."

하지만 아직 자신을 위한 사람도 세력도 없는 알테어로선 평소처럼 그들의 조언 아닌 조언을 따라야 했다.

"그럼 4시 반쯤 마차를 끌고 도서관 앞으로 와줘."

벌써 머릿속에서 알테어는 그들의 목을 몇 번째 비틀고 있는지 몰랐다.
너무 자주 일어나는 일이어서 그런지 그의 생각과 말은 자연스레 따로 놀았다.
아무도 알테어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몰랐다.
설마 그들은 이 어린 소년이 자신들의 목과 몸을 분리하는 끔찍한 광경을 그
리고 있을 것이라곤 곧 죽어도 모를 것이다.

"도서관에서 책을 읽다 갈게. 그거라면 괜찮지?"

독서가 취미인 알테어가 도서관에 하루 종일 틀어박혀 책을 읽는 건 언제나
있던 일이었기에 아무도 그 말을 이상하게 여기지 않았다.
더불어 도서관까지는 건물과 건물 사이 연결된 회랑을 통해 갈 수 있었다.
긴 시간을 걸어도 그늘 아래를 걸을 수 있다는 사실에 시종들은 알테어의 결
정을 쌍수 들고 환영했다.

"물론이죠!"

"오늘도 책을 빌리실 거죠? 금방 준비할 테니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알테어를 따라야하는 시종들이 그제서야 안심했다는 듯이 편안한 미소를 지었
다.

바빠 움직이며 외출준비를 하는 그들의 면면을 보며 알테어는 기가 막혀왔다.
그의 거처에서 도서관까지의 거리는 왕비의 거처로 가는 것보다 훨씬 더 멀었
다.

그의 시종들은 단순히 퇴락별 아래서 걷고 싶지 않았던 것이다.

이 순간 알테어는 또다시 제 존재의 가치를 의심할 수밖에 없었다.

주위에 사람이 이렇게나 많건만 자신의 존재가 그들에게 아무것도 아니란 사
실을 깨닫는다는 것은 그를 점점 더 비참하게 만들뿐더러 한층 더 외롭고 냉혹
한 인간으로 만들었다.

그 증거로 알테어의 머릿속에서 그려지는 상상은 점점 더 잔혹해져 가고 있었
다.

레굴루스가 조심스럽고 의심 많은 성격인 것은 유전이 아닌 만들어진 환경에
의한 결과일 거라고 알테어는 생각했다. 아니, 확신했다.

지금의 자신도 주변의 인물들을 쉬이 믿지 못하고 있지 않은가.

* * *

비르마스 왕실 도서관은 왕성 내에서도 제법 깊은 곳에 위치한 건물이다.

다른 건물보다 천장이 특히 높은 것이 특징인데 왕실 도서관답게 책이 많은 건 물론이고 관리가 철저했다.

책을 오랫동안 보존하기 위해 도서관의 실내는 사계절 내내 어둡고 초가을 같은 서늘한 온도를 유지했다.

이 때문인지 여름엔, 특히 해가 뜨거운 한낮엔 성에서 근무하는 여러 귀족들이 더위를 피하기 위해 도서관으로 발을 들이곤 했다.

서가 사이사이를 돌아다니는 알테어도 그 중 한 명처럼 보였다.

마주하는 몇몇 귀족들과 조용히 인사를 나누며 알테어는 경제학에 흥미가 있는 척 책장을 둘러보았다.

"빌리."

흥기로 쓸 법한 두꺼운 책을 책장에서 꺼내던 알테어가 제 뒤를 따라오고 있던 이의 이름을 불렀다.

알테어는 제 시종을 드는 이들의 이름을 전부 알고 있었다. 출신 가문과 배경은 물론이고 가족이나 친구관계, 심지어 알아서는 안 될 은밀한 비밀까지도 알았다.

놀랄만한 일은 아니었다.

그의 사용인들이 떠들어대는 이야기의 주제엔 한계가 없었다.

특히 누가 누구에게 반했네, 눈이 맞았네, 머리채를 잡고 싸웠네, 따위의 이야기들은 하루에도 수십 건씩 들려왔다.

사실 알테어로선 이런 가십거리까진 알고 싶진 않았지만 듣기 싫어도 들려오는 걸 막을 수 없었다.

이 빌리라는 이름을 가진 시종도 이런 시답지 않은 소문의 대상 중 한 명이였다.

"네, 넷?"

카르셋 자작가의 서자는 알테어의 부름에 화들짝 놀라 어깨를 떨었다. 지루함에 딴 생각이라도 하고 있었던 모양이다.

“여기 있지 말고 너도 다른 이들처럼 잠시 밖에서 쉬는 게 어때?”

멍청하게 굳어진 그의 얼굴을 한심하게 여기지 않으려 노력하며(더 정확히는 제 감정이 얼굴에 드러나지 않도록 노력하며) 입가에 부드럽게 호선을 그린 알테어가 물었다.

“아니면 미뤄뒀던 볼일을 보던가. 모처럼의 휴식 시간인데 하고 싶은 일이 있을 거 아냐.”

“아, 아뇨! 그럴 리가요! 그, 그런 거 없어요.....”

처음엔 큰 목소리로 소리치던 그는 이내 여기가 도서관이란 사실을 떠올리곤 아차 싶었는지 황급히 말을 줄였다.

“제 임무는 왕자님을 보필하는 일인 걸요.”

알테어는 소리 없이 웃음을 터트렸다.

그는 거짓말을 정말로 못했다.

특히 표정관리가 전혀 안 됐다.

알테어는 빌리가 제게 입에 침도 안 바르고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사실에 화를 내야 할지 그도 아니면 그의 거짓말을 빠르게 파악할 수 있어 안심해야 할지 감이 잘 오지 않았다.

그 정도로 알테어는 지금 이 상황이 우스웠다.

“다른 이들은 다 밖에서 쉬고 있잖아.”

도서관에 많은 이들을 데리고 움직이기 싫다는 이유로 알테어는 빌리를 제외 하곤 다른 이들에게 자유시간을 준 상태였다.

물론 도서관 안으로 데려갈 인물로 빌리를 지목한 건 의도적인 선택이었다.

그 때 그가 지었던 표정을 다시금 곱씹어 본 알테어는 치미는 혐오감과 빈정 거림을 꼭 참아야 했다.

“난 한동안 도서관에서 책을 읽을 거야. 어디 안 간다고.”

“하지만.....”

“잠시 자리를 비우는 것 정도는 괜찮잖아? 나도 책 정도는 혼자서 읽고 싶으니까.”

“음.....”

거짓말도 못하고 혼자서 어린 소년을 보좌하고 있는 일이 지루해 미치겠는 주제에 빌리는 제법 끈질겼다. 아니면 단순히 결단력이 없을 뿐이던가.

“그럼 이렇게 하자.”

울컥 올라오는 짜증스러움을 감추며 알테어는 결국 아껴두었던 카드를 꺼내기로 했다.

“네가 내 심부름을 하는 거야.”

“심부름이요?”

“그래. 너무 걱정 마, 간단한 거야. 지금 당장 궁으로 돌아가 이 쪽지를 사라에게 전해주기만 하면 돼.”

‘사라’라는 이름에 베르넬 자작가의 넷째 딸에게 한 눈에 반했다고 소문이 자자한 빌리의 눈동자가 지진이라도 난 것 마냥 흔들렸다.

애초에 이것이 알테어가 빌리를 도서관 안으로 데리고 온 이유이기도 했다.

사라를 이용한다면 그는 이 성가신 시종을 손쉽게 떼어내 혼자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을 터였다.

“빌리, 넌 그냥 내 심부름을 하는 것뿐이야. 그게 좀 긴 심부름일 뿐이지.”

빌리의 손에 종이를 쥐어주며 알테어가 은근한 목소리로 속삭였다.

“이거면 네가 잠시 심부름을 하다 딴 길로 새다 와도 아무도 모를 거고 나는 혼자서 즐겁게 독서를 즐길 수 있어. 어때? 서로에게 좋은 일이지?”

“어, 하지만, 그렇지만.....정말 그래도 되는 거예요?”

“물론이지. 내 명령이잖아?”

알테어가 눈꼬리를 접으며 환히 웃었다.

왕비, 멜비나를 닮은 그의 푸른 눈동자는 유리구슬보다도 투명하고 맑아 지금 이 순간 더없이 순수하고 순진무구해보였다.

“시종이 모시는 주인의 명령을 어기는 게 더 이상하지 않겠어?”

“아, 그것도 그러네요.”

사라라는 이름에 이성을 잃은 빌리가 알테어의 말도 안 되는 헛소리에 동조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다녀오겠습니다, 왕자님.”

그의 멍청함에 알테어는 웃음이 나오려는 걸 꺾 참아야 했다.

“꼭 도서관 안에만 있으셔야 해요!”

“그럼, 물론이지. 잘 다녀와, 빌리.”

알테어는 친히 도서관의 뒷문을 열어 그를 배웅해주었다.

뒷문으로 나갔으니 빌리는 그만큼 도서관을 뺑 돌러가야 했다.

약간이지만 그 시간만큼 알테어는 혼자 있는 시간을 더 번 셈이었다.

“아르시어스 경.”

혼자가 되자마자 알테어는 발 빠르게 서가 사이를 오가며 체크하던 인물들 중 한 명에게 다가갔다.

키가 크고 마른, 창백한 안색을 가진 남자가 알테어의 부름에 고개를 돌렸다.

“오랜만이에요.”

아르시어스 티르엘 펠릭스.

재무부의 악마로 유명한 재무대신, 펠릭스 후작의 장남이자 재무부의 서류, 특히 각 영지에서 올라오는 세금 서류를 보관하는 담당자였다.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케틀렉 공작과 멜비나 왕비에게 비밀을 털어놓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을 심어 줬으니 이제는 레굴루스가 그토록 아끼는 인물에 대해 알아볼 시간이었다.

다헬 남작 부인.

이름도 출신도 모르는, 그러나 레굴루스에게서 왕의 가면을 벗긴 그 정체불명의 여자에 대해 말이다.

13. 열 살, 권모술수, 여름(3)

“아.....알테어 왕자님.....”

귀엽고 순진무구한, 더불어 사랑스럽기 그지없을 알테어의 미소를 마주하고서도 펠릭스 후작가의 후계자, 아르시어스는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다.

아니, 어째서인지 그는 알테어를 향한 짜증스러운 기색을 감추지 못하고 있었다.

알테어는 창백한 남자의 얼굴에 새겨진 일그러진 미간과 비틀린 입매를 눈에 담았다.

선명한 그의 녹색 눈동자 속에는 귀찮다는 기색이 역력히 아른거리고 있었다.

“예에, 그렇.....군요. 이게.....대체.....얼마 만에 뵙는 거였죠?”

반가움보단 성가심을, 호의보단 적의에 가까운 감정을 드러내며 아르시어스가 느릿느릿한 몸짓으로 그를 향해 허리를 숙였다.

“아주.....아주, 오랜만에 뵙습니다. 알테어 왕자님.....”

알테어는 당황스러웠다.

그가 아르시어스와 마주한 건 레굴루스의 생일이나 신년제 같은 큰 파티나 공식 석상에서가 전부였다.

알테어는 마주하는 모든 어른들에게, 특히 성 내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겐 순하고 사랑스럽게 굴었으니 그가 아르시어스에게 실례되는 행동을 했을 리도 없었다.

한마디로 아르시어스가 이렇게까지 알테어를 못마땅하게 여길 이유가 없다는 뜻이다.

“건강하게 잘 지내고 계신 거 같아.....다행입니다.....”

아르시어스의 거짓말은 빌리처럼 서툴지도 데네브처럼 희극적이지도 않았다.
오히려 그는 온 몸으로 자신이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걸 드러내는 타입이었다. 마치 제 거짓말을 못 알아차리는 쪽이 바보라는 듯이.

“이렇게.....만나 뵈게 되어 정말, 정말로.....기쁩니다.....”

길고 느릿하게.

듣는 이의 신경을 묘하게 거슬리게 하는 독특한 속도로 아르시어스가 말했다.
알테어는 입술 사이로 새어나오는 헛웃음을 감추기가 어려웠다.
기가 막혔기 때문이다.

아르시어스는 지금 이 순간 알테어와 만났다는 것 이상의 불행한 일을 겪은 적이 없다는 분위기를 풍기고 있었다.

온 몸으로 이 자리에 선 스스로에게 실망감을 표하며 지금 당장이라도 그의 앞에서 사라지고 싶어 하는 아르시어스의 모습을 보고 있자니 알테어는 과거의 제가 대체 그에게 뭘 잘못된 건가 싶었다.

“아르시어스 경.”

당사자, 그것도 왕자인 그의 앞에서 이렇게 대놓고 불만을 표하는 사람은 많지 않았다.

더불어 이런 독특한 방식으로 자신의 의견을 표하는 사람은 처음인지라 알테어는 화가 나기 보단 의아하고 어이가 없었다.

“제가 불편하신가요?”

찌푸려진 남자의 얼굴을 향해 생글생글 웃고 있던 알테어는 결국 돌직구를 던질 수밖에 없었다.

“저와 이 자리에 있는 게 싫으신 거 같은데, 제가 당신께 무슨 결례라도 저질

렸었나요?”

아르시어스 티르엘 펠릭스는 이번 알테어의 작전에서 한 손가락에 꼽히는 최
중요 인물이었다.

개인적인 궁금함은 둘째치더라도 그를 통하지 못하면 다헬 남작 부인에 대한
것도 알아낼 수 없었기에 알테어는 조금이라도 그에 대해 알아둬야 했다. 그가
왜 자신을 못마땅해 하는 것까지 포함해서.

“예.....그렇, 습니다.....”

“왜요?”

아까처럼 뻔뻔하게 거짓말을 들이밀 줄 알았는데 의외로 그는 솔직하게 알테
어의 물음에 긍정했다.

유전인 건지 갓 성인이 된지 얼마 되지 않은 아르시어스의 눈 밑엔 펠릭스 후
작만큼이나 짙은 다크서클이 내려앉아 있었다.

그 때문인지 폐부 깊숙한 곳에서부터 숨을 끌어다 내뿜는 그의 얼굴은 무척이
나 피로해보였다.

“그야 알테어님께서.....제게 무언가 원하시는 게 있으시니까요.....”

느릿하게 끄는 말투와 더불어 희게 질린 얼굴이 얼핏 보면 당장 쓰러져도 이
상하지 않을 모습이다.

아르시어스가 뼈가 드러난 메마른 양 손 안에 제 얼굴을 묻었다.

알테어는 그가 눈으로 보는 것 이상으로 말랐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아니라고, 거짓말은.....하지마세요.....”

손 안에 얼굴을 묻은 아르시어스가 웅얼거렸다.

“근 몇 년간.....매일 같이, 도서관을 드나들었지만.....왕자님이 제게, 먼저 말을 건 건.....이번이.....처음이잖습니까.....”

“.....”

“달리.....원하시는 게 있지 않고서야.....그것도 혼자서.....제게 오실 리 없으시잖아요.....”

틀린 말은 아니었기에 알테어도 굳이 거짓말을 하지 않고 어깨만 으쓱였다.
아르시어스가 손에서 얼굴을 떼었다.
피곤해 보이는 기색이 역력한 그의 얼굴이 이제는 짜증을 넘어 고통으로 물들었다.

“저한테, 무얼 바라시는 건지는.....모르겠지만.....그냥 절 놔두세요..... 저는..... 알테어님이 원하는 걸.....들어 줄 능력이, 없어요.....”

“아르시어스 경?”

“왜냐하면, 저는, 이제.....글렀거든요.....”

털썩.
한없이 위태로워보이던 그의 신형이 결국 무너졌다.
그의 가는 팔에 들려 있던 책들은 바닥에 흩어졌고 아르시어스의 몸은 바닥과 하나가 되어 꿈쩍도 하지 않았다.

“아르시어스 경!”

진짜로 그가 쓰러질 줄은 몰랐던 알테어는 크게 놀랐다.

“정신 차려요, 아르시어스 경!!”

“부디.....이 서류를.....아버지에게.....저는, 최선을 다했다고.....전해 주.....세.....”

툭.

바들바들 떨리던 마른 가지 같던 손까지 힘없이 바닥으로 떨어지자 알테어는 머릿속이 새하얗게 변함을 느꼈다.

누군가가 그의 앞에서 이토록 무력한 모습으로 쓰러지는 건 너무 오랜만의 일인지라 그 때처럼, 알테어는 당황스러움에 손가락하나 까딱하지 못했다.

사람을 불러 도움을 요청해야겠다는 생각조차 들지 않았다.

희디 흰 아르시어스의 얼굴이 꼭 언젠가 본 시체의 얼굴을 떠올리게 했다.

알테어는 어느새 저도 모르게 넋을 놓은 채 그의 이름만을 부르고 있었다.

“아르시어스 경, 아르시어스 경, 아르시.....어?”

겨우 떨리는 손끝으로 남자의 몸을 미약한 힘으로 흔들고 있던 알테어는 문득 손가락 끝에 축축한 숨결이 닿음을 느꼈다.

‘살아 있어.’

정말 다행스럽게도 아르시어스는 숨을 쉬고 있었다. 아니, 다행인 것 그 이상이었다. 아르시어스는 자고 있었다.

“.....”

눈앞에서 일렁이던 과거의 기억에서 벗어나 냉정함을 되찾자 알테어는 그가 고른 숨을 내뿔으며 어디 하나 고통스러운 표정 없이 누워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더불어 재무부가 다른 부서에 비해 일이 많다는 사실 역시.

‘.....젠장, 이 인간이!’

아르시어스는 과도한 업무를 처리하느라 수일간의 철야로 인한 수면부족으로 쓰러진 것이다.

이토록 빠른 사실을 한 발 늦게 떠올렸다는 사실에 알테어는 부끄러움을 느꼈다.

“일어나요, 아르시어스 경.”

상처 입은 자존심이 그의 신경을 쿵쿵 건드렸다.

알테어는 손을 들어올렸다.

아무도 보진 않았겠지만 할 수만 있다면 그는 방금 전 있었던 일을 아예 없었던 일로 만들고 싶었다.

짜!

아니, 적어도 그의 기억 속에서만 지울 수 있어도 행복할 것이다.

“이런데서 주무시면 안 돼요.”

짜!

하지만 그럴 수 없었다. 통탄스럽기 그지없는 일이었다.

알테어는 그 조막만한 손 위에 온갖 울분을 다 담아 아르시어스의 뺨을 내리쳤다. 알미워 죽겠다는 감정이 그의 새파란 눈 안에서 휘몰아쳤다.

“일어나요!”

짜!

* * *

“그냥 그대로 자게 놔두시지 그러셨습니까.....”

새빨강게 부은 얼굴을 한 아르시어스가 통명스레 입을 열었다.
화끈거리는 볼이 아프기는 한 건지 그는 알테어가 건넨 물에 적신 손수건을
거절하지 않았다.

“그런데서 자면 입 돌아가요.”

“왕자님이 때리신 것 때문에 이미 제 입은 돌아간 것 같은데요.”

차가운 손수건을 볼에 가져다대며 아르시어스는 온갖 엄살은 다 떨었다.
점심시간이 훌쩍 지난 시간인지라 도서관 내에 사람이 없다는 사실에 알테어
는 감사함을 느꼈다.
지금의 그는 아르시어스를 향해 표정관리를 하기가 무척이나 어려웠기 때문이
다.

“지금 왕자님 표정을 다른 이들이 봐야 하는데 이 귀한 장면을 저만 보게 되다
니.....심히 안타깝군요.”

전혀 아깝지 않다는 얼굴로 아르시어스가 알테어를 향해 빈정댔다.
평소 조용조용하고 심약해보이던 그가 이런 성격을 감추고 있을 줄은 몰랐다.

“영광으로 여기세요.”

알테어는 어린 자신을 상대로도 솔직하게 신경질을 부리는 아르시어스가 솔직
하게 말해 마음에 들었다. 아르시어스는 그를 마음에 들어 하지 않는 것 같았지
만.

“이 모습을 본 건 당신이 두 번째니까요.”

“그 불행한 첫 번째 인물이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삼가 조의를 표합니다.....”

“.....”

알테어는 방금 전 생각을 취소했다. 마음에 든다기보다는 나쁘지 않은 것으로. 순순히 마음에 들어 하기에 아르시어스는 몹시도 알미웠다. 처음 데네브를 마주했을 때보다 더 알미운 것 같았다.

“그보다 이 사탕, 효과가 좋군요.”

‘맛은 끔찍하지만.’ 이란 말은 표정으로 대신하며 아르시어스가 미간을 찌푸렸다.

알테어는 정신을 차린 그에게 데네브에게서 받은 사탕을 나눠주었다. 사탕의 충격적인 맛이 잠을 깨우는데 도움을 줄 거라는 계산에서였다.

“어디서 구하셨습니다까? 가능하다면 제 책상에 쌓아두고 싶을 정도네요.”

예상대로 사탕을 입에 넣자마자 반쯤 감겨 있던 아르시어스의 눈이 번쩍 떠졌다.

목소리도 더는 늘어지지 않았는데 여태 비틀거리며 미묘하게 말꼬리를 늘렸던 건 다 졸렸기 때문인 모양이다.

“일이 많으신가본데 재무부에 인력이 충분치 않은 가요? 제가 알기론 지난달에 재무부에만 인력을 따로 보충했던 거 같은데.....”

“그야 머릿수는 늘었죠.”

혐오감을 감추지 않으며 아르시어스가 눈을 빛냈다.

“하지만 그게 쓸 수 있는 인력이 늘었다는 뜻은 아니니까요.”

“새 부하들이 마음에 들지 않나보군요.”

“그들에게 제 일을 맡기느니 차라리 제가 과로로 앓고 말죠. 그래서 이 사탕은 대체 어디서 구할 수 있는 겁니까?”

알테어는 이제야 아르시어스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 대충이나마 윤곽을 잡을 수 있을 것 같았다.

아르시어스는 알테어를 싫어하는 게 아니었다.

그는 기본적으로 사람을 귀찮아했다.

타인을 향한 불신은 강했고 자신의 능력에 대한 자부심이 높았으며 새 부하들에 대한 가차 없는 평가를 보면 약간은 완벽주의적인 성향도 있는 것 같았다.

알테어의 옆에서 사탕에 대한 정보는 열심히 캐물어도 뺨을 때린 일은 두 번 입도 병긋하지 않는 걸 보면 일의 효율성을 중시하고 제 이익을 위해서라면 원한도 잠시 접어들 수 있는 타입이었다.

꽤 좋은 걸 알았다고 알테어는 생각했다.

사실은 한 성깔 한다는 사실을 포함해 역시 그는 아르시어스가 마음에 들었다.

그러나 데네브와는 달리 이 완벽주의자에 인간불신자가 알테어를 그의 선안에 들일 확률은 극히 낮았다.

자신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뿐더러 정치 상 애매한 위치에 있으니 가능하다면 가까이 다가가고 싶어 하지도 않을 것이다.

‘특pecially 내게 악감정이 없다면 그걸로 됐어.’

이런 경우야 성 내에선 수도 없이 겪어왔으므로 알테어는 상처받지 않고 도리어 뻔뻔하게 이 상황을 기회로 삼았다.

“아르시어스 경. 저랑 거래하실래요?”

검은 머리칼 사이로 보이는 알테어의 눈동자가 어두운 조명 아래서 기이하리 만치 새파랗게 빛났다.

아르시어스는 저도 모르게 몸을 움츠렸다.

기둥에 비스듬하게 몸을 기울인 어린 왕자가 한 순간, 몹시도 위험해보였기 때문이다.

긴장한 아르시어스의 모습에 알테어가 작게 키득거렸다. 그는 품 안에서 꺼낸 작은 통 하나를 흔들며 보였다.

“제 부탁을 들어주신다면 이 통 안에 든 사탕을 전부, 당신에게 드리죠.”

꽤 많은 양의 사탕이 들었다는 것을 증명하듯이 흔들리는 통 안에는 묵직한 소리가 울려 퍼졌다.

“순순히 알려주실 생각은 없나보군요.....”

사탕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지 않으려는 알테어의 모습에 아르시어스가 작게 한숨을 쉬었다.

“일단 무슨 부탁인지 먼저 들어보죠.”

하지만 저것만이라도 가지고 싶은지 그는 어깨를 으쓱이며 거래에 응하려는 모습을 보였다.

“거래는 그 다음입니다.”

알테어는 절로 올라가는 제 입꼬리를 막을 수 없었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그의 작전대로였다.

14. 열 살, 권모술수, 여름(4)

“무엇을 원하십니까?”

“이 서류.”

쓰러지기 전, 아니 잠들기 전 아르시어스가 알테어를 향해 건넸던 서류뭉치였다.

알테어가 아르시어스를 만나기 전 집어 들었던 책보다 훨씬 더 두꺼운, 그야말로 살인적인 정보량을 자랑하는 이 서류에는 각 지방에서 납부한 올해 세수와 특산품 품목, 그리고 영주들의 신상명세가 간단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내일 회의에 쓸 자료인 거죠? 전 이걸 원해요.”

의심 가득한 아르시어스의 눈을 마주하고서도 눈 하나 깜짝 안하며 알테어가 말했다.

“이 서류와 제 사탕을 교환하죠. 어때요?”

그의 표정을 대충 해석하자면 ‘저게 대체 왜 필요하지?’ 정도 될 것이다.

알테어는 느긋하게 아르시어스의 대답을 기다렸다.

아마 지금쯤 그의 머릿속은 알테어의 진의를 파악하기 위해 바쁘게 돌아가고 있을 터였다. 안 봐도 뻔했다.

“어차피 이건 복사본이잖아요? 원본은 따로 보관되어 있죠? 그럼 저한테 줘도 상관없지 않나요?”

“.....”

아르시어스는 대답하지 않았다. 알테어의 말이 사실이기 때문이다.

왕자인 그가 봐도 문제없는 내용이기에 더더욱, 아르시어스는 알테어가 왜 그에게 이런 '응할 만한' 교환 조건을 걸은 것인지 의심스러워하고 있었다.

".....그게 왜 가지고 싶으신 겁니까?"

"요즘 각 지방에서 내는 세금과 특산품에 흥미가 생겼거든요."

준비해 둔 거짓말을 표정하나 바꾸지 않고 뱉으며 알테어가 어깨를 으쓱였다.

"여기 이 서류에 적힌 자료들은 도서관에 있는 그 어떤 자료보다 생생하고 가치 있는 정보잖아요? 안 그래요?"

"예에.....그야, 그렇죠....."

다시 느릿하게, 자신만의 독특한 리듬으로 아르시어스가 말꼬리를 늘였다.

알테어는 그가 생각할 시간을 벌기 위해 대답을 끌고 있음을 알아챘다.

"어린 나이이심에도 학문의 연찬을 소홀히 하지 않는 자세.....정말 훌륭하십니다, 알테어님."

흠을 찾아볼 수 없는 대답, 응해도 서로에게 이득을 줄 수 있는 조건.

보통 사람이라면 덩석 물어도 이상하지 않을 이 이상적인 상황에서 아르시어스는 망설였다.

어지간히도 알테어의 의도를, 아니 알테어 자체를 불신하고 있는 모양이다.

"폐하께서도.....알테어님의 이러한 품행을 아신다면.....분명 크게 기뻐하실 겁니다....."

칭찬을 하는 척 알테어의 행동을 지켜세우고 있지만 풀이하자면 지금 이 대화를 왕인 레굴루스에게 전하겠다는 뜻이다.

‘걸렸다!’

알테어에게 있어선 바라 마지않던 대답이었다.

“기뻐하는 아버지의 모습이라니..... 어쩐지 상상이 잘 안 가네요.”

물 흐르듯 매끄럽게 진행되는 계획에 너무 좋아하는 티를 내지 않으려 애쓰며 알테어가 말했다.

“그래도 아버지가 기뻐해주신다면 다행이네요. 제가 이런 행동을 하는 게 나쁜 건 아니라는 뜻이니까요.”

지금 알테어가 하는 행동이 레굴루스에게 있어 얼마나 사악하고 비열한 행동인지 아르시어스가 알 리 만무했다.

긴가민가하는 아르시어스를 보며 알테어는 평소처럼 사랑스럽게 웃어보였다.

생각대로 일이 진행되어 간다는 성취감과 눈앞의 의심 많은 남자를 속이고 있다는 희열감이 동시에 느껴졌다.

알테어는 아플 정도로 손을 한 번 꼭 쥐었다 폈다.

‘아직 끝나지 않았어.’

냉정해야 했다.

성공이 눈앞에 보이면 보일수록, 신중하고 또 신중해야했다.

그것이 레굴루스가 울프렉 백작에게서 받은 가장 첫 번째 가르침이었다.

“그럼 아르시어스 경. 저랑 이 거래 하시겠어요?”

“.....아니요.”

한참을 재듯이 알테어의 면모를 훑던 아르시어스가 작게 속삭이듯이 말했다.
뭔가 잘못된 건가 싶어 순간 알테어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 서류는 알테어님께 그냥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아르시어스는 다시 입을 열어 말을 이었다.

“왕자님의 견식을 높이는데 나서서 도움을 주진 못할망정 그걸로 개인적인 이득을 취하다니.....신하로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니까요.”

느릿하게 허리를 숙여 예와 의심을 동시에 표하는 아르시어스를 보며 알테어는 진심으로 안타까움을 감출 수 없었다.

알테어는 그가 마음에 들었다. 아니, 마음에 드는 것을 넘어 아르시어스가 자신의 사람이었으면 했다.

만약 그에게 이 의심 많은 사내를 쫓아낼 수 있을만한 매력이나 권력이 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지만 그는 가진 게 없었기에, 하물며 그의 마음을 움직일만한 착한 품성이라든가 제왕의 카리스마 따윈 더더욱 없었기에 어쩔 수 없이 알테어는 지금 그가 남자에게 줄 수 있는 유일한 물건을 건넸다.

“그럼 이건 당신의 호의에 대한 제 선물이 되겠군요.”

알테어가 건넨 사탕 담긴 통을 받아든 아르시어스는 어쩐지 혼란스러운 표정이었다.

거래를 포기했는데 설마 물건을 받을 거라곤 예상치 못했던 모양이다.

“고마워요, 아르시어스 경. 당신의 선의가 제겐 많은 도움이 되었어요.”

“.....알테어님의 도움이 되었다니.....영광이군요.”

그 대답에 알테어는 소리 없이 웃었다.

웃음을 참을 수가 없었다.

그가 준 도움이 어떤 형태인 것인지 아르시어스는 아마 끝내 알지 못할 것이다.

알테어는 가벼운 인사와 함께 아르시어스에게서 멀어졌다.

코너를 꺾어 그의 시야에서 사라지는 그 순간까지 알테어는 등 뒤로 아르시어스의 시선을 느꼈다.

‘여전히 의심은 거두지 않았나보네.’

이러니저러니 해도 이루고자 하던 목적은 달성했다. 일단은 그 사실만으로 만족하자고 알테어는 생각했다.

알테어는 사람들의 눈을 피해 인적 드문 2층, 구석진 창가 아래 몸을 숨겼다.

작은 몸을 이용해 그늘 아래 숨은 그의 손 안에서 두터운 종이더미가 빠르게 넘어갔다.

‘설마 진짜로 받게 될 줄이야.’

사실 알테어는 아르시어스가 거래를 응하든 응하지 않던 상관없었다.

그의 목표는 자신이 아르시어스에게 접촉했다는 사실, 그 자체를 레굴루스가 알게 하는 것이었으니 말이다.

‘애초에 아르시어스가 거래에 응할지 말지 망설였을 때부터 원하던 것은 다 이룬 셈이지.’

이 서류를 얻은 건 그저 부과 산물일 뿐이었다.
얻으면 좋고 없어도 상관없는 그런 물건.

‘그런 물건을 사탕과 교환한 건 아깝긴 하지만.....나중에 데네브에게 더 달라고 하면 되니까.’

사탕의 끔찍한 맛과 효과를 동시에 떠올리던 알테어는 다시 서류로 눈을 돌렸다.

‘다헬, 다헬 남작 부인.....’

알테어가 다헬 남작 부인의 영지와 관련된 정보를 알아내려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레굴루스는 과연 어떤 표정을 지을까.

열이 치밀어 올라 뒷 목을 잡으며 화를 낼 수도 있었고 창백하게 질린 얼굴로 꼼짝 않고 굳어져 있을 수도 있었다.

아니면 이 모든 일들이 저와는 아무 상관도 없는 일이라는 것마냥 태연자약한 표정을 지으며 무관심하게 굴 수도 있었다.

하지만 그가 어떤 반응을 보이든 알테어는 상관없다고 생각했다. 어느 쪽이든 레굴루스가 알테어를 완전히 무시하기란 어려울 터였으므로.

물론 레굴루스가 당장 이 사실을 알아차릴 리는 없었다.

그러나 적어도 내일, 늦어도 모래 중엔 이 소식을 접하리라 알테어는 확신했다.

내일 오전 중엔 재무대신인 펠릭스 후작이 주관하는 성 내 각 부서의 예산 분배와 관련된 회의가 있었다.

3개월에 한 번씩 열리는 이 회의는 왕인 레굴루스는 물론이고 개국공신인 케틀렉 공작과 셀시우스 후작을 비롯한 대귀족들이 많이 참석하는 큰 회의였다.

재무부가 주관하는 회의인데다 차기 재무대신으로 꼽히는 아르시어스가 거기에 참석하지 않을 리 없었다.

‘전(全) 영주들의 자료가 모여 있어 역시 찾기가 어렵네. 적어도 어느 지방 사람이지만 알면 찾기가 더 수월했을 텐데.....’

서류를 빠르게 넘기는 한편 알테어는 생각했다.

아르시어스는 알테어의 행동을 수상하다 여기고 있었다.

레굴루스에게 그의 거동을 보고하겠다고 간접적으로 표현한 이상 어떤 형태로든 오늘 있었던 일은 반드시 그의 귀에 들어갈 것이다.

언제, 어떤 루트를 통해 이 이야기를 듣던 가슴이 철렁할 아버지의 모습을 알테어는 쉬이 상상할 수 있었다.

이 은밀하고도 저열한 신경전의 가장 좋은 점은 알테어가 일방적으로 그를 몰아붙일 수 있다는 점이다.

성 내에는 종던 싫던 보는 눈이 많았다.

특히 왕인 레굴루스를 향하는 눈은 감히 열 손가락으로 다 꼽을 수 없을 정도로 많았다.

그런 그가 조금이라도 알테어에게 화를 냈다간 이 좁은 성 내에, 아니 더 소문이 어떻게 부풀려질지 모를 일이었다.

조심성 많은 레굴루스로선 바람이 불면 날아갈까, 길을 걸으면 넘어질까 싶어 애지중지하는 애인에게 조금이라도 타인의 이목이 집중될만한 사건은 일으키고 싶지 않을 것이다.

그러기에 그는 감히 알테어를 불러 그의 행동을 추궁할 수 없을 터였다.

“.....찾았다!”

마침내 찾게 된 이름에 알테어의 손과 시선이 멈췄다.

그는 저도 모르게 종이의 맨 꼭대기에 적힌 이름을 소리 내어 읽었다.

“캐서린 레븐 다헬.남쪽 지방 사람이었군.”

그녀는 5년 전, 남편인 필리우스 카펜 다헬 남작의 사망으로 남쪽 다헬-트윈로에서 지방의 영주가 된 여인이었다.

결혼 전에는 다우어, 라는 성을 썼는데 첨부된 문장원의 서류엔 이와 관련된 추가 서류가 따로 없는 것을 보니 영지를 하사 받지 못한 가문 출신인 것 같았다.

개혼이라고만 적힌 걸 보면 어느 이름 없는 기사가문의 장녀일 거라고 알테어는 추측했다.

다헬 가문의 문장은 말과 백합이었다.

실제로도 다헬-트윈로서는 대대로 품종 좋은 말을 기르는 데다 백합이 많아 향수나 비누, 압화 등의 백합과 관련된 상품이 많았다.

올해 다헬-트윈로서에서 낸 세금과 특산품 목록을 살펴보던 알테어는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레굴루스를 심적으로 압박할 수 있는, 좀 더 좋은 계획이 떠올랐다.

* * *

왕비, 멜비나와의 티타임은 각양각색의 꽃들이 흐드러지게 피어난 왕비궁의 정원, 그 한 가운데서 이뤄졌다.

정확히 알맞은 시간에 도착한 알테어를 멜비나는 평소와 같은 사무적인 태도로 맞이했다.

알테어 역시 처음 30분간은 지난 티타임 때와 크게 다를 바 없이 따분하고 지루한 날씨나 안부이야기를 늘어놓으며 대화를 이끌어나갔다.

대화의 양상이 변한 건 편지에 적은 '꼭 하고 싶은 이야기'에 대한 주제를 알테어가 꺼냈을 때였다.

“티파티를 열고 싶다고요?”

높고 고운 미성의 목소리가 놀라움을 담아 벌어졌다.

아들과 똑닮은 유리 같은 새파란 벽안이 크고 동그랗게 떠졌다.

알테어의 부탁이 그녀의 예상을 아득히 뛰어넘었음이 분명했다.

“네.”

굳어버린 멜비나와는 다르게 여유롭게 찻잔을 기울인 알테어가 부드럽게 대답했다.

가제보가 만들어내는 그늘 아래를 스쳐지나가는 바람이 알테어와 멜비나의 검은 머리칼을 흔들었다.

정원 가득 피어난 각양각색의 꽃들이 내는 향이 어지러울 정도로 짙었다.

향이 어찌나 강하던지 알테어는 차에서 나는 향을 거의 맡을 수 없었다.

“저도 나이가 있으니 슬슬 특정 영식들하고만 어울리는 건 그만둬야 할 거 같아서요.”

코를 간질이는 꽃향기에 기침이 내려는 걸 참으며 알테어가 아무 맛도 느낄 수 없는 차를 목구멍 너머로 넘겼다.

“그러려면 가볍게 티파티를 여는 게 가장 좋을 거 같은데 제 이름으론 처음 여는 파티이니 만큼 어머니의 도움을 받고 싶어요.”

“확실히, 그렇군요. 작은 파티라도 신경 써야 할 일이 무척 많으니까.....”

충격에서 벗어났는지 굳어졌던 몸을 움직여 정원을 향해 시선을 돌린 그녀가 속삭이듯 중얼거렸다.

“그래, 그럼 혹시 뭐 정해둔 게 있나요? 파티의 규모라든가 형식이라든가.....”

“아직이요.”

알테어가 답했다.

“하지만 테마는 정했어요.”

“오, 가장 중요한 걸 정했군요. 그래요.....그런 게 중요하죠. 원래 뭐든 가장 큰 틀을 정하고 점점 세세한 걸 정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테마는 무엇으로 정했나요?”

“백합이요.”

일순 가제보의 지붕을 흔들 정도로 거센 바람이 불어왔다.
그 강한 힘을 이기지 못한 몇몇 꽃들이 꽃잎들을 뽀아냈다.
연약하고 무구한 색색의 꽃잎들이 꽃밭 위를 물결치며 휘날렸다.

“백합만으로 이루어진 티파티를 꾸리고 싶어요.”

“백합.....”

흰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맞은편에 앉아 있던 멜비나가 찻잔을 어루만졌다.
채 서른도 되지 않은 젊은 여인의 눈이 보이지 않는 꽃을 그러보듯이 아득히 먼 곳을 향했다.

“여름과 잘 어울리는 예쁜 꽃이네요.”

“네.”

그녀, 멜비나만큼 꽃을 사랑하는 이는 이 성내에 없었다.
그렇기에 그 누구도 왕비에게 도움을 요청한 알테어를 이상케 여기지 않을 것이다.
비밀이 많은 그의 아버지, 레굴루스를 제외한다면.

15. 열 살, 권모술수, 여름(5)

그로부터 정확히 36시간 뒤, 알테어는 어머니, 멜비나로부터 한 무더기의 자료를 받았다.

양질의 백합을 구할 수 있는 영지와 대량의 꽃들을 유통하는 상인들의 신상이 적힌 서류였다.

알테어가 그 사이에서 다헬이란 이름을 발견하기까진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적어도 한 번씩은 만나보는 게 좋겠지?”

“이들을 전부 다 말씀입니까?”

“그래.”

각 인물들이 유통하는 백합의 종류와 수를 훑어보던 알테어가 다과를 들고 온 시종장의 물음에 답했다.

“너무 많지 않습니까?”

알테어의 어깨너머로 리스트에 적힌 인물들의 이름을 살펴보던 렉터가 못마땅하다는 듯이 눈살을 찌푸렸다.

“이런 별 볼일 없는 이들에게 왕자님의 시간을 굳이 할애할 필요가 있을까요?”

“.....음.”

렉터의 가문인 플라우스 자작 가도 사실은 왕자의 시종장이란 직책에 오를 정도의 지위를 가진 가문은 아니었다.

케틀렉 공작가의 먼 친척이 아니었다면, 아니 케틀렉 공작과 연이 닿지 않았다

면 언감생심 꿈도 꿀 수 없는 자리인 것이다.

혐오와 아이러니함을 동시에 느끼며 알테어는 렉터가 준비한 차에 손을 뻗었다.

“비공식적이어도 내가 주관하는 첫 파티잖아.”

어린이에게 어울리지 않는 차의 씩씩한 뒷맛이 알테어의 정신을 번뜩 차리게 만들었다.

“가급적이면 모든 게 완벽했으면 해.”

“분명 완벽할 거예요! 왕비님도 도와주시잖아요.”

말 많은 알테어의 사용인들 중에서도 특히 수다쟁이로 통하는 레베카가 흥분으로 잔뜩 볼을 붉힌 채 말했다.

알테어는 그녀가 자신의 거처에 발을 들인 첫날부터 지금까지 입을 다문 모습을 단 한 순간도 본 적이 없었다.

그렇기에 알테어는 레베카를 자주 제 곁에 두었다.

발도 넓고 사교성이 좋은 그녀는 성 내 도는 소문에 대해선 사소한 것 하나라도 모르는 게 없었다.

“다들 얼마나 왕자님의 티파티에 대해 말하고 다니는지 몰라요.”

“벌써 소문이 그렇게 났단 말이야?”

“그럼요!”

고작 하루 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소문이 나다니.

역시 성 내 사람들의 눈과 귀는 언제 어디에 열려 있을지 모를 일이었다.

“왕비님에게 직접 찾아가기까지 하셨잖아요! 그리고 왕자님이 주관하는 파티라니! 다들 얼마나 멋진 파티가 될지 떠들고 다닌 다고요.”

‘그거 잘됐네.’

터져 나오려는 본심을 아이는 쓴 맛 나는 홍차와 함께 삼켰다.
사교계 데뷔도 하지 않은 왕자의 티파티라니.
본래라면 자진해선 절대 하지 않을 성가시고 귀찮기만 한 이벤트였지만 이보다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그의 아버지를 몰아붙일 수 있는 방법도 없었다.

“내가 모두의 기대를 너무 높이는 건 아닌지 몰라.”

다헬 남작 부인과 만나는 순서는 언제쯤이 좋을지 머릿속으로 가늠하며 알테어가 곤란하다는 듯이 웃어보였다.

“고작 티파티일 뿐이잖아. 그것도 비공식적인. 내 또래의 어린애들이 잔뜩 몰려들 텐데 그게 뭐 대단하다고.....”

“에이, 그런 말씀마세요! 왕자님이랑 만날 수 있는 기회가 흔히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제가 듣기론 말이죠.....”

몸을 낮춘 레베카가 알테어의 귓가에 속삭였다.
그녀의 말을 좀 더 가까이서 듣기 위해 알테어는 기꺼이 레베카를 향해 몸을 기울였다.

“이 티파티가 사실은 미래의 왕비님을 구하는 자리라면서요?”

“그래?”

“아니에요?”

고작 하루 사이에 참 많은 이야기가 돈다고 알테어는 생각했다.
그리고 그 많은 이야기를 다 물고 온 레베카도 참 대단하구나 싶었다.
웃음을 참기가 어려워 알테어는 초승달마냥 휘어진 눈으로 레베카를 응시했다.

“처음 듣는 이야기인 걸?”

레베카 하르피아 루즈.
루즈 남작가의 둘째 딸인 열여섯 살 소녀의 볼이 알테어와 시선이 맞자 붉게
달아올랐다.

“다들 그렇게 이야기하던?”

“.....네.”

알테어는 레베카와 속삭이면 속삭일수록 방 안이 고요해짐을 느꼈다.
방 안에 있던 시종들이 두 사람의 대화를 엿듣기 위해 숨소리조차 내지 않고
있던 것이다.

몇몇 시녀들이 곱지 않은 눈으로 레베카를 보는 걸 느끼며 알테어는 발작적으
로 튀어나오려는 웃음을 삼켰다.

이곳에 있는 영애와 영식들은 왕족을 모신 경험이 있다는 이력을 얻기 위해,
그리고 타가문과 인맥을 쌓기 위해 자진해서 알테어의 곁에 발을 들였다.

그런 이들의 눈에 한 명의 영애를 편애하는 것 같은 알테어의 모습이 과연 어
떻게 보이겠는가.

“이번 티파티의 테마가 백합이라면서요? 백합은 그.....순결한 사랑을 표현하는
꽃이잖아요.”

붉어진 얼굴로 귀엽게 눈을 치뜬 레베카의 얼굴을 마주하며 알테어는 좀 더
그녀를 향해 고개를 기울였다.

뒤에 선 이들의 반응이 슬슬 재미있어지고 있었다.

“저 그래서 다들 왕자님이 괜찮은 영애가 있는지 보려는 거라고.....그런 말이 많아요.”

이곳에선 그에게 잘 보이기 위해, 호감을 사기 위해 혀에 꿀을 바르고 분 냄새를 풍기는 이들이 한 둘이 아니었다.

왕자인 알테어를 중심으로 빙글빙글 도는 세계.

즉, 이곳은 사교계의 축소판이라 봐도 다를 바 없단 소리였다.

그가 주최해서 열리는 티파티도 이와 크게 다를 바 없었다.

알테어는 문득 의기양양한 얼굴로 저를 내려다보던 데네브의 얼굴을 떠올렸다.

그녀가 지금 그의 곁에 있다면 이 지겨움이 조금은 덜 할 것 같았다.

‘데네브는.....4년은 더 있어야 자격이 되는군.’

귀족 자제들이 알테어의 곁에 있으려면 수많은 자격을 갖춰야 했는데 그 중 하나가 나이가 열다섯 이상일 것이었다.

분명 데네브의 성격상 오라고해도 거절할 게 뻔했지만 그래도 알테어는 지금 그녀가 이 자리에 올 수 없단 사실이 불만스러웠다.

‘데네브가 열다섯 이라면 지금 이 고생을 하지 않아도 되는데.’

레베카를, 그리고 주변의 다른 시종들을 놀리는 걸 그만두기 위해 허리를 핀 알테어가 다시금 차에 손을 가져다 댔다.

‘그보다 테마가 백합이라는 이야기까지 다 퍼졌다니, 굉장하네.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빨라.’

이 정도 정보가 하룻밤사이에 다 퍼졌다면 분명 레굴루스의 귀에도 알테어가 의도했던 정보는 다 들어갔을 것이다.

‘설마 사랑하는 여인의 영지 특산품이 백합이란 걸 모르시진 않으시겠지.’

알테어는 렉터를 불러 오늘 점심은 조금 늦게 먹겠다고 일렀다.

아마 오늘 내일 중으로 레굴루스가 그를 찾아올 것 같다는 예감이 들었기 때문이다.

조용히, 단 둘이서 긴 이야기를 나누는데 함께 식사를 하는 것만큼 적절한 상황도 없으리라.

* * *

그것은 누구도 바라지 않았던 괴물이었다.

증오와 원망, 갈망과 절망, 그리고 절규와 비탄의 소용돌이 속에서 나온 그것은 누군가에게 있어선 원죄의 증거였고 누군가에게 있어선 자신의 위치를 공고히 하기 위한 존재였으며 또 다른 누군가에게 있어선 권력연장의 기회였다.

수많은 시선과 수많은 기대, 그리고 수많은 욕망이 그것의 존재와 맞닿아 있었다.

그것을 향해 하루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감정이 오고 가는지 모른다.

단 하나, 사랑을 제외한다면.

* * *

썩그랑!

“.....뭐라고?”

왕의 시종장, 세바스찬 아템 미르프스는 레굴루스의 반응에 깜짝 놀랐다.

“지금 뭐라고 했지?”

이 소식이 그렇게까지 놀랄만한 일인가 싶었기 때문이다.

“알테어 왕자님께서 본인 이름으로 티파티를 여시길 희망하신다고 합니다.”

깨진 찻잔의 흰 파편이 바닥을 뒹굴고 흩어진 찻물이 테이블 위의 서류와 카펫을 더럽혔다.

테이블에 고이다 못해 흘러내린 물이 방울방울 떨어져 그의 옷도 적시고 있었지만 당사자, 레굴루스는 어찌나 놀랐던지 그 사실을 전혀 신경 쓰지 않았다.

“백합을 테마로 여신다고 하는데.....아무래도 어제 왕비님을 만났던 건 그 때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

“폐하?”

굳어지다 못해 창백하게 질린 레굴루스의 얼굴을 보며 세바스찬은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감을 잡을 수 없어 어쩔 줄을 몰랐다.

사실 레굴루스는 캄파넬라 백작의 별장을 방문한 날 이후 어딘가 이상했다.

하루 종일 안절부절 못하는 걸 시작으로 혼자 있을 때는 정신이 반쯤 다른 곳에 있는 것처럼 초조해하고 무언가를 끊임없이 중얼거렸다.

어제 밤늦게까지 뒤척이며 잠을 자지 못한 건 물론이고 식사도 제대로 넘기지 못했다.

점심까지 거르는 모습에 세바스찬의 걱정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았다.

아주 오랜만에 보는 강도 높은 불안 증세였다.

세바스찬은 몰래 의사라도 불러야 하는 것 아닌가 고민했지만 레굴루스의 이런 모습은 방에 혼자 있을 때 혹은 어렸을 때부터 늘 곁을 지켜 온 그가 있을 때뿐이었다.

다른 사람들의 앞에선 그는 평소처럼 위엄 있고 당당한 왕의 모습을 보였다.

“.....폐하, 무언가 걱정이 있으신 겁니까?”

알테어 왕자가 일정을 앞당겨 왕비를 만나 티타임을 가졌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도 회의 때 아르시어스 경이 타 영지에 대해 공부하는 알테어 왕자의 행동을 칭찬할 때도 손을 덜덜 떨며 기겁하는 레굴루스의 반응을 아무렇지도 않게 넘겼던 세바스찬이었다.

한 번, 아니 두 번까지는 넘어갈 수 있었지만 세 번은 아니었다.
세바스찬은 이번에는 말로 의사를 불러야겠다고 생각했다.

“지금 주치의를 부르겠습니다. 그러니 오늘 나머지 일정은 취소하.....”

“아니, 아니! 부르지 마! 부르지 말게!”

“하지만 폐하!”

“난 괜찮아!”

손을 내저으며 질색하는 레굴루스의 모습에 세바스찬은 안타까움을 감출 수 없었다.

선왕, 카노푸스가 살아있을 시절만 해도 레굴루스의 이런 고뇌어린 괴로움을 보게 되리라곤 꿈도 꿀 수 없었다.

이게 다 그 케틀렉 공작과 그를 위신한 다른 귀족 파벌 때문이었다.
세바스찬은 그렇게 굳게 믿고 있었다.

“괜찮아, 아니 괜찮지 않아. 하지만 괜찮을 방법을 알고 있어..... 그저 그 방법을 쓰고 싶지 않을 뿐이야.”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댄 레굴루스가 피곤이 가득 묻어나는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어느새 그의 시선은 창밖의, 어딘가 먼 곳을 향해 있었다.

“세바스찬.....”

“.....예, 폐하.”

“자네 복수의 신에 대한 일화를 알고 있나?”

“복수의.....신, 말입니까?”

왕보다 노쇠한 늙은 시종장은 눈을 깜빡였다.
복수의 신이라니.
아를로시안 대륙에 복수의 신이란 없었다.
주신이자 하늘의 신인 오펜하임을 비롯해 달과 별, 그리고 태양을 비롯한 하늘을 수놓는 자식들이 있을 뿐이었다.

“그래.....아주 먼 옛날, 주신이 존재하기 전에 지상에 살았던 고대의 신들 중 하나 말일세.”

“죄송합니다, 폐하.”

60이 되도록 들은 바가 없던 이야기에 세바스찬이 난감한 얼굴로 고개를 숙였다.

“제 식견이 미흡에 그에 대한 것까진 알지 못합니다.”

“복수의 신, 베이 니오(Bay Nio)는 절망의 신과 무지의 신 사이에서 태어났는데 모든 것을 잃은 아버지와 아무것도 모르는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음에도 그는 영특하고 똑똑했으며 원하는 모든 것을 가지고 싶어 했을 정도로 탐욕스러웠다네.”

메마른 그의 손바닥이 거친 얼굴을 쓸어내렸다.

“그는 원하는 것을 가지고 싶을 때 아주 독특한 방식을 사용했는데 어떤 방법인지 아나?”

“.....어떤 방법입니까?”

“원하는 것과 맞닿아 있는 모든 것을 잘라냈다네. 오직 자신만이 가질 수 있도록, 아무도 탐낼 수 없도록.”

조용하고도 나직한 목소리로 이야기를 이어나가던 레굴루스는 깊은 한숨과 함께 자리에서 일어났다.

“제 것에 손 댄 자를 용서치 않는 이 기괴한 방법 때문에 그는 탐욕의 신이 아닌 복수의 신이라 불렸지.”

그가 걸음을 옮길 때마다 새하얀 도자기 파편들이 그의 신발 아래 밟혀 으스러졌다.

“원하는 걸 원한다고 말하지 않고 표현하지 않은 채 주변의 모든 것을 불사르는, 이 신의 모습이 그대의 눈엔 어떻게 보이는가? 어떤 생각이 들지?”

“글쎄요.....”

그의 깊고 짙은 회색 눈이 고뇌에 잠겼다.

레굴루스가 젖은 옷을 갈아입는 걸 돕고 외출 준비를 거드는 등의 일을 하며 한참을 고민하던 세바스찬이 마침내 입을 열었다.

“지독하다.....일까요?”

“.....그래, 지독하지.”

순화된 표현이라고 말하며 레굴루스는 헛웃음을 흘렸다.

“어지간한 독종이 아니고서야 그런 방법을 쓰지 않겠지.”

방을 나서기 전, 마지막으로 옷매무새를 가다듬은 그가 깊은 한숨을 쉬었다.

“그 애가 뭘 원하는지라도 알았으면 좋으련만.....”

그 이유를 파헤치기 위해 이제부터 그런 독종을 상대하러 가야한다는 의미심장한 말을 남기며 레굴루스가 방문을 나섰다.

때는 해가 열기를 잃기 시작하는, 오후 3시였다.

16. 열 살, 권모술수, 여름(6)

"처음 뵙겠습니다, 폐하."

갓 여덟 살을 넘긴 소녀는 밤하늘보다도 새카만 비단 같은 검은 머리칼에 맑은 가을 하늘을 떠올리게 하는 투명한 유리 같은 벽안을 가지고 있었다.

"멜비나 라셀 케틀렉이라고 합니다."

두려움, 설렘, 기대, 공포 등.

레굴루스와 마주한 아이는 표정이 풍부했다.

매끄러운 소녀의 흰 얼굴에는 시시각각 갖가지 감정이 켜 없이 휘몰아치고 있었다.

저보다 한참은 어린 그 소녀의 인사를 받으며 레굴루스는 무슨 말을, 아니 무슨 생각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아이는 어렸다.

허리를 조이고 얼굴에 분을 바르는 것보다 부모님 품에 안겨 어리광을 부리거나 복도와 정원을 철없이 뛰어다니는 게 더 어울릴 정도로, 소녀는 너무나도 작고 여렸다.

'이것이 날 버리고 당신이 선택한 거예요, 달링?'

제 허리께에도 오지 않는 조그만 소녀를 바라보며 기가 막힌다는 듯이, 형체를 갖춘 기억 속 그림자가 코웃음을 쳤다.

'이 작고 어린 아이에게 그럴 가치가 있었다고요?'

레굴루스는 눈을 감았다.

'정말 믿을 수가 없네요.'

과연 그 말 대로였다.

레굴루스는 도무지 이 현실을 믿을 수 없었다.

자신이 범한 죄가 무거워서, 마주한 상황이 고통스러워서 그는 보석 같은 아이의 순진무구한 눈을 똑바로 마주하지 못했다.

아주 오랫동안.

* * *

보통 이 나잇대의 아이는 어떻게 행동하더라.

레굴루스는 자신의 10살 때를 기억해보려 했지만 너무 오래전 일이라 모든 것이 안개처럼 흐릿하기만 했다.

다만 단 한 가지, 고목마냥 든든한 부모님의 비호 아래 근심 걱정 없이 하루하루를 즐겁게 보냈던 것 감각만은 선명했다.

"어서 오세요, 아버지."

저렇게 속에 100년은 족히 묵은 듯한 능구렁이를 기르고 있는 게 아니라.

"공사다망하실 텐데 이렇게 찾아와주셔서 기뻐요. 아, 혹시 점심은 드셨나요?"

갑작스런 레굴루스의 방문에 놀라 뒤집어진 다른 사용인들과는 달리 알테어는 비교적 차분한 태도로 그를 맞이했다.

레굴루스는 깜짝 놀랐다.

"제가 아직 점심을 안 먹어서요. 혹시 괜찮으시다면 아버지도 같이 드시겠어요?"

그림처럼 덧씌워진 그의 놀란 얼굴에 한 번, 그리고 기다렸다는 듯이 함께 늦은 점심을 권한 그의 태도에 두 번.

그가 찾아왔다는 사실에 기뻐서 어쩔 줄 모른다는 듯이 굴고 있지만 사실 알테어는 전혀 놀라지 않았다.

레굴루스는 한 눈에 그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아버지의 감이었다.

하지만 저 가면을 쓴 듯한 연기는 둘째 치고 서둘러 식사를 준비시키는 행동은 마치 이 순간이 오리란 걸 미리 예상했다는 태도이지 않는가.

더없이 자연스럽고 준비된 그 모습에 레굴루스는 '어떻게?' 라는 의문조차 들지 않았다.

다만 '어째서 이렇게까지?' 라는 생각은 떠올랐다.

차가 아닌 식사를 권하는 건 이야기가 길어진다는 뜻이고 이야기가 길어진다는 건 알테어가 단순히 레굴루스에게 서운하거나 화가 난 게 아닌, 무언가 바라는 게 있단 뜻이었다.

'설마.....'

레굴루스는 여태까지 알테어가 아버지에게 새 애인이 생겼다는 사실에, 멜비나가 아닌 여인이 그의 옆에 설지도 모른다는 가능성에 화가 난 줄 알았다.

그도 아니면 레굴루스는 짐작 못할 어떤 다른 이유로 알테어가 서운함을 느꼈기 때문이거나.

그러나 방금, 불현듯 새로운 가능성이 그의 머릿속에 떠올랐다.

캄파넬라 백작의 별장을 방문한 후, 알테어의 부탁을 거절했던 일이 기억난 것이다.

단호한 레굴루스의 일갈과 거절에 반발하지도 실망하지도 않고 그저 조용히 제 자리를 지키던 말간 알테어의 얼굴도.

'.....이 모든 게 캄파넬라 백작의 딸을 만나지 못하게 한 것 때문인가?'

하지만 그건 말도 안 되는 생각이었다.

아무리 백작의 딸이 알테어 또래의 소녀이긴 했지만 그들이 함께 시간을 보낸 건 고작 반나절뿐이었다.

서로를 향해 어떤 감정을 가지기에는 너무나도 짧은 시간인 것이다.

게다가 그나마 있던 시간의 대부분도 무너진 탑 위에서 사고를 치느라 바쁘지 않았던가.

‘그럴 리가.....하지만.....아니, 정말로?’

말도 안 되는 생각이긴 했지만 레굴루스는 이 외에 알테어가 갑자기 다방면으로 저를 곤혹스럽게 하는 원인을, 그에 더해 자신과 마주 앉아 긴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는 이유를 떠올릴 수 없었다.

갑자기 물밀 듯이 피곤이 몰려 들어왔다.

레굴루스는 폐부, 깊은 곳에서부터 한숨이 나오는 걸 막을 수 없었다.

‘차라리.....’

레굴루스는 생각했다.

‘차라리 알테어가 제 나잇대 어린아이처럼 때를 쓰면 얼마나 좋았을까?’

마음대로 되지 않는 일에 소리를 지르며 분해하고 그래도 해결하지 못해 눈물을 보인다면 얼마나 편했을까.

언제부터인지 레굴루스는 저 작은 머릿속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조금도 짐작하지 못했다.

무슨 생각을 하는 건지, 왜 저런 행동을 하는 건지.

그 모든 게 레굴루스에게 있어선 미지의 영역이었다.

식탁에 올라온 소화가 잘 되는 부드러운 스투와 새하얀 식전 빵을 바라보며 레굴루스가 수없이 떠오르고 가라앉길 반복하는 생각들을 정리하고 있을 때였다.

"점심까지 거르신 걸 보면 일이 바쁘신가 봐요."

높고 낭랑한 아이의 목소리가 귓가를 두드렸다.
레굴루스는 그제서야 상념에서 벗어나 고개를 들었다.
시선을 스투에 고정한 채 수저를 아무렇게나 휘젓고 있는, 몸으로 드러나는 행동만큼은 어린아이다움이 느껴지는 알테어의 모습이 그의 눈에 담겼다.

"너무 무리하지는 마세요."

정말로 걱정스럽다는 듯이, 누구 하나 의심할 수 없을 정도로 완벽한 근심을 담아 알테어가 말했다.

"국가 대사를 돌보는 일이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니지만.....그러다 쓰러지시면 큰일이잖아요. 건강도 챙기셔야죠."

능청스러운 알테어의 태도에 레굴루스는 이제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다.
그가 지금 누구 때문에 이런 마음고생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저렇게 태연자약한 얼굴로 거짓말을 할 수 있단 말인가.
알집다 못해 뻔뻔한 그의 목소리에 레굴루스는 그만 할 말을 잃어버렸다.
그리고 그 순간 레굴루스는 떠올랐다.
알테어가 그에게 아이답게 울며불며 떼를 썼던 건 4년 전, 2주에 한 번씩 가족끼리 다 같이 차를 마시자고 했던 일이 마지막이었다.

'그 티타임은 어쩌다 무산 되었더라.....?'

언제부턴가 하지 않게 된, 이제는 기억나지 않는 오래된 과거를 더듬으며 레굴루스는 스투를 입에 담았다.
농후하고 부드러운 크림 맛이 입 안을 가득 채웠다.
향이 무척이나 고소하고 묵직한데다 빈속을 따스하게 덥혀주는 게 무척 맛있었다.

".....네 이름으로 티파티를 연다고 들었다."

음식이 입에 들어가고 나서야 레굴루스는 입을 열 기력을 얻을 수 있었다.
남들이 들으면 어이없어 하겠지만 알테어를 상대하는 일은 레굴루스에게 그만큼 큰 기력을 소모시켰다.

"네, 테마는 백합으로 정했어요."

".....나쁘지 않구나. 하지만 파티의 장(將)이 되는 건 어려운 일이란다. 잘 할 수 있겠니?"

"네, 괜찮아요. 이미 어머니께서 많이 도와주고 계세요."

아버지와 둘만의 시간을 가지고 싶다는 알테어의 부탁으로 방안엔 시종장, 렉터를 비롯해 시종을 들 최소한의 인물들밖에 없었다.

"그러니?"

"네. 오늘은 좋은 백합들을 구할 수 있는 공급처들을 알려주셨어요. 날을 정해서 한 명씩 만나보고 구입할 백합의 양이나 종류를 정해보려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의 대화는 조심스럽고 은밀했다.
진상을 제대로 아는 이가 아니면, 레굴루스와 알테어가 아니면 알아들을 수 없을 정도로.

".....그래, 그렇구나."

레굴루스는 식은땀을 흘릴 수밖에 없었다.
알테어의 의도는 명백했다.
아이는 백합을 구한다는 명목으로 캐서린을, 그의 연인을 직접 단독으로 마주할 생각이었다.

그 누구도 의심할 수 없는 교묘하고도 교활한 방법으로.

"그런데.....오늘, 곤란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스스로의 생각에 질식해 숨을 거의 쉬지 못하는 레굴루스를 보며 희미하게 입꼬리를 올리고 있던 알테어가 한 박자 늦게, 미묘하게 불쾌한 정도로 말끝을 늘리며 말했다.

레굴루스는 어디선가 그 말투를 들어본 적이 있다는 기시감을 느꼈다.

"이 티파티 자리가.....사실은 제 미래의 반력을 구한다는 소문이 돌고 있어요....."

".....이상한 일은 아니구나."

겨우 의식해 숨을 들이마신 레굴루스가 물 잔으로 메마른 입술을 적셨다.

"네 이름으로 여는 첫 파티인데다 왕비의 도움을 받고 있으니까."

"네.....그리고 테마가 백합이라.....다들, 꽃말에 의미를 부여하고 있어요..... 백합의 꽃말이 순수한 사랑이라....."

알테어가 레굴루스를 향해 눈짓했다.

너무나도 조심스럽고 미세한 움직임이라 맞은편에 앉은 레굴루스 외엔 아무도 그의 신호를 알아차릴 수 없었다.

"지금이라도.....테마를, 바꾸는 게 좋을까요?"

"....."

"하지만 저는 여름 꽃에 대해 그리 많이 알지 못해서....."

'아.'

이 영악하고 교활한.

역시 이 모든 것은 그 날 했던 부탁의 연장선이었다.

어떻게든 성에서 나갈 구실을 바라는 알테어의 부탁에 레굴루스는 그제서야 자신의 가설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는 깨달음의 탄성을 내지르지 않기 위해 입술을 꼭 깨물었다.

어째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알테어는 캄파넬라 백작의 외동딸을 마음에 들어 하고 있었다.

만나고 싶어 했다.

다행 남작 부인의 존재를 인질 삼아 레굴루스를 이리저리 휘두를 정도로 강렬하게.

".....그렇군. 그것참 곤란하겠구나."

이유를 알고 나니 속이 뻥 뚫리는 것 같은 시원함이 느껴짐과 동시에 헛웃음이 흘러 나왔다.

기가 막혀왔기 때문이다.

정말이지, 레굴루스는 알테어가 차라리 울고 불며 떼를 썼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네 위치를 생각하면 그런 허튼 소문이 계속 돌게 둘 순 없지."

알테어가 분에 못 이겨 그의 비밀을 터트렸을 경우 준비해뒀던 변명과 대비책들이 빛도 보지 못한 채 버려진 사실에 안타까워할 틈은 없었다.

레굴루스는 근처의 시종을 시켜 종이와 펜을 가져오라 일렀다.

"내가 개인적으로 아는 지인 중 희귀한 식물을 재배하는 이가 있다."

캐서린과 캄파넬라, 둘 중 어느 쪽이 더 중요한지는 이미 정해져있었다.
레굴루스가 쥔 펜이 종이 위로 유려한 선을 그려나갔다.

“주소를 적어줬으니.....오늘은 너무 늦었고 내일쯤 찾아가 보렴. 마차는 내일
내가 준비해 두마.”

종이를 받아 확인한 알테어는 활짝 웃었다.
거기엔 수도에 위치한 캄파넬라 백작 가문의 타운 하우스의 주소가 적혀 있었
다.

“그 정도 식물이면 굳이 백합이 아니라도 네 파티의 체면은 세워줄 수 있을 거
다.”

“감사합니다.”

종이를 접어 품 안에 넣은 알테어가 나긋나긋하게 변한 목소리로 속삭였다.

“정말 기뻐요. 아버지도 어머니도 이렇게 저를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시니 좋은
파티가 될 거 같아요.”

레굴루스는 그제서야 알테어가 기분 나쁘게 놀이던 말버릇이 누구를 흉내 낸
건지 떠올렸다.

아르시어스 티르엘 펠릭스.

펠릭스 후작의 외동아들이자 알테어에게 다헬-트윈로서의 영지와 관련된 정보
를 건네 준 차기 재무대신 후보였다.

왕비, 멜비나를 만나는 일정을 앞당기고 티파티를 준비한다는 걸 핑계로 캐서
린과 접촉하는 것만이 알테어의 속셈이 아니었다.

‘역시 아르시어스에게 접근해 캐서린의 영지에 대한 정보를 캐낸 것도 우연이
아니었나.....’

우연인지 의도적인 건지 긴가민가하던 사실이 확실해지자 레굴루스는 다시금 물 잔을 향해 손을 뻗었다.

약간이나마 돌아왔던 입맛이 그대로 뚝 떨어져 버렸다.

“.....도움이 더 필요하면 언제든지 말하렴.”

알테어는 지금 자신이 언제든지 아르시어스를 이용할 수 있다고 은연중에 경고하고 있었다.

그 교활하고 비밀스럽기까지 한 간접적인 의사전달 방식에 레굴루스는 눈앞의 아이가 정말 자신과 멜비나의 사이에서 나온 아이인 건지 의심스러워졌다.

레굴루스도 멜비나도 본성이 순하고 물러 어렸을 적엔, 그러니까 성 내 정치에 뛰어들기 전엔 알테어만큼 치밀하고 교묘했으며 영악하지 못했다.

그들은 그 단순하면서도 복잡한, 그러나 냉혹하기 그지없는 권력구조에 적응하는 데만도 한참이 걸렸었다.

하지만 그렇다면 이 작은 아이는, 두 사람의 유일한 아이는 대체 누굴 닮은 거란 말인가.

“내가 도울 수 있는 거라면 뭐든 도와주마.”

레굴루스는 그대로 자리에서 일어났다.

이 이상 식사를 계속하는 건, 아니 알테어와 마주 앉는 건 그에게 무리였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찾아와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많은 도움이 됐어요.”

역시 마찬가지로 제 뒤통의 스튜엔 손도대지 않은 알테어가 함께 일어나 그를 배웅했다.

포식을 마치고 배부른 사자마냥 만족스러워하는 알테어의 인사를 받으며 레굴루스는 표정을 굳힌 채 빠르게 그의 성을 빠져나왔다.

레굴루스는 아이답게 때로 쓰고 눈물도 많던 그가 대체 언제부터 이렇게 변해

버린 건지 알지 못했다.

왜냐하면 그는 아주 오래전부터 멜비나와 똑같은 눈을 가진 알테어를 제대로 마주보지도 못했기 때문이다.

17. 열 살, 위안, 여름(1)

알테어와 데네브의 두 번째 만남은 데네브가 신신당부하던 대로 캄파넬라 가문의 별장이 아닌 타운 하우스에서 이루어졌다.

숲 속 한 가운데 비밀스럽게 숨겨져 있던 별장과는 다르게 수도에 위치한 타운 하우스는 니콜라이 분수대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자리하고 있었다.

아침 일찍부터 알테어를 데리러 온 레굴루스의 마부는 수도의 지름길을 속속들이 알고 있었다.

덕분에 알테어는 궁에서 빠져 나온 지 채 한 시간도 되지 않아 캄파넬라 가에 발을 들였다.

“알테어님!”

“안녕, 에반. 갑작스럽지만 실례할게.”

어두운 붉은색과 검은색이 적절히 배합된 뽀족한 지붕을 가진 타운 하우스는 녹음이 우거진 숲속에 자리한 흰색과 푸른색으로 물들어 있던 별장보다 크기는 작아도 훨씬 우아하고 고급스러웠다.

“데네브를 만나러 왔어. 들어가도 될까?”

“.....물론입니다, 이쪽으로.”

예고도 없이 현관에서 알테어와 마주한 에반은 조금 놀란 듯 했지만 이내 예를 갖추고 그를 저택 안으로 안내했다.

두 저택은 외관뿐만 아니라 내부 인테리어도 확연히 달랐다.

갖가지 그림과 장식물들이 형식도 테마도 없이 뒤죽박죽 장식되어 있던 별장과는 달리 타운 하우스 안은 소박하지만 따스한, 적색과 감색 계열의 그림과 장식품들이 저택을 웅하지 않게 채워주고 있었다.

꾸민 이의 정성을 느낄 수 있는 안정감과 통일성이 인테리어 곳곳에 녹아 있었다.

푹신한 응접실 소파에 앉아 데네브가 나오길 기다리며 알테어는 별장에서보다

훨씬 마음 편하고 즐겁게 저택 내부를 둘러 볼 수 있었다.

별장 내부 인테리어를 담당한 정체모를 인물을 하루라도 빨리 해고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와, 알테어!”

뒤에서 들려오는 탄성에 알테어는 고개를 돌렸다.

“정말 너구나!”

열린 문 너머엔 데네브, 그녀가 있었다.

화등잔 만하게 커진 눈과 흥분으로 살짝 상기된 볼, 그리고 만면 가득한 행복한 미소까지.

알테어를 향해 달려오는 그녀에게선 그 어떤 악의도 의도도 엿볼 수 없었다.

그녀는 비르마스 왕국의 왕자도, 교활하고 영악한 어린아이도 아닌 오로지 알테어, 그 자신의 존재 자체를 반가워하고 있었다.

순수한 호의가 햇살 마냥 쏟아지자 나흘 만에 처음으로 알테어는 제 안을 꼭 틀어막고 있던 정체 모를 덩어리가 따스하게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다.

그는 이것을 원했다.

아주 간절하게.

이 목적 없는 선의를, 대가 없는 온기를, 맹목적인 호의를 바랐다.

지난 며칠 간 그가 그토록 발버둥치며 고생했던 것은 오로지 이것만을 위해서였다.

데네브의 안에 자신의 자리가 존재하는 것을, 그의 안에 그녀의 세계가 건재하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

알테어는 데네브를 향해 환히 마주 웃어줄 수 있었다.

“약속대로 왔어.”

굳이 웃으려 노력하지 않아도 그녀와 마주하자 절로 웃음이 나왔다.

“내가 뭐랬어. 다른 방법을 찾아낼 거라 했잖아.”

“정말이네.”

데네브는 헤어진 지 채 일주일도 지나지 않았는데 그와 이렇게 다시 만나게 되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은 듯 했다.

감탄하는 알테어에게 빠지지 않으려 노력하며 그는 어깨를 으쓱였다. 하지만 높아지는 콧대를 막을 순 없었다.

“진짜로 와 있을 줄이야..... 난 에반이 나한테 거짓말을 한 줄 알았는데.”

“네 가문을 모시는 집사가 너한테 그런 시시한 거짓말을 할 이유가 있나?”

“있지.”

데네브가 진지한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다.

“오히려 시시한 거짓말이니까 할 수 있는 거야.”

눈 깜짝할 사이 훌쩍 그의 곁으로 다가온 데네브가 투덜거렸다.

그녀의 몸에서는 쓰고 짙은 풀냄새와 달콤한 꽃향기가 동시에 풍겼다.

뭘 하다 나온 건진 모르겠지만 연한 베이지색 원피스 위로 맨 앞치마에는 얼룩덜룩 짙은 풀물이 잔뜩 묻어있었다.

장갑까지 낀 걸 보니 취미인 약초라도 만지작거리고 있던 모양이다.

그 쓰고 신, 끔찍한 맛의 사탕이라도 만들고 있던 건 아니었을까, 라고 알테어는 짐작해보았다.

아니, ‘그랬으면 좋겠다.’ 라는 게 더 사실에 가까우리라.

평소 복용하는 두통약보다 효과 좋은 그 사탕을 아르시어스에게 전부 넘겨줬던 사실이 생각보다 뼈아팠기 때문이다.

알테어는 일부러 큰 빈 통들을 몇 개 챙겨왔다. 데네브에게서 사탕을 받아 갈 수 있을 만큼 받아가기 위해서였다.

물론 그녀가 순순히 사탕을 줄지에 대해선 아직 미지수였다.

“별장에서의 일로 요즘 에반이 내게 골이 나 있거든.”

집 주인인 캄파넬라 백작부부에게 인사를 하고 싶어 하는 알테어를 말리며 데네브가 그의 팔을 잡아끌었다.

2층으로 올라가는 그녀의 손에 순순히 끌려가주던 알테어의 고개가 살짝 기울어졌다.

“그 진지한 집사가 네게 거짓말을 늘어놓는 장면이 어쩐지 잘 상상이 안 가는 데.”

“그래, 상상도 못할 거야. 에반은 아주 타고난 거짓말쟁이거든.”

한층 더 위에 있다는 자신의 방으로 그를 안내하며 데네브가 말했다.

“표정 하나 안 바꾸고 거짓말을 입에 담아. 어제도 그래. 햄버그 안에 잘게 당근을 썰어 넣어 뒀으면서 그게 아몬드를 갈아 놓은 거라고 하더라니까.”

“당근 싫어해?”

태어나 편식이라곤 해본 적이 없는 알테어가 물었다. 알테어의 물음에 그녀는 대번에 눈살을 찌푸렸다.

“토끼도 아니고 누가 당근을 좋아해?”

토끼도 아닌 알테어는 당근을 좋아했지만 성난 데네브의 표정에 입을 다물었다.

결국 긴가민가하면서도 당근 섞인 햄버그를 다 먹어버렸다고 데네브는 투덜거

렸다.

"두고 봐, 이 일은 나중에 꼭 복수해 줄 거야."

알테어는 한심스런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에반 앞에서 거짓말도 제대로 못하는 주제에 고작 당근 좀 먹은 걸 가지고 복수를 계획하며 이를 갈다니.

참 가당찮은 일이었다.

게다가 그 와중에도 당사자가 그 말을 듣는 것이 걱정되었는지 데네브는 빠르게 사위를 살폈는데 그걸 보며 참 가지가지 한다고 알테어는 생각했다.

저택 내는 쥐 죽은 듯이 고요했다.

알테어는 데네브의 방으로 향하는 내내 만난 이가 그녀와 현관에서 그를 맞이한 집사, 에반 밖에 없단 사실에 의아해했다.

"부모님은 영지로 내려가셨어."

그런 알테어의 생각을 읽었는지 벗은 장갑을 앞치마 주머니 안으로 쑥 넣어 놓고 있던 데네브가 설명했다.

"본가에 있는 의사를 보러 가셨지. 당분간은 안 돌아오실 거야. 그래서 지금 이 집엔 나랑 에반이랑 내 시중을 드는 메이드 두 명뿐이고."

"의사? 누가 아프셔?"

"어머니가 몸이 좀 약해.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주치의가 본가에 있거든."

데네브가 어깨를 으쓱였다.

"나도 가고 싶었는데 별장에서 너랑 위험한 놀이를 했다는 이유로 외출 금지를

당했어. 적어도 다음 주까지는 암전히 저택 내에 있어야 해.”

“그럼 넌 언제 영지로 돌아가? 외출 금지령이 풀리면?”

“음, 그건 아니야.”

2층 복도 끝에 있는 가장 큰 방의 문을 연 그녀가 대답했다.

“사실 수도에 올라온 건 내 사교계 데뷔를 준비하기 위함도 있지만 약학 공부를 계속하고 싶기 때문이거든.”

방문이 열리자마자 알테어가 가장 먼저 느낀 건 코끝을 간질이는 풀냄새였다. 그리고 서책 특유의 종이 냄새.

“독학으로 배우는 것까진 어렵지 않은데 영지가 외진 곳에 있다 보니 보고 싶은 자료나 필요한 재료가 영 부족해서 말이야. 관련 서책이나 귀한 약초를 구할 큰 시장을 위해서 온 거거든.”

데네브의 방을 눈에 담은 순간 이제는 알테어의 눈이 화등잔만하게 커질 차례였다.

알테어는 누군가의 방에 이토록 많은 책과 약초가 있는 것을 처음 보았다.

흡사 도서관 안에 약방을 차린 듯한 풍경이었다.

벽 한 면을 가득 매운 책장 안엔 책들이 가득 꽂혀 있었다.

소파에도 테이블에도, 책상에도, 심지어 침대 위에도 미처 책장 안에 들어가지 못한 책들이 가득 쌓여 있었고 정체 모를 낙서 가득한 종이들이 바닥을 메웠다.

책장 맞은 편 벽의 선반에는 이름 모를 처음보는 약초와 크고 작은 통들이 가득 쌓여 있었다.

나무통이나 비단 천, 그리고 목이 긴 유리병들이 질서 없이 늘어져 창을 통해 들어온 햇빛을 받아 반짝였다.

알테어는 가늘고 긴 유리병에 흐물흐물한 해초 같은 풀이나 허리 불룩한 향아리 안에 둥근 열매들이 가득 들어 있는 걸 보았다.

천장에는 거꾸로 매달린 꽃이나 약초 다발들이 포도덩굴마냥 주렁주렁 매달려

있었다. 저것들이 방에서 나는 풀냄새의 주된 원인인 것 같았다.

이 모든 것을 눈에 담은 알테어는 무슨 말을, 아니 무슨 생각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어졌다.

한참을 말없이 주변을 둘러보던 알테어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너 잠은 어디서 자?”

소파와 테이블 위의 책을 대충 바닥에 내려놓는 정도로 치우고 있던 데네브가 그 얼빠진 질문에 웃음을 터트렸다.

“당연히 침대에서지!”

“.....”

“그런 눈으로 보지 마. 진짜라니까? 책 내려놓으면 제법 잘만 하단 말이야. 아, 에반!”

고개를 돌리며 반색하는 데네브의 시선을 따라 알테어의 고개도 돌아갔다.

언제 온 건지 차와 다과를 들고 온 중년의 집사가 형용할 수 없는 표정으로, 굳이 표현하자면 ‘이 철없는 아가씨를 어찌하지.’ 란 얼굴로 열린 방문 앞에 서 있었다.

“방 청소를 한 게 그저께 일인 것 같은데 벌써 이렇게 어지르셨습니까?”

“음. 불가항력이었어.”

허리에 손을 얹은 그녀가 엄숙한 목소리로 말했다.

“왜 아버지도 자주 그러시잖아. 집중하다보면 자리를 정리하면서 연구할 수가 없다고. 이건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인간의 몇 안 되는 한계인 셈이지.”

".....진지한 얼굴로 무슨 헛소리를 하시는 겁니까?"

고뇌 깊은 한숨이 에반의 입에서 흘러나왔다.

"똑같은 변명을 두 명에게서 듣는 제 입장도 한 번쯤은 생각해주세요."

정리된 테이블에 다과를 올려놓은 그가 알테어를 돌아보았다.
고뇌 가득하던 근심어린 표정은 어느새 빠르게 갈무리 된 뒤였다.

"준비가 미흡해 죄송합니다, 알테어 왕자님. 백작님께는 곧 긴급 서신을 보낼 터이니....."

"아니, 그럴 필요 없어. 오늘은 친구를 보러 온 거 뿐이니까."

영지로 내려간 백작을 부르려는 에반의 행동을 손을 내저으며 알테어가 다급히 그를 말렸다.

"연락도 없이 갑작스레 찾아온 건 내 쪽이니 공식적인 예는 갖추지 않아도 괜찮아. 오늘의 실례에 대해선 백작에게 내가 나중에 따로 사죄할게."

"뭘 사죄까지야. 신경 쓰지 마 알테어."

"아가씨....."

"에반도 그만 신경 쓰고 나가서 볼일 봐. 알테어가 괜찮다고 하잖아."

"....."

본인이 재판장이라도 되는 것 마냥 자연스럽게 판결을 내리는 데네브의 모습

에 에반은 황당함을 감추지 못했고 알테어는 웃음을 참기 위해 입술을 꼭 깨물었다.

"뭐해? 나가보라니까. 설마 알테어랑 노는데 끼어들 생각은 아니지?"

".....제 걱정의 10분의 1이라도 아가씨가 알려주신다면 참 좋을 텐데 말입니다."

에반은 온 몸으로 데네브의 차림도, 그녀의 방 상태도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걸 표현했다.

알테어는 그의 뛰어난 비언어적 신호에 속으로 감탄했다.

에반은 표정만 보면 어떻게 왕가의 일원이 저택을 방문했는데 예를 갖추지는 못할망정 이런 추태를 보일 수 있냐고 소리치며 먼지단위부터 잔소리를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았다.

그러나 알테어의 시선을 의식한 건지 그는 초인적인 인내심으로 그 모든 욕구를 목구멍 뒤로 밀어 넣고 그녀를 향해 단 하나의 당부만을 건넸다.

"부디 이번에는 안전에 주의를 기울이며 놀아주세요."

'안전'이라는 단어를 강조하며 에반이 진심을 가득 담아 말했다.

"지붕에서 뛰어내리는 건 물론이고 날붙이를 함부로 다루거나 왕자님을 상대로 약의 성능을 실험해 보시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 정도는 나도 알아, 에반! 대체 내가 몇 살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데네브는 기막혀했지만 에반은 문을 닫고 나가는 그 순간까지 데네브를 향한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았다.

18. 열 살, 위안, 여름(2)

에반이 사라지자마자 데네브가 '넌 그가 내게 저러는 걸 믿을 수 있니?' 란 얼굴로 알테어를 돌아보았다.

바닥에 흩어져있던 책들 중 하나를 훑어보고 있던 그는 그 은근한 시선이 주는 질문을 무시하고 미소 지었다.

"그나저나....."

알테어는 들고 있던 [신화 전승, 당신이 몰랐던 고대신의 모든 것]을 높게 쌓인 책 더미의 맨 위로 올려놓았다.

"약의 성능을 실험해 본다는 건 무슨 소리야?"

"아, 가끔 간단한 신약을 만들어보거든. 그걸 가끔 사용인들에게 먹여보고 반응을 살펴보는 거지."

"불법 임상 실험을 한다고?"

알테어의 눈이 놀라 동그랗게 떠졌다.

옆에 있던 책의 탑이 그의 갑작스런 움직임에 맞춰 위태롭게 흔들렸다.

"아니야!"

의심스러운 표정과 함께 위로 올라가는 알테어의 눈썹에 데네브가 항의했다.

"다 당사자들의 허락을 받고 진행하는 일이라고."

"....."

자격증도 없는 미성년자가 허락도 없이 몰래 만든 약을 실험하는 게 불법 임상 실험이 아니면 대체 뭐란 말인가.

알테어는 기가 막혀 코웃음을 쳤다.

데네브도 자기 죄는 알긴 하는 모양인지 더 반박하지 않고 입을 다물었다.

그들은 데네브가 급하게 치운 소파에 마주 보고 앉았다.

버릇대로 자리에 앉자마자 찻잔을 입에 댄 알테어는 이 차가 별장에서 먹었던 것과 똑같은 단 맛이 진한 차라는 걸 깨달았다.

알테어는 대번에 눈살을 찌푸렸다.

대체 누가 차를 달게 먹는단 말인가.

'.....못 마실 정돈 아니지만, 그래도.'

홍차의 씹쓸한 맛에 길들여져 있던 알테어는 또다시 느껴지는 낯선 감각에 괜히 찻물만 노려보았다.

"왜 그래? 맛이 이상해?"

데네브가 물었다.

온갖 복잡 미묘한 감정을 느끼며 혼란스러워하는 알테어와는 다르게 데네브는 잘도 꿀떡꿀떡 목구멍 너머로 차를 넘겼다.

잼 발린 과자까지 자연스럽게 입에 무는 걸 보니 이런 다과상을 하루 이틀 즐긴 모양새가 아니었다.

".....넌 집에서 매일 이런 차를 마셔?"

"응. 왜? 달아서 그래? 우리 집에선 어린애들이 오면 다 이런 차를 줘."

알테어의 눈살이 다시금 찌푸려졌다.

"난 어린애가 아니야."

"그래, 그렇다고 하자. 그래서 말 좀 해 봐. 어떻게 이렇게 빨리 올 수 있던 거야?"

알테어의 주장을 자연스럽게 무시하며 데네브가 물었다.

마지막으로 헤어진 지 고작 나흘 밖에 되지 않았던 지라 데네브는 알테어가 대체 무슨 마법을 부려 이리도 빨리 그녀를 만나러 올 수 있던 건지 궁금해 하는 것 같았다.

"진짜 마법을 쓰기라도 한 건 아니겠지?"

"그 비슷한 걸 쓰긴 했어."

노려보던 찻잔을 다시 입술 위로 걸치며 알테어가 대답했다.

익숙해지면 적당히 즐길 수 있을 법한 맛이였다.

적어도 데네브가 준 사탕보단 훨씬 맛있었다.

"두 번은 쓰기 싫은 마법이지만. 그보다 자, 이거 받아."

"이게 뭐야?"

설명을 요구하는 데네브를 마찬가지로 자연스럽게 무시한 알테어가 품에서 작은 편지 봉투 하나를 그녀에게 건네주었다.

봉투도 그렇고 그 안에 든 종이는 질이 좋았다.

희고 뽀뽀한데다 희미하지만 꽃향기까지 나는 게 여간 고급스러운 게 아니었다.

"초대장?"

“마법의 대가지.”

접시에 나뭇구는 동그란 과자를 몇 개씩이나 입에 털어 넣으며 알테어가 대답했다.

“정식 초대장은 아니야. 아직 아무것도 계획된 게 없으니까.”

먹이를 저장하는 햄스터마냥 알테어의 볼이 볼록해졌다.

그는 천천히 입안에 잔뜩 든 과자를 씹으며 메이는 목을 차를 마시는걸로 넘겼다.

단맛과 단맛의 끔찍한 조화에 차를 마실 때마다 알테어의 얼굴이 뭉쳐진 종이마냥 구겨졌다.

부드러운 편지의 표면을 쓸어내리고 있던 데네브는 고개를 들자마자 보이는 광경에 고개를 모로 기울였다.

‘.....젠 대체 왜 저러는 거람?’

마실 때마다 마음에 안든 다는 티를 팍팍 내면서도 알테어는 찻잔에서 손을 놓지 않았다.

그렇다고 다른 종류의 차를 요구한 것도 아니었다.

싫으면서도 주어진 차를 꾸역꾸역 마시는 걸 보며 성격 한 번 참 희한하다고 데네브는 생각했다.

한 마디로 정의내릴 수 없는 데네브의 기묘한 시선을 받으면서도 입 안을 비운 알테어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다시 입을 열었다.

“비공식적이지만 다음 달 내로 티파티를 열거야. 내 이름으로.”

“오.”

일부러 빈 알테어의 찻잔을 채워주던 데네브의 눈이 동그랗게 떠졌다.

그녀는 그가 언제쯤 이 단맛 나는 차를 싫다고 표현할지 마음속으로 가늠해보고 있던 참이었다.

“근데 초대장을 이렇게 미리 줘도 돼?”

“상관없어. 이건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서 주는 거야. 여기, 내 인장이 찍혀 있는 거 보이지?”

데네브는 편지의 맨 아래, 알테어의 이니셜과 비르마스 왕국의 상징이 섞인 표식을 바라보았다.

왕족답게 화려하고도 큰, 못보고 지나치기가 어려운 문장이 눈에 들어왔다.

“이게 있으면 내 초대를 받았다는 뜻이니까 언제든지 나를 만나러 올 수 있단 뜻이야. 그러니 혹시 초대장을 못 받게 되면 이걸 들고 날 찾아와.”

“내가 초대장을 못 받을 일이 있어?”

그 질문은 궁금해서 물었다기보다는 ‘설마 나한테 초대장을 안 줄 생각이었어?’라는 핀잔에 더 가까웠다.

당연히 친구인 저에게도 초대장을 건네줄 거라고 확신하는 그녀의 믿음이 알테어는 기꺼웠다.

의심 한 점 없이 신뢰받는 감각이 온 몸에 전류가 내달리는 것 마냥 짜릿했다.

“테마를 백합으로 잡았더니 이 파티가 미래의 왕비를 구하기 위한 전초전이란 소문이 돌고 있거든.”

알테어는 제멋대로 올라가려는 입꼬리를 겨우 내리눌렀다. 나른하고도 편안한 분위기가 그의 경계를 조금씩 갉아먹고 있었다.

“초대장을 발송하는 데 내 의사가 반영되지 않을지도 될지도 몰라.”

“왜 하필 테마를 백합으로 잡았는데?”

조심스럽게 초대장을 편지 봉투 안에 다시 밀어 넣고 있던 데네브가 눈을 깜빡였다.

질문을 던지는 그녀의 얼굴엔 의아함이 가득 했다.

“이런 방면에 무지한 내가 생각해도 백합이 테마인 건 좀 의미심장하긴 해.”

비르마스 왕국의 결혼식에서 신부는 꽃으로 장식한 베일을 두르는, 아주 오래된 풍습이 있었는데 그 때 가장 많이 사용되는 꽃이 바로 흰 백합이었다.

지금에야 풍습에 얽매이지 않고 꽃 외에도 보석이나 리본, 혹은 아무 장식 없이 수만 놓은 새하얀 베일을 둘렀지만 불과 반세기 전까지만 해도 백작 작위 이상의 결혼식에선 꼭 신부의 베일 위엔 흰 백합이 엮어졌다.

“여기 정말 내가 가도 되는 괜찮은 거 맞아?”

신분이나 위치, 분위기 등 여러 가지 것들이 마음에 걸리는지 그녀는 이제 의심스럽다는 듯이 편지 봉투를 노려봤다.

별 것도 아닌 일에 심각하게 고민하는 데네브의 얼굴을 본 알테어는 저도 모르게 웃음을 터트렸다.

“네 마음대로 하면 돼.”

마지막 과자까지 먹어 지우는 걸로 깔끔하게 접시를 비운 그가 대답했다.

“어차피 티파티는 여기 오기 위한 핑계였을 뿐이니까.”

“뭐?”

“말했잖아. 정해진 게 아무것도 없다고. 다 여기 오기 위해서 즉석에서 정한 일이라 그래.”

데네브가 채운 찻잔을 다시 비워버리며 알테어는 눈살을 찌푸렸다.

“테마를 백합으로 정한 건 단순히 아버지를 흔들어보려고 정한 일이었고..... 초대장을 준 건 그냥 널 볼 기회가 한 번 더 생기니 준 거야.”

하지만 소문이 너무 과장되면 파티 자체가 취소될 수도 있다고 알테어는 덧붙였다.

“애초에 마음에도 없던 일정이었으니 차라리 취소되는 게 속편할 지도 모르겠다. 뭐, 사정이 이러니까 혹시 파티가 열린다면 오든 말든, 너 편할 대로 해.”

데네브는 눈을 깜빡였다.

방금 들은 이야기가 잘 입력되지 않은 탓이었다.

귀로는 들었는데 머리로는 이해하기 힘든 정보를 받아들인 건 굉장히 오랜만의 일이었다.

“아버지를 흔든다고.....너 지금 레굴루스 폐하에 대해 얘기하고 있는 거지?”

“맞아.”

팔걸이에 몸을 기대는 채 턱을 꺾어 알테어는 마치 몸을 한껏 늘어트린 고양이 같았다.

따스한 차와 쏟아지는 햇빛, 그리고 방 안의 포근한 온기에 취해 긴장을 풀고 휴식을 취하는 고양이.

“아버지의 비밀애인의 영지 특산품이 백합이거든. 백합을 테마로 꾸민다면 당연히 그 여자의 영지에 관한 정보도 준비 리스트에 올라오게 되지.”

하지만 태연자약한 태도나 온화한 표정과는 달리 알테어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어마무시하기 짝이 없었다.

“역사상 왕이 애인을 가진 일이 없는 것도 아니니 늦바람에 연애 좀 하신다고 무슨 큰 문제가 생기진 않겠지만 어째서인지 아버지는 그 사실을 비밀로 하고 싶어 하시더라고. 그래서 그 부분을 찢어서.....”

“잠깐, 잠깐만!”

예고도 없이 밀려들어오는 방대한, 그리고 충격적인 정보들에 데네브는 허둥지둥 손을 내저으며 알테어의 막을 막았다.

갓가지 내용들이 뒤죽박죽 섞여 머리가 터질 것 같았다.

하지만 그 말들이 가리키는 바를 이해한 순간 복잡하던 머릿속이 새하얗게 변했다.

데네브는 입을 딱 벌렸다.

그녀는 무슨 말을, 아니 무슨 생각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너, 여기 오려고 레굴루스 폐하를 협박했다는 거야?”

왕에게 비밀스럽게 감정을 주고받는 애인이 생긴 건 둘째 치고(이 사실을 두 번째로 칠 수 있다는 현실이 데네브는 기가 막혔다.) 오로지 그녀를 만나기 위해 이렇게 큰 스케일의 사고를 벌이다니.

상상도 못한 사고방식에 데네브의 손이 찻잔을 든 자세 그대로 딱 굳어져 있었다.

‘아니, 솔직히 누가 이런 상황을 예상할 수 있었겠어?’

데네브가 머릿속으로 고함을 질렀다.

“날 만나려고 열고 싶지 않았던 티파티를 계획했고?”

“맞아.”

알테어는 깔끔하게 그 사실들을 인정했다.

“두 번은 쓰고 싶지 않은 마법이라니까.”

데네브는 알테어의 눈을 바라보았다.

알테어의 눈은 데네브를 향해 있었지만 그 눈동자는 그녀를 담지 않고 있었다.

새파란 푸른 눈은 무엇을 보고 있는 건지 분노와 증오로 서늘히 빛났다.

밤하늘보다도 짙은 검은 머리칼 사이로 빛나는 선뜩한 두 눈동자는 언젠가 그녀가 본 혜성을 떠올리게 했다.

달빛조차 없던 캄캄한 어둠 속을 달리며 하늘을 가로지르던 긴 꼬리를 가진 푸른 혜성.

그 빛나는 궤도는 사라진 뒤에도 아주 오랜 시간 데네브의 눈에, 지금 이 순간 까지도 머물러 있었다.

“어째서?”

데네브는 직감했다.

그 때의 혜성처럼 알테어의 저 눈동자도 그녀의 뇌리 속 깊은 곳에 영원히 새겨질 것이다.

데네브로선 이해 못할 원망과 망설임 그리고 더없을 갈망과 탐욕.

응어리진 알테어의 감정이 처음으로 그녀의 눈에 들어와 그 속살을 드러냈다.

“열고 싶지도 않은 티파티를 열고 폐하가 밝히고 싶지 않은 비밀까지 파헤쳐가면서.....왜 이렇게까지 해?”

의도치 않게 엿보게 된 감정에 더없이 혼란스러워진 데네브가 물었다.
갑작스럽게도 데네브는 알테어가 몹시 낯선 사람처럼 느껴졌다.

“나한테 대놓고 그런 질문을 하는 사람은 너밖에 없을 거야, 데네브.”

그녀의 물음에 알테어는 소파에서 몸을 일으켜 허리를 바로 세웠다.
빈 찻잔을 테이블에 올려놓은 알테어가 살포시 눈꼬리를 접었다.

“솔직히 말해줘. 내 호의를 받는 게 싫어?”

19. 열 살, 위안, 여름(3)

“네 호의?”

처음 보는 알테어의 그림 같은 미소에 데네브가 눈을 가늘게 뜨고 그를 면밀히 살폈다.

“그게 네 호의인 거야?”

“.....”

“정말로?”

무언가 이상했다.

높아지는 목소리와 그를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을 짓고 있는 데네브의 얼굴을 보며 알테어는 그것을 느꼈다.

하지만 알테어는 데네브가 그의 무엇을 기이하고 이상케 여기고 있는지 짐작조차 가지 않았다.

“그럼 나는 네 호의 같은 거 필요 없어.”

“뭐라고?”

결심을 굳힌 듯, 단호해진 데네브의 말에 생글생글 웃고 있던 알테어의 몸이 그대로 딱 굳었다.

놀란 기색이 역력한 알테어의 눈을 마주한 데네브가 다시 한 번 또박또박 큰 목소리로 제 의사를 밝혔다.

“나는 네 호의를 받는 게 싫어, 알테어.”

"....."

알테어는 머리가 새하얗게 변함을 느꼈다. 그녀의 거부에 발밑이 훅 꺼지는 듯한 충격이 전해졌다.

알테어의 머릿속은 이내 단 하나의 질문으로 가득 찼다.

‘왜? 왜 내 호의가 싫은 거야? 어떻게 내 호의가 싫을 수 있지?’

그는 친절하고 상냥한데다 왕자라는 써먹기 좋은 유용한 신분을 가지고 있었고 무엇보다 데네브가 원하는 대로 빠르게, 그녀를 만나러 와주기까지 했다.

데네브와 만나기 위해 그가 어떤 노력과 수고를 감수했는데 어떻게 그녀가 그의 호의를 받기 싫다고 말할 수 있단 말인가.

“알테어.”

데네브가 말했다.

“나는 너를 희생하면서까지 너를 만나고 싶진 않았어.”

“.....무슨?”

“네가 레굴루스 폐하와 기 싸움을 하고 미래 왕비 후보를 뽑을지도 모른다는 수상한 소문이 도는 파티를 열게 하면서까지 너랑 만날 생각은 없었다고.”

"....."

“나는 네가 너자신을 걸면서까지 일을 벌이지 않았으면 해.”

알테어는 그게 무슨 소리냐며 데네브를 비웃어주고 싶었다.

들은 것은 그의 입에서 나온 단편적인 이야기뿐임에도 다 알고 있다는 듯이

심각한 표정을 짓고 있는 그녀에게 화를 내고 싶었다.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가 여기로 오기까지 무엇을 했는지, 무슨 생각을 했는지 알지도 못하면서.
고작 말 몇 마디로 자신을 이리저리 재단하다니. 어떻게, 감히.....!

“그래, 난 아무것도 몰라.”

알테어는 그제서야 그가 자신의 생각을 입 밖으로 내뱉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아차, 싶었지만 이미 생각은 줄줄이 혀를 타고 밖으로 나온 뒤였다. 한 번 뱉은 말은 주워 담을 수 없었다.

“네 말대로 난 네가 나랑 만나기 전까지 무얼 하고 무얼 느꼈는지 몰라.”

데네브의 말이 한 귀로 들어오고 한 귀로 빠져나갔다. 알테어는 손끝을, 아니 몸을 덜덜 떨고 있었다.

‘나를 자신의 선 안에 들여 준 유일한 사람이었는데.’

알테어는 생각했다.

‘단 하나뿐인 사람이었는데. 내가 다 망쳤어.....’

이제 그녀는 그를 어떻게 볼까. 왕자로서, 아니 알테어로서 보이면 안 될 모습을 보였으니 분명 경멸하거나 질렸을 것이다. 하지만.....

“내가 날 걸지 않으면.....대체 뭘 걸어야 하는데.....”

가진 게 자기 자신밖에 없는 알테어는 걸 수 있는 것도 자기 자신밖에 없었다.
물건도 사람도 마음도 전부 어느 누군가의 욕망과 목적에 한 발짝씩 걸쳐져
있어서 그만을 위한 건 안배되어 있지 않아서 알테어는 태어나면서부터 주어진
자신의 신분을 이용하는 수밖에 없었다.
그에겐 그것뿐이었다.

“하지만 너는 그걸 싫어하잖아.”

알테어는 고개를 들어 데네브를 바라보았다.
놀랍게도 그녀는 그를 경멸하는 눈으로도 질렸다는 시선으로도 보고 있지
않았다.

“화가 날 정도로 분하고 끔찍해하잖아.”

그녀는 안타까워하고 있었다.
타인의 감정에 한에 예민함의 극을 달리는 알테어는 데네브가 자신을 동정하
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왕비님의 상태가 그렇게 나쁘다면서요?]

[아무래도 내년까지는 상태를 봐야 할 거 같아요. 앞으로 있을 행사들은 아무
래도 전부 취소될 거 같군요.]

[불쌍한 알테어 왕자님. 왕비님이 왕자님 얼굴도 못 알아보다면서요?]

[폐하께서도 왕자님의 알현신청을 거절했다더군요.]

[세상에, 이를 어쩔담. 그럼 두 분 중 아무도 알테어님의 생일이 지나간 걸 신경 쓰지 않겠네요.]

[가여워라. 가엾고 불쌍하신 알테어 왕자님.]

“아니야!”

어리니까 이해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며, 들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며 뒤에서 마음껏 떠들어대던 사람들의 목소리가 알테어의 신경을 긁어내렸다.

어느새 데네브의 얼굴이 그들의 그려진 듯한 동정서린 얼굴로 변모했다.

“아니야! 누가 뭘 싫어한다는 거야? 나는 전혀, 아무렇지도.....!”

“그럼 왜 화를 내는 거야?”

얼굴을 구기고 벌떡 화를 내며 데네브의 말을 부정하는 알테어를 향해 그녀가 물었다.

“내가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빨리 만날 수 있었냐고 물었을 때부터 넌 쪽 화를 내고 있었잖아. 두 번은 쓰기 싫은 마법을 썼다면서.”

“.....아니야.”

“하던 말을 돌리고 마시기 싫은 차까지 꾸역꾸역 먹어가면서 스트레스를 억눌렀잖아.”

“.....아니라고.”

하지만 마음 속 한 구석에서 알테어는 알았다.

그건 사실이었다.

알테어는 그가 진한 단 맛의 차를 꼭꼭 참아가며 마셨던 때를 떠올렸다.

지금도, 반쪽짜리 진실들로 의미심장한 말만 뱉어대며 제게는 절대 진심을 보이지 않던 아버지와 대화 때도.

알테어는 스트레스를 억누르기 위해 다른 스트레스를 건디는 걸 택해왔다.

마차 안에서 데네브가 준 극악한 맛의 사탕을 전부 녹여 삼켰던 것도 그 때문이었다.

“그럼 말해봐. 너 지금 아무렇지도 않아?”

“.....”

“괜찮은 거야?”

몸을 일으킨 데네브가 테이블 너머로 손을 뻗어 알테어의 이마를 매만졌다.

알테어는 그제서야 데네브를 제대로 볼 수 있었다.

그의 불행을 입으로는 안타까워하면서도 눈으로는 즐거워 어쩔 줄 모르던 치들과 다르게 세상 심각한 데네브의 얼굴엔 걱정이 가득 서려 있었다.

그의 무엇이 어떻게 안 좋은 지도 모르면서, 그저 감으로 물어본 것뿐일 텐데.

그럼에도 데네브의 질문은 알테어의 가장 연약하고도 건드리고 싶지 않았던 심장의 한 가운데를 찌르고 들어왔다.

알테어는 입술을 달싹였다.

괜찮다고 말하고 싶은데 어쩐지 괜찮다는 말이 나오지 않았다.

분명 식은 스튜를 들이마시는 것보다 쉬운 거짓말일 텐데 목구멍이 막힌 것마냥 숨통이 조여 와 입을 열 수 없었다.

알테어는 제 이마를 짚고 있는 데네브의 손을 끌어 잡았다.

어째서인지 몸의 떨림은 어느새 멎어 있었다.

“아니.”

차분하기 그지없는 목소리로 알테어가 답했다.

“전혀 괜찮지 않아.”

데네브는 그에게 왜, 무엇이 괜찮지 않냐고 묻지 않았다.
말없이 테이블을 밟아 훌쩍 뛰어넘은 그녀는 알테어의 옆으로 가 양팔을 벌렸다.
더 입을 열 필요는 없었다. 알테어는 두 번 생각 않고 그 품에 얼굴을 묻었다.

“다들 너무 짜증나.”

마음 속 아주 깊은 곳에 누르고 눌러왔던 진심은 그제서야 터져 나왔다.

“주변에 모두가 매일 같이 나를 감시해.”

알테어가 조곤조곤 말을 꺼냈다.

“나를 정말로 위하지도, 걱정하지도 않으면서. 다들 제 안위가 제일이면서 거짓말만 늘어놔.”

차분하고, 조용하게 흔들림 없이.

“이러면 안 된다, 저러면 안 된다. 다 당신을 위해서 하는 소리다..... 사실은 그냥 인형처럼 앉아 웃기만 하면 만족하는 주제에.”

이마에 닿은 피부를 통해 알테어는 데네브의 심장소리가 또렷이 들을 수 있었다.

“다른 귀족들도 아버지와 외할아버지 사이에서 눈치만 보느라 바쁘고 나를 통해 뭘 얻을 수 있나만 보지. 사실은 나 같은 거에 별 관심도 없어.”

피부에 맞닿은 온기가 뜨거웠다. 정수리에서 타인의, 데네브의 숨결이 느껴졌다. 혼자가 아니라는 감각이 선명했다.

“아버지.....아버지는 어떻게 어머니가 아닌 다른 이를 사랑할 수 있는 거지?”

그 때문인지 알테어는 멈추지 않고 말을 이어나갈 수 있었다.
준비해 둔 것 마냥 막힘없이. 봇물이라도 터진 듯 알테어의 입은 멈추지 않았다.

“어머니에겐 잘 지내려는 노력조차 하지 말라 했으면서, 다 같이 차를 마시자는 내 부탁 같은 건 전혀 귀 기울여 들어주지 않았으면서. 어떻게.....”

입 밖으로 뱉고 나서야 알테어는 제 안에 이토록 많은 이야기가 쌓여 있었다는 걸 처음 알았다.

“어떻게 자기 혼자만 다른 행복을 찾을 수 있지?”

자신이 이토록 괴로워했다는 사실을 처음 알았다.

“어머니도 그래. 나는 여기 있는데, 이렇게나 바르고 사랑스럽고 이성적인데 대체 왜 나를.....내가 여기서 뭘 더 해야.....”

“알테어.”

그는 울음소리조차 내지 않고 울고 있었다.
덤덤한 말투엔 작은 흐느낌조차 없어 얼굴을 보지 않았다면 아무도 그가 울고 있다는 사실을 눈치채지 못했을 것이다.
데네브는 몸을 떼고 축축한 그의 얼굴을 양손으로 감싸 들어 올렸다.

젖어서 흐릿해진 호수 바닥 같은 눈이 데네브의 밤하늘 같은 검은 눈동자와 마주 했다.

“복잡한 어른들 사이의 일은 엇이나 먹으라 그래.”

코와 코끝이 닿을 만큼 가까운 거리에서 그녀가 속삭였다.

“너는 아무 잘못도 없어. 네가 가식적인 개새끼들 사이에 둘러싸인 것도 부모님이 이기적으로 구는 것도 네가 너를 걸 수밖에 없는 좇같은 상황에 처한 것도 전부 네 탓이 아니야.”

“.....”

알테어는 치밀어 오르다 터질 것만 같던 감정이 그대로 가라앉는 것을 느꼈다. 그는 방금 제 귀가 무엇을 들었는지 믿을 수 없었다.

“알테어, 싫으면 하지 않아도 돼. 네가 원하는 이 달콤한 차도 마시지 않아도 되고 열기도 싫은 파티를 열면서까지 레굴루스 폐하랑 신경전을 벌이지 않아도 돼. 호의를 베푸는데 네 기분이 개 같으면 다 무슨 소용이야.”

얼빠진 알테어의 얼굴을 마주하고도 그녀는 눈 하나 깜짝 앓고 길거리 시정잡배들이나 쓸법한 상스런 말을 몇 마디 더 내던졌다.

알테어는 지금 이 순간 자신이 에반의 극성을 조금이나마 공감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었다.

“.....하지만 널 만나고 싶었는걸.”

머릿속으로 에반이 할법한 잔소리를, 아니 아예 에반 자체를 지워버리며 알테어가 말했다.

“가능하면 빨리, 더 자주 만나고 싶었어.”

“.....그렇게 말해줘서 정말 기뻐.”

태양빛을 받아 녹는 눈처럼 사르르 풀어진 데네브의 얼굴이 가까워졌다.
우느라 뜨거워진 알테어의 이마와 상대적으로 조금은 시원한 데네브의 이마가 맞닿았다.

“나도 네가 정말 보고 싶었어. 하지만 다음엔 네가 싫어하지 않는, 다른 방법을 써서 만나도록 해보자.”

알테어의 양 손을 감싸 쥐며 데네브가 말했다.

“나는 네 호의를 받는다면 너도 기뻐할 수 있는 방법으로 받고 싶어.”

“.....”

“나 혼자만 기쁜 걸 어떻게 즐길 수 있겠어. 그렇지?”

알테어는 미소 짓고 있는 그녀의 얼굴을 올려다보았다.
나직한 목소리, 코를 간질이는 풀내음, 그리고 손바닥을 통해 느껴지는 사람의 온기까지.

알테어는 할 수만 있다면 지금 이 시간을 잘라 영원으로 만들고 싶었다. 이건 처음으로 그가 가진 ‘알테어만의 시간’ 이었다. 그를 위한, 그의 것이었다.

더는 참을 수 없어 알테어는 데네브를 끌어안았다. 팔부터 손가락 끝까지, 온몸에 힘을 줘 그는 그녀를 그러안았다.

부드러운 그녀의 목덜미에 고개를 파묻고 나서야 알테어는 그제야 소리를 낼 수 있었다.

그것은 상처 입은 짐승이 우는 소리 같기도 하고 갓 태어난 어린 아기가 내는 것 같기도 한 울음소리였다.

형태조차 갖춰지지 않은, 원색적인 감정의 발현이었다.

알테어가 그녀의 품에 안겨 울음을 토해내는 동안 데네브는 미동도 하지 않았다. 아주 긴 시간 동안 그녀는 그저 그의 등을 다독여 주었다.

알테어가 울음을 그칠 때까지.

20. 열 살, 위로, 여름(4)

알테어가 울음을 그치자마자 데네브는 에반을 불렀다.

알테어가 먹을 수 있는 달지 않은 홍차를 주문하기 위함이었다.

“아, 내 차는 단맛 나는 거로 줘. 그리고 같이 먹을 다과는 이번엔 딸기 케이크로.....”

“아, 아가씨!”

점심을 준비하고 있던 모양인지 밀가루 묻은 앞치마를 두르고 있던 에반이 갑자기 무릎을 털썩 꿇었다.

과자에 이어 이제는 케이크를 먹을 생각에 신이 나 들떠 있던 데네브는 화들짝 놀랐다.

데네브가 건네 준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고 있던 알테어도 그의 절망서린 목소리에 고개를 돌렸다.

충격으로 인해 희게 질린 집사의 얼굴이 알테어의 눈에 들어왔다.

돌아가는 상황을 이해하지 못해 데네브도 알테어도 에반을 응시한 채 눈만 깜빡였다.

그러는 사이 굳어져있던 에반의 입이 열렸다.

“울리신 겁니까?”

“.....”

“.....”

알테어는 그 한 마디로 단번에 상황을 이해할 수 있었다.

에반은 데네브가 그를 괴롭혀 울리기라도 한 줄 알고 있는 것이다.

그들은 고개를 돌려 서로를 바라보았다.

‘어찌지?’

데네브가 눈으로 물었다.

‘뭐라고 설명해?’

“.....”

알테어는 그대로 고개를 돌렸다. 귀찮으니 네가 알아서 하라는 뜻이었다.

“.....!”

옆에서 데네브의 목소리로 ‘배신자!’ 라는 외침이 들려오는 듯 했다. 물론 기분 탓일 것이다. 실제로 아무 소리도 들려오지 않았으니까.

“아가씨가 올리신 겁니까!”

“아니야!”

“제가 아무리 안전에 주의하며 놀라 말씀드렸지만 정말 ‘안전’만 주의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지켜야 할 예의와 선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안 울었다고!”

데네브는 필사적으로 부정했지만 에반은 이미 마음속으로 알테어를 눈물짓게 한 게 그녀라고 결론내린 듯 했다.

손에 묻은 물기까지 깔끔하게 닦아낸 알테어는 평소 사람의 행실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금 깨달았다.

“네가 평소에 어떻게 지내는지 이걸 보면 좀 알 거 같아.”

“남 일인 것처럼 멀리서 구경하지 말고 뭐라고 말 좀 해봐!”

“데네브 아가씨! 폭력은 안 됩니다!”

해명하는 와중임에도 열이 오른 데네브가 알테어의 팔을 거칠게 잡아당기자 에반이 깜짝 놀라 그녀를 말렸다.

데네브의 주장이 신빙성을 더 잃은 건 전혀 놀라운 일이 아니었다.

사건은 알테어가 ‘데네브 때문에 운 게 아니다.’ 라는 말을 몇 번이고 반복한 후에야 겨우 진정되었다.

이제는 ‘안전’ 뿐만 아니라 ‘예의’ 에도 강세를 둔 에반이 겨우 밖으로 나가자 데네브는 참았던 화를 다시 터트렸다.

“이 배신자!”

데네브가 던진 소파의 쿠션이 알테어의 머리를 치고 지나갔다.

아니, 거의 치고 지나갈 뻔했다. 쿠션에 맞기 전 알테어는 손을 들어 그 부드러운 솜뭉치를 잡아챘다.

“네가 자꾸 이러니까 에반이 널 의심하는 거야.”

“조용히 해. 계속 내 성질 건드리면 이번엔 쿠션이 아니라 책이 날아갈 거야.”

주변에 쿠션보다 책이 더 많다는 사실을 깨달은 알테어는 순순히 입을 다물어 주었다.

하필이면 소파 주변엔 얇은 책들보다 표지가 특히 두꺼운 책들이 많았다.

“점심 먹기 전까지 이거나 하자.”

알테어의 배신 아닌 배신에 한참을 투덜거리던 데네브가 책 더미 사이에 숨겨져 있던 잘 세공된 체스세트를 가져왔다.

“올해 생일 선물로 받은 거야. 마를론에 있는 어떤 장인이 만든 거라는데 정말 예뻐.”

알테어는 체스판과 체스 말에 음각된 무늬를 손끝으로 살펴보았다. 오돌토돌한 감각이 기분 좋게 그의 촉각을 자극했다.

“예쁘긴 한데, 체스판이 예쁘면 뭐에 써?”

말이 끝나자마자 책이 날아왔다. 아무래도 방금 그 말이 데네브의 신경을 건드린 모양이다.

“체스 둘 줄 알아?”

“알아.”

순서에 맞게 말을 판 위에 말을 배치시키며 알테어가 답했다.

“친구하라고 불려온 애들이랑 몇 번 뒤봤어. 그래도 꽤 오래전 일이야. 마지막으로 뒀던 게 재작년이었나.....”

“같이 둘 친구가 없으면 그런 일도 일어나는군.”

“너도 캄파넬라 백작이랑만 뒤봤다면서.”

“자, 이제 할까?”

알테어의 눈흘김을 가볍게 넘기며 데네브가 말했다.

오랜만에 체스 말을 잡은 알테어를 배려해서인지 데네브가 백, 알테어가 흑이었다.

“그보다 너 이제 괜찮은 거야?”

“음? 아, 응. 많이 진정됐어.”

폰을 앞으로 한 칸 전진시키며 알테어가 대답했다.

진심이었다. 속에 있던 말을 전부 뱉어냈기 때문일까. 지금이라면 ‘괜찮다.’라는 말을 거짓한 점 없이 후련히 내뱉을 수 있었다.

“네 덕분이야.”

이 또한 진심이었다.

성에서는 누구도 알테어가 가진 생각이나 고민에 관심이 없었다.

어리고 어린 왕자.

비르마스 왕국의 유일한 후계자라는 것 외에 정치적 가치가 전무한 알테어에게 흥미를 보이는 건 기껏 해봐야 알테어 또래의 딸을 가진 귀족들뿐이었다.

알테어는 자신이 이토록 속마음을 드러낸 게 대체 얼마만인가 가늠해보았다.

“네 덕분이야. 정말 고마워.”

“.....”

“.....데네브?”

“후후후.”

새하얀 쿤을 손에 든 데네브가 알테어의 감사인사를 듣자마자 어깨를 떨었다.

뭔가 잘못된 건가 싶어 알테어는 화들짝 놀랐지만 고개를 든 데네브의 표정

은.....어째서인지 어린아이를 놀리는 능글맞은 아저씨 같은 모습이었다.

“후후후후후.....”

“뭐야, 왜 그래?”

“흐흐흐.....”

“.....너 지금 영애로서 지어선 안 될 표정을 짓고 있는 거 알아?”

“그치만 자꾸 웃음이 나오는 걸 어떻게 해?”

알테어의 차가운 시선에도 데네브는 킬킬대는 걸 멈추지 않았다. 아니, 멈출 수 없는 것처럼 보였다.

“넌 역시 날 좋아하는 구나.”

“뭐?”

“언제부터 내가 그렇게 좋아졌어?”

“.....그 허황된 자신감은 대체 어디서 나오는 거야?”

데네브의 폰을 비숍으로 잡아낸 알테어가 질색하며 눈을 가늘게 떴다.

“하지만!”

그럼에도 데네브는 기죽지 않고 목소리를 높이며 말을 이었다.

“내가 빨리 보고 싶었다고 하질 않나, 내 품에 안겨 엉엉 울지 않나, 이젠 이

몸의 고마움까지 알았으니 그게 완전히 빠져버린 게 아니면 대체 뭐야!”

“.....”

“친구사이에 좋다고 하는 게 뭐 어때서 그래! 네가 나보다 나를 더 좋아할 수도 있는 거지!”

알테어는 기가 막혀 입을 다물었다.

지금 입을 열었을 때 그는 도무지 데네브의 신경을 건드리지 않는 말을 하지 않을 자신이 없었다.

“체스는 2년 만이라고 했던가? 후후 지고 나서 울어도 괜찮아! 이번에도 내가 달래줄게!”

“.....”

“네가 가장 좋아하는 이 데네브님이 말이야!”

‘무슨 일이 있어도 이겨야겠다.’

가만히 있었더니 점점 콧대가 높아지는 데네브를 보며 알테어는 승리를 다짐했다.

고마운 건 고마운 거고 승부는 이와 별개였다.

* * *

“.....실화냐.”

쿵!

“데네브 아가씨, 식사 중에 테이블에 머리를 대는 건 예의에 어긋나는 행동입니다. 부디 허리를 바로 세워주세요.”

“7전 7패라니 이게 말이 되냐고!”

“소리를 지르시는 것도 안 됩니다.”

“으아아아아!!!”

“난동을 부리는 것도 그만 뒤 주세요.”

아까 전의 패배를 곱씹기라도 하는 건지(몇회차 께의 패배를 떠올리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데네브가 머리를 부여잡고 바닥을 굴렀다.

그런 데네브를 보며 옆에 서서 식사 시중을 들어주고 있던 에반은 ‘바닥을 구르지 말아주세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었다.

이런 엉망진창인 식사시간은 맹세코 처음이었다.

에반이 손수 만든 맛좋은 고기 파이를 입 안에 밀어 넣으며 알테어는 생각했다.

‘어떤 의미에선 굉장하네.’

이럴 때 써도 괜찮은 표현인지는 모르겠지만 식견이 넓어진 기분이다.

“너 마지막으로 체스를 둔 게 2년 전이라면서! 그거 다 거짓말이지? 어떻게 그렇게 잘 둘 수 있는 거야?”

“음.....”

알테어는 2년 전 다른 아이들과 체스로 노는 걸 그만뒀던 이유를 떠올렸다.

체스 판에 너무 열중한 나머지 체스엔 자신 있다고 덤벼오는 애들을 연속해서 울렸기 때문이었다.

‘승부에 열중하느라 이번에도 그 경우를 떠올리지 못했는데.....데네브가 안 울어서 다행이야.’

다행이라고 해야 할까.

알테어에게 패배한 후 데네브는 너무 화가 난 나머지 지금 식사도 제대로 못하고 있었다.

순간 짓궂은 마음이 들어 알테어는 알뜰기 그지없는 목소리로 그녀를 약 올렸다.

“내가 거짓말 했는지 안했는지 보다는 2년 만에 체스 말을 잡은 나한테 진 네 실력을 먼저 의심해야 하지 않을까?”

“으아아악!”

“옷으로 바닥 닦지 말고 식사나 해. 파이가 식잖아. 그보다 이거 정말 맛있네요, 에반.”

“입맛에 맞으시다니 영광입니다.”

에반과 도란도란 대화를 나누며 알테어는 고기 파이를 크게 한 입 베어 물었다.

데네브는 분한 마음에 다시 몸을 비틀었다.

“아가씨, 다른 사람을 향해 손가락질을 하는 것도 예의에 어긋나는 행동입니다.”

옆에 선 에반이 데네브를 향해 충고했지만 이번에도 그녀는 그의 말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다.

전혀 효과가 없는 것 같음에도 계속해서 데네브에게 예절을 주입하려는 에반이나 그런 에반의 말을 자연스럽게 흘려 넘기는 데네브나 참 대단하다고 알테어는 생각했다.

“두고 봐.”

난생처음 겪어보는 어수선했던 분위기 속에서 겨우 식사를 마치고나자 데네브는 알테어를 데리고 정원으로 나왔다.

“더 연습해서 다음엔 꼭 이겨 줄 거야.”

그녀의 손에 들린 바구니 안에는 에반이 정성들여 준비한 미니 컵케이크들이 들어 있었다.

‘체스 두면서 과자고 케이크고 한 가득 먹었으면서.....’

게다가 그들은 점심을 막 먹은 직후였다.
아직도 데네브의 위장엔 또 다른 음식이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에 놀란 알테어는 이 감상을 그녀에게 전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했다.
주변에 책은 없었지만 주먹만 한 돌들은 제법 눈에 들어왔기 때문이다.

“그런데 우리 지금 어디 가는 거야?”

“내 비밀 장소!”

색색이 핀 크고 작은 꽃들 사이로 난 길목에 발을 들인 데네브가 바구니를 크게 흔들었다.

“전에 데려가 준다고 했잖아!”

저렇게 바구니를 흔들면 컵케이크의 모양이 다 망가질 텐데, 라고 알테어는 생각했다.

하지만 말리진 않았다.

어느새 기분이 다 풀렸는지 콧노래 까지 흥얼거리는 그녀의 기분이 몹시 좋아 보였기 때문이다.

“체스를 더 두고 싶지만 이러다간 너는 하루 종일 나랑 체스만 하다 집에 갈 거 같은 말이지.....”

“하루 종일 내리 질 게 두려운 게 아니라?”

“바구니는 안 아플 거 같지?”

“.....”

‘돌이 아니라 그 쪽이었나!’

수국과 백합이 활짝 핀 꽃길을 걸으며 데네브의 뒤를 따르던 알테어가 비폭력 주의를 주장했다.

당연하지만 데네브는 그 말을 조금도 귀담아 듣지 않았다.

얼마나 더 걸었을까.

자색 수국이 모여 있는 화단의 모퉁이를 돌아 천장이 유리로 된, 커다란 흰색 건물이 눈에 들어왔다.

“내가 생각해 봤는데 말이야.”

‘뭘 생각했는데?’ 라고 알테어가 채 되묻기도 전에 데네브가 앞으로 나섰다.

그녀는 익숙한 듯이 흰 건물의 문을 옆으로 밀어 열어젖혔다.

문이 열리자마자 더위에 강한 알테어도 조금 덥다고 느껴질 법한 열기가 훅, 들이닥쳤다.

열기 속에는 향긋하고 달콤한 꽃냄새가 섞여있었다.

비강이 자극되는 것을 느끼며 알테어는 코를 찔룩였다.

그는 이곳이 온실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알테어의 예상을 확인시켜주듯이 문 안으로 들어가자 살아있는 갖가지 식물들이 생기를 뿜으며 사방을 푸르게 물들이고 있었다.

“굳이 네가 희생하지 않고도 나랑 만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거 같아.”

여전히 알테어보다 앞서 걸어가고 있던 데네브가 말했다.

“더불어 백합 때문에 이상한 소문이 돌아 고생하는 네 티파티 테마도 해결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는 그녀를 향해 ‘어떻게?’ 라고 물었다.

그 물음에 답하듯이 데네브는 ‘짜잔!’ 이라고 말하며 시야를 가리고 있던 커다란 잎을 들어올렸다.

“.....”

그건 새파란 꽃이었다.

유리처럼 투명하고 사파이어만큼 푸른, 보석을 연상케 하는 아름다운 꽃이었다.

알테어는 이보다 더 예쁜 꽃을 본 적이 없었다.

“페블 벨루란이라고 해.”

놀라서 벌린 입을 다물지 못하는 알테어를 향해 데네브가 자랑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아주 옛날 문헌 속에만 존재하던 꽃인데 아버지가 아이스나 식물원에서 일부 받아 온 모종을 내가 키운 거야! 어때? 아주 예쁘지?”

알테어는 저도 모르게 흘린 듯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런 그의 반응이 마음에 드는지 데네브가 환히 미소 지었다.

“전부 너한테 줄게.”

“뭐?”

“너한테 줄 테니까 백합이 아니라 이 꽃을 주제로 티파티를 열어.”

예상치 못한 그 말에 알테어는 눈을 깜빡였다.
마주한 데네브의 검은 눈동자가 장난스럽게 반짝였다.

“그럼 테마가 바뀌었으니 미래의 왕비를 구한다는 네 티파티를 둘러싼 소문도 가라앉을 거고 이 꽃을 제공하는 게 나니까 너랑 내가 어울려도 아무도 뭐라 하지 못할 거야. 그렇지?”

“그거.....그건 정말 좋은 생각이다.”

알테어는 다시 넋을 놓고 이 넓은 온실 가득 피어있는 페블 벨루란을 바라보았다.

눈앞의 꽃들, 페블 벨루란을 보기 전까지 알테어는 캄파넬라 백작이 희귀한 식물을 재배한다는 레굴루스의 말을 믿지 않고 있었다.

‘그냥 나를 여기로 보낼 핑계라고만 생각했는데.’

알테어는 레굴루스의 말이 맞았다는 사실과 데네브가 꺼낸 회심의 아이디어, 둘 중 어느 부분에서 더 놀라야 할지 알 수 없었다.

한 가지 확실한 건 두 의견 모두 알테어를 놀라게 했으며 알테어는 또다시 데네브에게 감사해야 할 일이 늘었다는 사실이다.

21. 낭비되고 있는 것들

커튼 사이로 스며들어오는 빛이 눈부셨다.

그 누구의 도움도 없이 오늘도 눈꺼풀 너머에 머무르는 빛만으로 멜비나는 잠에서 깨어났다.

‘또 아침이야.’

눈을 찌르는 햇살을 피해 고개를 돌리며 그녀는 방안을 떠도는 꽃향기를 폐부 깊숙이 들이마셨다.

달콤하면서도 짙은 향기.

오늘 그녀의 침상 옆을 장식하고 있는 꽃은 새하얀 순백의 재스민이었다.

‘또 하루가 시작 되 버렸어.’

코끝에 감도는 건 분명 달달한 꽃냄새이건만 그 사이로 자꾸만 낯선 향이 끼어든다.

살점이 썩어 들어가는 죽음의 냄새.

부패한 시체의 냄새.

아니, 그런 냄새는 나지 않았다.

이 방에서 나는 건 공기를 데우는 고소한 햇볕 향과 침대 옆 꽃병에 담긴 자스민의 달콤한 향, 그리고 자기 전 몸에 바른 독한 향유 냄새가 전부였다.

“다 착각이야. 다 착각이야.....”

몇 번이고 스스로에게 되뇌이며 멜비나는 침대에서 몸을 일으켰다.

기억의 밑바닥에서부터 시체의 얼굴에서 떨어진 눈알이 바닥을 굴렀다.

멜비나는 몇 번이고 그 기억을 다시 의식 아래로 가라앉혔다.

“여긴 아무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다 내 착각이야.”

매일 아침마다 한참을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이고 나서야 멜비나는 겨우 침대 밖으로 발을 디딜 수 있었다.

똑똑.

어느새 시간이 훌쩍 흘렀는지 시녀들이 그녀를 깨우기 위해 방문을 두드렸다.

“왕비님, 아침이에요. 일어나 계신가요?”

“.....그래, 들어와.”

허리를 바로 세우며 멜비나는 표정을 갈무리 했다.
왕비인 그녀의 업무는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이었다.

“좋은 아침이에요, 왕비님.”

멜비나의 전속 시녀, 세라가 어제와 같이 생기발랄한 인사를 건넸다.

“간밤에 잘 주무셨나요?”

“응.”

클로센 백작의 차녀인 세라는 멜비나가 왕비가 되기 전부터 친분을 이어온, 지금에 와서는 그녀와 가장 가까운 사이였다.

멜비나가 왕비가 아니고 세라도 그녀의 시녀가 되지 않았다면 둘 사이는 좀 더 격식 없는 친구처럼 지냈을 것이다.

“덕분에 잘 잤어.”

언제나처럼 똑같은 악몽에 시달렸단 이야기는 쏙 빼며 멜비나가 말했다.

“자스민 향이 너무 좋아서 잘 잘 수 있었던 거 같아.”

“그거 다행이네요.”

멜비나의 긴 검은 머리를 빗어 넘겨주고 있던 세라의 낭랑한 웃음소리가 방 안에 울려 퍼졌다.

“고심한 보람이 있었어요.”

사실 지금도 둘 사이는 평범한 왕비와 그 시녀라 보기엔 충분히 격식이 없는 편이었다.

너무 활기차고 멜비나를 향해 자기주장이 강한 세라를 못마땅해 하는 이들이 한 둘이 아닌 정도로.

지난 수년간 많은 이들이 멜비나에게 세라를 전속시녀로 삼는 걸 만류했지만 그녀는 그들의 충고를 모두 무시했다.

아버지인 케틀렉 공작도 뭐라 하지 않는 걸 왜 그들이 나서서 이래라저래라 한단 말인가.

“그럼 오늘도 꽃은 자스민으로 장식할까요? 여름이니까 백합도 좋을 거 같은데.....”

“네 선택에 맡길 게.”

멜비나는 자신에게 곁에 둘 시녀를 고를 자유 정도는 있다고 믿었다.

“네가 고른 거라면 뭐든 좋아.”

세라와 멜비나가 소녀마냥 웃음을 터트리며 수다를 떠는 동안 방 안의 다른 시녀들은 바빠 움직였다.

멜비나가 마실 차와 세안할 물을 준비하고 꽃병의 꽃을 갈고 침대를 정리하는 등.

느긋하고 여유로운 멜비나에게 말을 거는 세라와는 달리 다들 일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왕비의 시녀로서 아침마다 해야 할 일은 많고 준비해야 할 것도 많은 건 당연한 일이었다.

원래라면 세라 역시 이들처럼 바빠 움직여야 했다.

하지만 멜비나의 총애를 한 몸에 받는 그녀는 늘 그렇듯이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

매일 같이 그녀가 하는 일이라곤 멜비나의 말동무가 되어주거나 그녀의 머리를 빗어주거나 잠자리를 장식할 꽃을 정하는 일 밖에 없었다.

다른 시녀들의 눈엔 아니꼽기 그지없을 광경이었지만 눈을 흘길지 언정 나서서 세라를 나무라는 이는 아무도 없었다.

이 왕비궁 안에서 주인인 멜비나의 심기를 거스를 수 있는 이는 없었기 때문이다.

단 한 명.....

“알테어 왕자가 티파티를 여는 걸 허락했다고 들었습니다.”

“.....네, 맞아요.”

멜비나의 아버지이자 왕의 사위, 개국공신인 클라인 클로 케틀렉 공작을 제외하고서.

최근 들어 흰머리가 나기 시작한 클라인 공작은 회색빛으로 물든 머리와 왕비와 똑 닮은 새파란 푸른 눈을 가지고 있었다.

무관이 아님에도 50이 다 되가는 그의 어깨와 허리는 반듯하고 꼳꼳했으며 몸에서 풍기는 기백 역시 성성했다.

칼날을 떠올리게 하는 서슬 퍼런 예기 서린 눈은 싸늘하고 날카로웠으며 혀에서 뱉어지는 말 역시 얼음 덩어리를 뱉어내고 있는 것 마냥 차가웠다.

“여전히 소식이 빠르시네요.”

빈틈없이 넘긴 남자의 회색 머리칼과 반듯한 옷차림을 훑어보며 멜비나는 찻잔을 가져다 비틀리는 입매를 가렸다.

원래라면 점심을 먹을 시간이었지만 갑작스런 클라인 공작의 방문에 멜비나는 그에게 식사가 아닌 차를 대접했다.

그 날 이후, 그와 함께 마주보고 앉아 느긋하게 식사를 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이다.

지금 마시고 있는 차도 엿힐 것 같은데 고체의 음식은 오죽하겠는가.

클라인 공작과 대화 하고 있자니 썩은 시체의 부패한 향기가 다시금 그녀의 비강을 자극했다.

‘다 내 착각이야, 다 내 착각이야.’

멜비나는 최대한 차의 진한 향기에 집중했다. 아니, 집중하려고 했다. 하지만 홍차의 향은 자꾸만 썩은 살점의 향기와 섞여 멜비나의 정신을 어지럽혔다.

“너무 이르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스스로를 달래는 멜비나의 상념 사이로 클라인 공작의 목소리가 파고들었다.

“알테어 왕자님은 아직 열 살 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파티를 주관하기엔 너무 어려요.”

멜비나는 고개를 들어 눈을 깜빡였다.

그녀는 공작이, 제 아버지가 한 말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

“.....어리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클라인 공작이 왕비를 향해 예의바르게 답했다.

“더불어 성 안에서 돌기 시작한 소문을 생각해 봤을 때 티파티는 시기상조가 아닌지.....”

“난 열 살에 결혼해서 왕비가 되었어요.”

그녀가 어찌나 찻잔을 거칠게 내려놓았는지 그릇이 깨질 것만 같은 날카로운 소리와 함께 테이블이 덜컥거렸다.

멜비나의 새파란 눈이 증오를 양식으로 불꽃처럼 타올랐다.

“아버지가 그렇게 만드셨죠.”

“.....”

“그런데도 알테어가, 열 살이란 나이가 어리다고요?”

“.....진정하세요, 왕비님.”

떨리는 멜비나의 손을 바라본 클라인 공작이 여전히 낮고 침착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왕비님의 상황과 알테어 왕자님이 처한 상황은 다릅니다. 이를 같게 여기지 마시고 지금은.....”

“같지 않다고요? 열 살이라는 어린 나이도, 내 의사하나 자유롭게 표현 못하는 상황마저도 같은데 대체 뭐가 같지 않다는 거죠? 나랑 그 애가 무엇이 다른데요?”

“.....너희들은 나가보거라.”

감정이 격해진 멜비나가 주변의 시선조차 잊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자 공작이 주변에 있던 시녀들을 향해 손을 내저었다.

멜비나의 눈에서 다시금 불꽃이 튀었다.

“내 시녀들이에요! 감히 아버지가 제 사람들에게 어떻게 행동하라고 명령하실 수는 없어요!”

거짓말이었다.

케틀렉 공작은 마음만 먹으면 멜비나의 시녀들을 눈짓만으로도 이곳에서 물릴 수 있었다.

“그럼 왕비님께서 명령해주시죠.”

그러나 공작은 그러지 않았다.

그는 성내 권력이 돌아가는 구조를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다.

아무리 제 딸이라도 멜비나는 왕비였다.

그런 그녀를 여기서 모욕하거나 무시하는 행동을 했다간 그 칼끝은 예상치 못한 곳에서 그를 향해 돌아올 것이 분명했다.

그렇기에 그는 하지 않았다. 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해선 안 됐기 때문이다.

“흥분하신 왕비님의 모습을 여러 사람이 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너희, 나가봐.”

씨근거리며 숨을 들이마시길 반복하던 멜비나는 이내 공작의 말에 수긍했다.

궁에 들어온 지 어언 20년.

막 성에 발을 들인 10살짜리 어린애도 아니고 그녀도 지금 이 상황이 다른 이들의 눈에 어떻게 보일지, 어떻게 소문이 날지 정돈 충분히 짐작할 수 있었다.

“나가서.....내가 다시 부를 때까지 누구도 들어오지 마.....”

“왕비님.....”

“세라, 너만 남아줘. 다른 이들은 나가.....어서.....빨리!”

눈치만 보며 머뭇대던 시녀들이 멜비나의 일갈에 하나 둘 자리를 떠났다.
오직 전속시녀, 세라만이 곁에 남아 그녀의 뒤를 지켰다.
멜비나와 세라의 관계를 어렸을 때부터 익히 보았기 때문인지 클라인 공작도 세라가 남는 것엔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멍청한 것.”

다른 이들이 모두 나가고 문이 닫히자마자 한층 더 낮게 가라앉은 클라인 공작의 목소리가 멜비나를 찌르고 들어왔다.

“보는 눈이 그렇게 많은 데 이성을 잃다니. 대체 네가 몇 살이라고 생각하는 거냐?”

“여긴 대체 왜 오신 거예요?”

이를 악문 그녀는 거의 짐승이 상대를 위협할 때나 낼 법한 소리를 내고 있었다.

하지만 공작은 그런 그녀의 위협에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알테어 왕자가 티파티를 여는 걸 중지시켜라.”

애정 한 점 담기지 않은 차가운 목소리로 공작이 말했다.

“제가 왜 그래야 하죠?”

어느새 어느 정도 냉정을 되찾은 멜비나가 마찬가지로 차가운 시선을 공작에게 되돌려주며 물었다.

그의 시선이나 말투 하나하나에 상처받기엔 이미 너무 오랜 시간이 지나있었다.

성에서 보낸 어린 시절은 어떤 의미에선 그녀를 강하게 만들었다.

“그 잘난 정보력으로 아버지도 이미 아시다시피 알테어는 또래와의 교류가 거의 없어요. 선별해서 보낸 영식과도 세 번 이상 어울리는 일이 없고 남들과 이야기를 하며 시간을 보내기보단 도서관에 처박혀 곰팡내 나는 서책사이에 파묻혀 있죠.”

자리에 도로 앉으며 멜비나는 세라가 따라준 차를 끌어다 마셨다.

“어머니로서는 둘째 치고서라도 미래엔 왕이 될 소중한 후계자가 그러는 꼴, 저는 더 못 봐요.”

“.....왕비로서 훌륭한 자세다만 말했다시피 알테어 왕자는 너 때와는 상황이 다르다.”

“뭐가 다른데요?”

“소문 때문이지. 이 티파티가 미래의 왕비를 점찍어두기 위한 자리라는.”

“그래서요?”

그 소문이라면 멜비나도 이미 들은 바 있었다.

비공식적인 티파티이건만 대체 어디서 어떻게 새어나간 건지 파티의 규모부터 테마까지 이미 성내에는 이에 관해 모르는 이가 없을 정도였다.

하지만 그게 뭐 어땠단 말인가.

“언제부터 아버지가 소문 하나에 일희일비하셨는데요?”

“만에 하나의 사태에 대비하기 위함이다. 지금 내 사람 중엔 그에게 짝을 지어 줄 만한 적절한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팔짱을 낀 채 날카롭게 치켜떠진 눈으로 클라인 공작을 노려보고 있던 멜비나의 입이 벌어졌다. 기가 막혔기 때문이다.

“아버지의 사람 중에 알테어랑 맺어 줄 또래의 딸이 있는 사람이 없어서 티파티를 중지하라고요? 농담이시죠?”

“농담? 네 눈엔 내가 널 찾아와 농담까지 할 사람으로 보이더냐?”

“.....”

그야 물론 그럴 일은 없었다. 케틀렉 공작과의 농담 따먹기라니. 자신이 뻔한 말이었건만 소름이 돋아 멜비나는 팔을 쓸어내렸다.

“소문 하나에 일희일비할 필요는 없지만 만약을 대비할 필요는 있다. 성 내나 사교계에 떠도는 소문하나로 한 순간에 쌓아올린 것들이 무너질 수 있다는 걸 너도 잘 알고 있겠지?”

“.....”

“만에 하나라도 이번 티파티로 알테어 왕자의 약혼자가 정말 정해지기라도 한다면 여태까지 우리가 쌓아 올려왔던 것들이 한 번에 무너질 수 있어.”

케틀렉 공작의 표정은 진지하기 그지없었지만 멜비나는 코웃음이 나오는 것을 참을 수 없었다.

‘우리’ 라니.

자식을 도구마냥 이용하는 클라인에게 ‘나’ 라는 단어가 있을지 언정 ‘우리’ 라는 단어가 존재할 리 없었다.

몇 번이고 부정해 온 단어였지만 클라인은 언제나 아무렇지도 않은 얼굴로 ‘우리’ 라는 단어를 다시 쓰곤 했다.

멜비나는 묻고 싶었다.

‘저만으로는 부족했나요?’ 라고.

정말로 실재하는지 확인도 되지 않은 그 만약이라는 것을 위해 제 연인을 죽인 것처럼, 그렇게 제 인생을 쥐고 흔드는 것만으로는 부족해서 알테어의 인생도 자신의 것처럼 쥐고 흔들고 싶냐고, 그렇게 묻고 싶었다.

멜비나는 낭비되고 있는 것들을 떠올렸다.

그녀의 젊음, 열정, 꿈, 동경, 사랑 등.

가볍게 질문하는 것만으로도 이제는 닿을 수 없는, 가질 수 없는 감정들이 수 없이 피어올라 텅 빈 그녀의 가슴을 훑고 지나갔다.

젯더미마냥 희게 변한 감정의 잔해들이 손가락 사이로 흘러 빠져나갔다.

모든 것이 공허했다.

22. 상실과 두려움

멜비나는 거울이 싫었다.

그녀가 기억하는 한 끔찍한 일들은 모두 거울에 일어났다.

6년 전 그 날도 마찬가지였다.

“비르마스의 왕비라면 명예를 알아야지.”

방 안의 시녀들을, 세라마저 모두 물리개 한 공작이 멜비나에게 커다란 상자 하나를 내밀며 말했다.

상자에서는 처음 말아보는, 코를 찌르는 기이하고도 지독한 냄새가 났다.

멜비나는 어째서인지 그 상자에 손을 대고 싶지 않았다.

“열어봐라.”

머뭇거리는 멜비나를 향해 클라인 공작이 명령했다.

지금도 그렇지만 그 때도 감히 그 말을 거역할 수 없어 멜비나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열었다.

“헉!”

“네가 끊어내지 못했기에 내가 직접 마무리했다.”

멜비나는 숨을 들이켰다.

상자의 안에는 썩고 부패해 살점이 떨어지기 시작한 남자의 목이 있었다.

더 놀라운 사실은 멜비나가 그 남자의 얼굴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다.

“아, 알베르토.....”

떨림이 심해진 그녀의 손에서 상자의 뚜껑이 떨어졌다.

뚜껑은 떨어지면서 잘린 남자의 목을 건드렸고 그 가벼운 충격을 견디지 못한 남자의 신체의 일부분, 진녹색 눈알 하나가 상자 뚜껑을 따라 바닥을 굴렀다.

핏기가 다 빠져나가 희게 질린 얼굴 때문에 알아보기 힘들었지만 그는, 알베르 토는 멜비나의 연인이었다.

결혼한 지 12년, 알테어를 낳은 지 4년.

단 한 순간도 그녀를 돌아봐주지 않는 레굴루스를 대신해 텅 비어 있던 그녀의 심장을 따스하게 채워주던 다정한 사람이었다.

삶의 의욕을 잃어버린 멜비나가 살아있을 가치를 느끼게 해주는 유일한 사람이었다.

“어, 어째서.....”

울음소리조차 내지 못한 그녀가 구슬 같은 눈물을 방울방울 흘리며 썩어버린 남자의 볼에 손을 대었다.

지독한 썩은 내와 시체의 살점이 그녀의 손에 달라붙었다.

“어째서 이런 짓을.....!”

“만약을 위해서다.”

딸의 절규에도 눈 한 번 깜짝이지 않은 케틀렉 공작이 뜨거운 찻잔 조심스레 입가에 가져다 대며 말했다.

“알테어 왕자를 낳은 덕에 왕비로서의 네 입지는 지켜졌지만 아직도 네 자질을 의심하는 인물은 많아.”

멜비나가 레굴루스의 약혼자가 된 건 비르마스에서 케틀렉 공작의 입지가 가장 강력했던 14년 전, 그녀가 8살 때의 일이었다.

당시 레굴루스에겐 멜비나 보다 훨씬 더 왕비 자리에 걸맞은 연인이 있었지만

이를 무시하고서 약혼을 강행할 정도로 케틀렉 공작의 영향력은 대단했다.

그 덕에 멜비나는 지금 왕비의 자리에 있을 수 있었다.

평가도 자격도 위치도.

왕비가 되기 위해 멜비나에겐 그 어떤 것도 요구되지 않았다.

그런 시절이 있었다.

모든 사람들이 갓 왕이 된 레굴루스보다도 케틀렉 공작의 눈치를 보던 그런 시절이.

“너도 알다시피 지금은 네가 왕비의 자리에 올랐던 시절과는 상황이 많이 다르다.”

“.....”

“후계자를 낳았기에 한숨 돌렸지만 언제 어디서 우리의 입지를 무너트릴 이가 나타날 진 모르는 일이다.”

긴 한숨과 함께 공작이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댔다.

“항상 대비하고 빈틈없이 지내도 모자랄 판에 이런 집안도 변변찮은 출신의 기사를 애인으로 삼아서야.....”

“.....우리?”

멜비나가 물었다.

그녀의 손에는 알베르토의 얼굴이 들려있었다.

“우리는 우리 였던 적이 없어요. 아버지에겐 항상 ‘아버지’ 뿐이었죠.”

그녀는 사체의 잔해가 자신에게 묻는 걸 개의치 않았다. 믿을 수가 없었다. 아니, 믿고 싶지 않았다.

“그리고 만약? 만약이라고요? 겨우 그런 것 때문에.....이 사람을 죽였어요?”

나오지 않았던 울음소리가 조금씩 흐느낌이 되어 멜비나의 입 밖으로 새어나왔다.

“이미 많은 걸 가지고 있으면서! 아무도 당신에게, 심지어 바넷 공작조차 당신에게 뭐라 할 수 없는데!”

흐느낌은 이내 비명이 되고 절규가 되었다.

코를 찌르는 시체의 냄새에 머리가 다 아팠다. 하지만 멜비나는 그를, 그의 머리를 손에서 놓을 수 없었다.

“알테어의 성에 자기 사람을 시종장으로 심어놔으면서! 나를 이 자리에 앉혀놔으면서! 아직도 뭐가 더 가지고 싶어서 이런 짓을 하는 거예요!”

“전부다.”

탐욕과 욕망이 사람의 형체를 띠고 있다면 꼭 그의 형상을 하고 있을 거라고 멜비나는 생각했다.

“전부가 아니면 그 악마 같은 여자를 상대할 수 없지.”

“.....”

“나는 전부를 원한다.”

악마는 당신이야.

마지막의 그 문장이 생각에서만 그쳤는지 아니면 입 밖으로 내밀었는지 멜비나는 잘 기억할 수 없었다.

단 하나 분명한 것은 그 날 이후로 그녀의 손에서 썩어가던 알베르토의, 시체의 냄새가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사방을 얼마나 짙은 향기의 꽃으로 메우든, 몸 전체를 독한 냄새로 가득한 향유로 채우든 상관없었다.

시체의 감촉도, 냄새도, 바닥을 구르던 녹색의 눈알도 끊임없이 떠올라 멜비나의 감각을 지배했다.

온 사방이 알베르토로 가득해 언젠가 속삭이던 진부한 소설 속 사랑이야기처럼 멜비나를 그를 영원히 잊을 수 없게 되었다.

그녀는 언제나 그와 함께였으므로.

* * *

알테어의 티파티를 중지시키라는 케틀렉 공작의 명령 아닌 명령에 멜비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것이 그녀가 그에게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반항이었다.

하지만 멜비나는 이미 알고 있었다.

그녀의 아버지는 결국 무슨 수를 써서라도 제 뜻을 이루고 말 것이다. 언제나 그렇듯이. 사소한 것 하나라도 무엇이든.

“참, 그러고 보니.....”

멜비나의 속을 한껏 끓고 나서야 자리에서 일어난 공작이 몸을 멈칫 하더니 그녀를 향해 고개를 돌렸다.

“요즘도 레굴루스 폐하와는 소원하더냐?”

“.....요즘도?”

이해할 수 없는 질문에 멜비나는 고개를 모로 기울였다.

그녀와 레굴루스는 단 한 번도 서로가 서로에게 소원하지 않은 적이 없었다.

특히 4년 전 겨울, 알테어가 조르고 즐라 마련한 티타임 자리에서 있었던 사건

이후론 두 사람 사이에 개인적으로 왕래가 있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그 표정을 보니 여전한가 보구나."

멜비나의 표정에서 답을 읽은 케틀렉 공작이 중얼거렸다.

"멜비나와 사이가 좋아진 게 아니라면 폐하는 대체 왜.....누구랑....."

".....!"

공작의 중얼거림에 어떤 가능성이 멜비나의 머릿속을 빠르게 스치고 지나갔다. 그녀는 깜짝 놀라 여과하지 않은 날 것의 생각을 그대로 입 밖으로 뱉어냈다.

"레굴루스에게 연인이 생겼나요?"

의무를 다한 왕과 왕비가 따로 연인을 가진다고 해서 문제될 건 없었다.

애초에 비르마스의 법률상 정부는 그 어떤 지위도 명예도 권력도 받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녀는 완벽한 왕비로 있기 위해 그 누구도 곁에 둘 수 없었다.

알베르토때와 같은 비극을 또다시 반복할 수 없었기에, 레굴루스가 인생을 함께 걷는 '동반자' 라고도 여겨지지 않는 그녀는 케틀렉 공작의 말마따나 빈틈없이 완벽해야 했다.

"아니, 그럴 리가."

그렇기에 남편, 레굴루스에게 '연인' 이 생겼을지도 모른다는 암시를 주는 클라인 공작의 중얼거림에 멜비나는 기이하게도 가슴이 조이는 것 같은 충격을 느꼈다.

".....내 착각일 거다."

그녀의 노력은 시도조차 하지 말라 했으면서, 자신에겐 기회조차 주지 않았으면서 다른 이에게는 그 기회가 갔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은 가뜩이나 비비 꼬여있던 멜비나의 심기를 비틀었다.

"헛된 상상하지 마라."

그런 멜비나의 속내를 들여다보기라도 한 듯이 눈살을 미미하게 찌푸린 공작이 그녀를 나무랐다.

"정보가 확실한지 확인하기 전까진 움직이지 말 것. 지위가 높은 이일수록 잊어버리기 쉬운 가장 기본적인, 그러나 가장 중요한 행동지침이다."

"....."

"허튼 생각에 사로잡혀 경솔한 행동은 하지 않도록 주의해라."

멜비나는 끝까지 공작의 말에 답하지 않았다. 하지만 공작은 그녀가 자신의 말을 결국 들을 것임을 알았다.

그 말을 끝으로 케틀렉 공작은 왕비궁을 벗어났다.

배웅은 없었다.

바쁘게 돌아가는 멜비나의 머릿속엔 공작의 존재가 까맣게 잊혀 있었고 공작 역시 배웅 따윈 기대하지도 않았다는 듯이 딸을 향해 그 흔한 인사말조차 건네지 않았다.

"왕비님....."

"세라, 세라....."

공작이 떠나고 마침내 세라와 단 둘이 남게 되자 멜비나는 무너졌다.
그녀는 손끝이 차가웠고 얼굴은 희게 질려 있으며 온 몸을 덜덜 떨고 있었다.
두려움에 떠는 걸 멈추지 못한 멜비나는 세라에게 매달렸다.

“폐하에게 정말로 애인이 생겼으면 어찌지?”

멜비나가 물었다.

“‘이번에도’ 그가 왕비로서 완벽한 인물을 데려온다면.....내 자리가 위험해지는
걸까?”

어느새 그녀의 목소리엔 희미한 울음기가 섞여있었다.

“내가 있을 곳은 없어지는 걸까? 나는, 아무것도 없는데.....”

그녀는 이제 목소리조차 떨리고 있었다. 허가 마비되기라도 한 듯이 조금씩,
조금씩. 멜비나는 더듬거리며 목소리를 토해냈다.

“이제 더는 가진 게 없는데.....”

멜비나는 상실한 것들을 떠올렸다.

타인과의 관계, 어머니의 온기, 애정, 사랑, 연인 등.

모두 하나하나 떨어져 나갈 때마다 그녀의 피와 살점을 생으로 도려내는 것
같은 아픔을 주었던 상실들이었다.

“여기서 더 무엇을 잃어야하지? 나는.....”

내 줄 수 있는 건 전부 내줘서, 이제 더는 줄 수 있는 게 없다고 생각했다. 잃을 수 있는 게 더는 없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다.

운명은 그녀가 가진 모든 것을 먹어치워야 만족한다는 듯이 이제는 멜비나의 지위조차 위태롭게 만들고 있었다.

정말로 일어날지 일어나지 않을지도 모르는, 아니 확률로만 따지면 후자에 가까운 정말 만약의 만약일 이야기였지만 레굴루스와 단 한 번도 형태가 되는 마음을 주고받은 적이 없는 멜비나는 불안에 몸을 떨었다.

필요 없으면 자식조차 눈 하나 깜짝 않고 내버릴 케틀렉 공작의 성정을 알기에 더더욱.

‘혹시 레굴루스에게 정말 연인이 생겼다면.....그 연인이 아버지의 마음에도 드는 여자라면.....! 싫어! 그건 안 돼!’

자신의 편이라고는 자신이 가진 것이라고는 왕비라는 이름뿐인 지위와 옆에서 그녀를 안아주고 있는 소꿉시절 친구뿐이기에, 멜비나는 소리 없이 울음을 터트렸다.

“더는 내게서 아무것도 가져가지 말아줘.....”

앞으로 상실할지도 모를 것들을, 몇 남지 않은 자신의 것을 그러쥐며 멜비나가 속삭였다.

“내 것을 빼앗지 말아줘.....”

“왕비님.....”

제 무릎 위에 엮어져 우는 멜비나의 등을 다독이며 세라는 어쩔 줄을 몰라 했다.

그녀는 아주 오랜만에 어린 소녀처럼 눈물지으며 흐느꼈다.

결혼하고 부모님과 떨어져 성에서 살기 시작했을 때처럼. 밤마다 외롭다고, 무섭다고 소리 높여 사라를 불렀을 때처럼.

또다시 느낄 지도 모를 상실의 고통이 두려워 멜비나는 아주 오랫동안 울었다. 왕자, 알테어 라셀 콘 비르마스가 그녀를 찾아온 건 그로부터 두 시간 뒤였다.

23. 거래(1)

자신의 배로 낳은 아이지만 멜비나는 알테어를 어느 순간부터 이해할 수 없었다.

아니, 어디 이해할 수 없을 뿐인가.

그녀는 알테어를 볼 때마다 꺼림칙한 기분을 느끼는 걸 감추기조차 힘들었다.

“안녕하세요, 어머니.”

지금 이 순간도 마찬가지였다.

붉어진 눈꼬리와 물기가 다 마르지 않은 젖은 속눈썹으로 알테어를 맞이한 멜비나는 누가 봐도 직전까지 울음을 터트렸던 얼굴이다.

“공사다망하신 와중에 이렇게 제게 시간을 내주셔서 기뻐요.”

보통의 아이라면 이런 그녀를 보고 놀라거나 당황하거나, 하물며 무슨 일이나고 염려의 빛을 보일 터였다.

더군다나 그녀는 그의 어머니였다.

멜비나는 어쩌면 그녀의 얼굴을 본 알테어가 자신을 따라 울상을 지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어머니?”

이 얼마나 우스운 착각인지.

멜비나를 마주한 알테어는 눈이 조금 동그랗게 커졌을 뿐, 평소처럼 속을 알 수 없는 태연자약한 모습이었다.

멜비나의 입에서 아무런 말이 나오지 않자 어린 왕자는 그제서야 걱정스런 낮 빛으로 그녀를 올려다보았다.

“어디 아프신가요?”

잘 꾸며진, 그림과도 같은 얼굴로.

“안색이 좋지 않아보이세요.”

“.....나는 괜찮다.”

멜비나는 그제서야 깨달았다.

알테어는 그녀가 울었던 사실을 ‘모른 척’ 해주고 있었다.

지긋지긋하게 본심을 돌려 말하는데 통달한 닳고 닳은 사교계의 인사들처럼 멜비나가 먼저 말을 꺼내기 전엔 묻지 않겠다는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이다.

왕비는 헛웃음이 입술 사이를 비집고 나오는 걸 막지 못했다.

공식석상에서가 아니면 석 달에 한 번, 길면 한 달에 한 번 마주했기에 몰랐는데 그녀가 낳은 어린 아이는 어느새 훌륭한 왕족의 일원으로 자라있었다.

지독할 정도로 냉정하고 기시감을 넘어 꺼림칙할 정도로.

그건 케틀렉 공작이 그토록 멜비나에게 원했지만 지난 날 열 살의 그녀는 가지지 못했던, 아니 가질 수 없었던 자질이였다.

“이리로 오렴.”

아이는 능숙했다.

그녀가 평생 타인의 시선 속에서 살아오지 않았더라면, 인생의 반 이상을 사교계에서 몸 담그지 않았더라면 결코 알아채지 못할 정도로 알테어는 자신을 숨기는 데 능숙했다.

“차를 준비해 주마.”

눈가에 남은 마지막 눈물을 닦아내며 멜비나가 답했다.

꽃이 가득 핀 정원이 한 눈에 보이는 테라스로 향하며 그녀는 세라에게 진한

차를 부탁했다.

“그래, 무슨 일이니?”

비네시스 제국에서 비싼 값을 주고 들여온 향수를 여기저기 뿌린데다 테라스 밖에서 불어오는 바람엔 꽃향기가 섞여 있었기 때문에 방 안엔 수많은 향기가 진동했다.

문을 열자마자 코를 찌르는 짙은 향에 머리가 어지럽기라도 한 건지 테이블에 마주 앉기 직전까지 알테어는 눈살을 찌푸렸다.

크게 내색하진 않았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눈치 챌 수 있을 정도로 아이는 불편해 하고 있었다.

“이 일주일 사이 두 번이나 날 찾아오다니, 한가하게 차를 마시려고 온 건 아니었으면 좋겠구나.”

“설마 그럴 리가요.”

눈살을 찌푸리고 있던 알테어의 얼굴이 부드럽게 풀렸다.

그림으로 그린 듯한 알테어의 눈과 입꼬리가 고운 호선을 그리며 그 나잇대 아이 특유의 사랑스러운 표정을 자아냈다.

“어렸을 때처럼 어머니를 귀찮게 할 시기는 이미 지났죠.”

사랑스러운 표정과 대비되는 그 어른스러운 말에 차에서 나는 짙은 꽃향기에 집중하고 있던 멜비나는 눈을 깜빡였다.

떠올려보면 아주 어렸을 적의 알테어는 눈물이 많았다.

그 때는 정말로 제 배로 낳은 아이라고 생각될 정도로 알테어는 그녀의 성격을 쏙 빼닮아 겁도 많았고 외로움도 많이 탔었다.

눈물 젖은 얼굴로 하루 종일 제 옆에 있으려고 별의 별 핑계를 다 대며 유모에게서 도망치고 공부를 빼먹고 멜비나의 방으로 몰래 숨어들었었다.

‘정말.....언제 이렇게 변한 거람.’

성격도 외모도, 알테어가 멜비나를 쏙 빼닮았기 때문에 그가 걷고 말하기 시작할 무렵부터 레굴루스는 왕비에게 하는 것처럼 그는 알테어와도 시선을 잘 마주하지 못했다.

멀리하고 기꺼워하고, 대놓고 불편하다는 기색을 비추기도 했었다.

그렇기에 멜비나는 레굴루스보단 자신이 알테어를 더 잘 알고 있다고 자신할 수 있었다.

하지만 아이들이란 잠시 시선을 떼면 눈 깜짝할 사이 훌쩍 자란다는, 나이든 어른들이 입버릇처럼 내뱉던 말처럼 알테어는 훌쩍 자라버렸다.

멜비나가 인지하지 못할 정도로 빠르고 많이. 성격도 말투은 물론이고 그녀를 대하는 태도까지. 아이는 열 살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성숙해져 있었다.

“오늘은 티파티에 관해 어머니께 말씀드릴 이야기가 있어 왔어요.”

“아.”

티파티.

싫어도 멜비나는 알테어의 티파티를 중지시키라는 클라인 공작의 당부를 떠올릴 수밖에 없었다.

그녀가 어떻게 말을 꺼낼지, 양 손에 든 찻잔을 매만지며 망설일 때였다.

“알테어.....”

“어머니, 혹시 요즘 성 안에서 도는 소문에 관해 알고 계신가요?”

향이 짙은 쓴 맛이 강한 차를 마시며 묘하게 편안한 표정을 짓던 알테어가 먼저 입을 열었다.

“소문이라면 설마.....”

“네, 제가 주관하는 이 비공식적인 티파티가 사실은 미래의 왕비 후보를 점찍어두기 위함이라는 불쾌한 소문 말이에요.”

알테어가 이어 말했다.

“그 날 제가 티파티에 관해 이야기를 나눈 건 어머니뿐인데 어떻게 채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 성 내는 물론이고 사교계 전체에 소문이 다 퍼졌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래도 어머니가 제 파티를 도와주신다는 이야기가 소문을 한층 더 부풀린 것 같아요.”

확실히, 그럴지도 몰랐다.

비공식적이지만 비르마스의 유일한 후계자가 처음으로 주관하는 파티인데다 왕비의 입김까지 닿아있다면 아무리 당사자의 입에서 즐기자고 연 파티라고 주장해도 받아들이는 입장에선 쉬이 ‘그렇군요.’ 라고 납득하며 고개를 끄덕일 리 없었다.

분명 이 티파티에는 무언가 있을 거라고 생각될 것이다.

“이대로 가다간 파티를 준비하기 위해 노력해주신 어머니에게도 큰 폐를 끼칠 거 같아서 무척 고민해 봤는데요.....”

“파티를 그만 두려고?”

“아하하, 그건 아니에요.”

제 의도를 읽기라도 한 건가 싶어 화들짝 놀란 멜비나가 물었지만 알테어는 고개를 저었다. 놀란 그녀의 모습이 재미있었는지 작게 웃음까지 터트리며.

알테어가 곁에 있던 시녀 중 한 명을 손짓으로 불렀다.

“밖에서 내 시종들이 대기하고 있을 텐데 그들이 들고 있는 물건을 가지고 와 줘.”

".....물건?"

"네, 어머니를 위해 가져왔어요."

공손히 예를 취하고 떠나는 시녀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알테어가 말했다.

"분명 어머니도 좋아하실 거예요."

알테어의 시종들이 얼마나 많은 물건들을 들고 있었던 건지 부탁을 받고 나간 시녀는 한 명이었던만 다시 문을 열고 들어온 이들은 열 명이 넘었다.

그들은 각각 품에 안은 상자를 테이블 옆에 쌓았다.

"이건....."

"열어보세요."

알테어의 제안대로 멜비나는 쌓인 상자들 중 비교적 작은 상자를 집어 들어 열었다.

그건 꽃이었다.

호수 표면을 반사하는 여름의 푸른빛을 흠뻑 머금고 있는 투명한 물빛의 꽃.

국화보단 컸지만 모란보다는 작은 꽃잎이 겹겹이 양파마냥 둘러싼 커다란 꽃이었다.

꽃받침과 꽃술이 있는 가운데는 아주 진한 푸른빛을 띠고 있었지만 끝으로 갈수록 투명해지는 꽃은 수많은 꽃을 접해본 멜비나로서도 처음 보는 종류였다.

"이건 페블 벨루란이라는 꽃이에요."

상자를 연 채 굳어진, 뉘을 잃은 멜비나를 향해 알테어가 말했다.

“아이스나 식물원에서 아주 먼 옛날에 단종된 식물을 부활시켰는데 마침 아버지가 소개시켜주신 분이 이 꽃을 재배하고 있었어요.”

“.....아버지의.....레굴루스 폐하의 소개? 그게 누구니?”

몇 시간 전, 클라인 공작과 나눴던 대화가 다시 멜비나의 머릿속을 스쳤다.

“어떤 여자, 아니 연구소에서 일하는 여성분이시니? 아니면 연구소와 연이 있는 귀부인? 혹시 내가 아는 사람일까?”

“.....여자가 아니고 남자예요.”

다급한 멜비나의 질문에 알테어의 표정이 굉장히, 굉장히 미묘하게 일그러졌다.

웃고 싶기도 하고 울고 싶기도 한 것 같은, 놀라기도 하고 황당해하기도 하는 듯한, 아무튼 뭐라 한 마디로 표현하기 어려운 그런 얼굴이었다.

“캄파넬라 백작이라고.....저명한 역사학자인데 과거의 자료를 해석해서 페블 벨루란을 되살리는데 도움을 주었나 봐요. 그 보답으로 연구소에서 이 모종을 받았는데요.”

“아, 그래.....”

멜비나가 눈을 깜빡였다. 처음 듣는 가문 이름임이 분명한 듯 그녀의 얼굴은 의아함으로 가득 물들었다.

“캄파넬라 백작이라고.....”

“모종을 키운 건 여자가 맞지만.....”

“뭐?”

멜비나의 목소리가 다시 높아졌다. 그녀의 얼굴엔 ‘어떤 여자?’ 라고 쓰여 있었다.

알테어는 거기서 입을 다물었다. 어째서인지 그는 입술을 꼭 깨물고 있었다.

그런 알테어가 답답했는지 대답을 요구하는 멜비나의 표정이 점점 더 절실해졌다. 결국 차를 한 잔 마신 알테어가 그녀의 요청에 응해 주었다.

“캄파넬라 백작의 딸이에요.”

“백작의 딸? 그, 캄파넬라 백작에게 딸이 있니? 어떻게 생겼든? 예쁘니? 결혼은 한 인물이야? 혹시 레굴루스가 네게 소개시켜준 게 그 여자니?”

“네, 캄파넬라 백작에겐 딸이 한 명 있어요. 아주 예뻐요.”

“.....!”

알테어는 이제 참을 수 없었는지 작게 웃음을 터트렸다.

“나이는 저보다 한 살 많고요.”

“.....”

“결혼은 나이가 나이다보니 아직 이고 약혼자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그리고 아버지가 소개시켜주신 분은 그 딸이 아니라 캄파넬라 백작이에요.”

키득거리는 알테어의 모습에 멜비나는 볼이 절로 붉어지는 것을 느꼈다. 아이는 그녀가 방금 전까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흰히 꿰뚫고 있는 것 같았다.

멜비나는 알테어의 눈빛이 마치 ‘무슨 생각하고 계셨어요, 어머니?’ 라고 묻고 있는 것 같다고 느꼈다.

“아무튼.....요즘 소문 때문에 고생하는 제 고민을 털어놨더니 친절하게도 이 페블 벨루란을 제공해주시겠다고 하시더라고요.”

“뭐? 그게 무슨 뜻이니?”

멜비나는 ‘그게 뭐 어쨌다고?’ 라고 묻고 싶은 걸 돌려 물었다.
그녀의 질문에 알테어의 눈썹이 살짝 위로 치켜 올라갔다.

“티파티의 테마를 백합에서 페블 벨루란으로 바꿀 수 있다는 뜻이죠.”

“아.....!”

“이걸로 제 파티를 둘러싼 소문도 조금은 가라앉겠죠? 다들 미래의 왕비후보를 생각하기보단 예쁜 꽃들에 정신이 팔릴 거예요.”

알테어가 ‘어때요? 좋은 생각이죠?’ 라고 물었다.

하지만 멜비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

확실히 이 희귀한 꽃을 테마로 삼는 건 백합보다 의미가 덜 노골적이었지만 한 번 퍼진 소문이 이런 걸로 과연 가라앉을까, 라는 회의감이 들었기 때문이다.

오히려 백합보다 진귀한 꽃을 장식했다는 걸 이유삼아 파티의 격을 높이려 한다는 말이 돌아 소문이 가속할 수 있다는 염려도 들었다.

“하지만 소문을 퍼트리는 사람은 아무리 제가 이런 식으로 노력해도 결국 자기 좋을 대로의 이야기를 퍼다 나르겠죠?”

“물론.....”

이번에도 알테어는 멜비나의 머릿속에 있던 생각을 읽기라도 한 듯이 그대로 입 밖으로 내뱉었다.

“.....가능성이 있는 이야기이지. 호사가들은 늘 가십을 찾으니까.”

“맞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왜 이런 소문이 돌까, 하고요.”

시녀가 빈 찻잔에 따라준 차를 마셔 넘기며 알테어가 말했다.

보통 단 걸 좋아하는 어린 아이의 입맛엔 맞지 않을 만 하건만 알테어는 마음에 드는 듯 계속해서 찻잔을 입에 가져다 댔다.

벌써 몇 잔째 마시고 있는 건지 멜비나는 알 수 없었다. 눈어림으로도 다섯 잔은 거뜬히 넘긴 것 같았다.

“주최자가 저이기 때문인 것 같아요.”

“음?”

“사교계에 아직 발도 들이지 않은 어린 제가 파티를 여니 다들 이러쿵저러쿵 자기 좋을 대로 이야기하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어머니가 파티를 연다면 다들 감히 이런 소문들을 떠들고 다닐까요? 이렇게 대놓고?”

“확실히.....”

소문을 낼 사람들은 결국 어떤 말이든 퍼트리고 다닐 터다.

그러나 그 주최자가 일국의 왕비라면 알테어가 주최하는 것만큼 제 좋을 대로 떠들고 다니진 못할 터였다.

왕의 사랑을 받지 못한 허울뿐인 위치를 가진 이라도 그녀는 왕비였다. 그것도 무려 개국공신, 케틀렉 공작의 하나뿐인 딸이었다.

그런 멜비나가 여는 파티라면 적어도 앞에선 모두가 입을 놀리는 걸 조심할 것이다.

“그래서 말인데, 이 파티 어머니가 주최하시는 건 어떤가요?”

24. 거래(2)

“음?”

갑자기 화살의 방향이 자신에게로 넘어오자 멜비나의 눈이 동그랗게 떠졌다.
어느새 그녀의 얼굴엔 ‘이 아이가 대체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람?’ 이라고
쓰여 있었다.

멜비나는 지금이 그에게 이 말을 건넬 절호의 타이밍임을 느꼈다.

“알테어, 애야. 파티를 열고 싶지 않으면無理해서 열지 않아도 된단다.”

순순히 아버지의 말을 따르는 건 성에 차지 않는 일이었지만 어쩔 수 없었다.
그녀가 여기서 곱게 끝내지 않는다면 멜비나의 아버지, 클라인 공작은 좀 더
강경한 수단으로 파티를 중단시킬 터였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모양인데 아직 일정도 규모도 잡히지 않은 그림 속의
이야기이지 않니?”

멜비나는 알테어를 사랑하지 않을지 언정 상처받길 바라진 않았다. 누가 뭐라
해도 그는 아직 열 살 밖에 안 된 어린 아이였다.

“지금 그만 둔다고 해도 아무도 네게 뭐라 하지 않을 거야.”

“하지만 아깝지 않나요, 어머니?”

알테어가 물었다.

“이렇게 예쁜 꽃을 전부 썩힐 셈이신가요?”

"....."

과연 그 말 대로였다.

멜비나의 품에 안겨진 새파란 꽃은 그녀가 여태까지 봐 온 그 어떤 꽃보다도 아름다웠다.

새파란 보석 같은, 꼭 사파이어를 빗어 만든 듯한 영롱한 모습이 눈부셨다.

홀린 듯이 품에 들린 꽃잎을 어루만지는 멜비나를 보며 알테어가 시녀들을 시켜 상자 안의 꽃들을 시들지 않게 모두 꽃병에 넣어 관리하라 일렀다.

개량과 마법으로 인해 햇빛과 통풍이 잘 드는 곳에서 관리가 잘 된다면 꽃은 약 한 달 반 정도 그 선도를 유지할 거라고 알테어는 알려주었다.

꽃의 양이 무척이나 많았기 때문에 언제나 왕비의 곁에 선 세라를 제외한 방 안의 모든 시녀들이 상자를 들고 밖으로 나섰다.

"차를 좀 더 마시고 싶은데, 가져다주겠어?"

"예, 왕자님."

알테어는 결국 차를 전부 마셔 찻잔이 아닌 찻주전자를 비웠다. 세라는 알테어의 요청에 차를 다시 채워오기 위해 찻주전자를 들고 나갔다.

"주최자만 바꾸는 거예요."

마침내 사라까지 나가고 방 안에 그와 멜비나, 단 둘만이 남자 알테어가 속박였다.

"미래의 왕비를 눈여겨보기 위함이 아닌 어머니가 받은 이 새 꽃들을 자랑하기 위해서요."

배가 부른 지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댄 알테어의 목소리는 나긋나긋했다.

“규모는 일전에 계획했던 것처럼 소수로, 그렇게 되면 다들 어머니의 파티에 오고 싶어 할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니?”

“물론이죠.”

알테어가 답했다.

“그 어디서도 볼 수 없는 아이스나 연구소에서 되살린 진귀한 식물이에요. 분명 사교계의 유명인사인 루엘라 공작부인이나 보웬 백작, 심지어 그 깐깐한 셸시우스 후작도 어머니의 파티에 참석하고 싶을 거예요.”

알테어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던 멜비나는 그의 말이 굉장히 현실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 아름다운 꽃이 테마라면 그녀의 앞에서도 고고한 그 루엘라 공작부인도, 잘 생기기로 소문난 보웬 백작도 식물이라면 사족을 못 쓰는 셸시우스 후작도 멜비나의 티파티에 오고 싶어 사족을 못 쓸 것이다.

생각을 이어나가면 이어나갈수록 멜비나는 자신이 이 파티를 주최해나가고 싶다고 생각했다.

이제껏 그 누구도 본 적 없는 이런 귀한 꽃을 남들에게 보여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테마와 주최자가 바뀌니 소문도 조금이나마 가라앉을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거면 아버지도 내게 아무 말도 못 할 거야.’

파티를 중지하길 원한 클라인 공작에게 보란 듯이 한 방 먹여줄 수 있었다.

‘소문도 가라앉고 주최자도 바뀐 파티를, 더불어 거물들만 초대할 파티를 아버

지가 무슨 수로 막겠어?’

하려면야 할 수는 있겠지만 그러기엔 득보다 실이 많은, 수지타산이 맞지 않는 계획이 될 터였다.

아버지를 거스른다니.

그 사실만으로도 멜비나는 기쁨을 넘어 희열을 느꼈다.

‘그러려면 이 소식이 아버지의 귀에 들어가기 전에.....’

자동적으로 머릿속이 바쁘게 돌아갔다.

어느새 멜비나의 머릿속엔 계획의 틀이 잡혔다.

대충이지만 초대할 손님들의 리스트가 만들어졌으며 일정과 규모가 그려졌고 그 날 대접할 차와 다과, 그리고 인테리어가 떠올랐다.

“어머니?”

“아.”

가지처럼 끝없이 뻗어나가던 멜비나의 생각이 알테어의 부름으로 인해 멈추었다.

그녀는 그제서야 이 자리에 알테어가 있다는 걸 떠올렸다.

“어떠세요?”

알테어가 물었다.

“괜찮다면 어머니가 주최해주시겠어요?”

“.....네 파티를 내가 뺏어가는 거 같아 마음이 좋지 않구나.”

그 질문에 바로 ‘좋아.’ 라고 본심을 내뱉지 않은 건 오랜 세월 왕비로 자리하며 몸으로 체득한 경험 때문이었다.

이 성 안에선 지위가 높은 인물의 말은 좋은 말이든 나쁜 말이든 사람들의 입을 통해 전해지기에 번지고 와전되며 소문을 타기 쉬웠다.

때문에 마음껏 본심을 이야기하는 건 어리석고 순진하며 바보 같은 행동이었다.

알테어 앞에선 그럴 필요가 없음을 알고 있지만 이미 몸에 배어버린 습관을 멜비나는 버리기 힘들었다.

“뺏어가다니요.”

아마 알테어와의 대화가 어린 아들과 말하는 게 아닌 한 명의 귀족을 상대하는 것 같은 기분을 들게 하기에 더더욱.

멜비나는 본능적으로 평소 다른 귀족들을 상대하는 것처럼 행동했다.

“어머니께선 저를 도와주시는 거죠. 이젠 사교계에까지 돌고 있는 소문에 제가 얼마나 곤란해 했는지 어머니는 모르실 거예요.”

차분하고 나직한, 그리고 더없이 점잖은 태도와 말씨로 알테어가 말을 이었다.

“이 기회에 평소 못 만나는 분들을 초대해보세요. 어머니는 파티를 잘 여시지 않으니까 다들 어머니와 이야기하고 싶어도 못하고 있을 거예요.”

“그건 너에게도 해당되는 이야기구나, 알테어.”

식어버린 차로 목을 축이던 멜비나가 웃으며 말했다.

꽃향기가 짙은 이 차는 남쪽, 아르한 공국에서 수입해 온 차로 향기를 제대로 우려내기 위해선 특별히 섬세하고 까다로운 과정을 몇 가지 거쳐야 했다.

그 때문인지 한참 전에 차를 가지러 나간 사라는 아직 돌아오지 않고 있었다.

멜비나는 사라가 없음에도 이렇게 진심으로 웃을 수 있던 게 대체 얼마만인가 싶었다.

“네 부탁대로 주최는 내가 하겠지만 그게 네가 파티에서 빠진다는 이야기는 아니란다.”

“오, 안되나요?”

“안 되지.”

멜비나가 단호하게 대답했다.

“다른 이들과 교류가 없는 건 너도 마찬가지니 이 기회에 너도 다른 영애나 영식들을 초대해 인맥을 넓혀보렴.”

“.....저는 아는 이들이 몇 없는데.”

“그간 만났던 영식들이 몇몇 있잖니? 그들이라도 초대해보는 게 어떠니?”

“음.....”

목소리가 뚝한 모양새가 알테어는 명백히 그들을 초대하는 게, 아니 티파티 자리에 참석하는 걸 질색하는 것처럼 보였다.

“이제 보니 파티를 주최하는 게 귀찮아 내게 넘긴 모양이구나?”

“아, 역시 그렇게 보였나요?”

멜비나의 말에 들켜서 곤란하다는 듯이 알테어가 배시시, 미소 지었다.

이런 빈틈서린 모습을 보면 알테어 역시 아무리 점잖은 척 해도 어린아이라는 사실이 실감 갔다.

“숙제를 주마.”

숙제라는 말에 알테어의 표정이 무너지는 걸 즐겁게 감상하며 멜비나가 말을 이었다.

“파티에 초대할 네 또래아이들의 리스트를 만들고 네 손으로 직접 초대장을 보내 그들을 초대하렴.”

멜비나의 선고에 알테어의 입에서 작게 앓는 소리가 흘러나왔다.
그 모습이 꼭 어렸을 적, 방으로 돌아가기 싫다고 우는 그의 모습을 떠올리게 해 멜비나는 후후, 웃음을 터트렸다.

“초대장으로 쓸 종지와 꼭 들어가야 할 내용은 이번 주 내로 내가 보내주마. 꼭 네 손으로 써서 보내야 한다?”

“알겠어요.....”

포기했는지 양 손을 들어 올리며 알테어가 항복 자세를 취했다.

“참, 바뀐 테마나 규모와 관련해 파티의 준비내용은 전체적으로 비밀로 진행할 테니 오늘 여기서 한 이야기는 가급적 아무에게도 하지 마렴. 네 시종에게도.”

“네.....근데 비밀로 한다고 얘기가 정말 새어나가지 않을까요?”

“새어나가겠지.”

알테어의 의심스런 질문에 여전히 웃음기 서린 목소리로 멜비나가 답했다.

“그래서 속전속결로 갈 거란다.”

그녀는 진심으로 어린 아들과의 대화가 즐기고 있었다. 아니, 이 모든 한 순간 한 순간을 만끽하고 있었다.

아버지의, 케틀렉 공작의 명령을 거부한다는 나이에 맞지 않은 치기 어린 반항이 그녀의 기분을 고양시키고 있었다.

“날짜도 미리 다 잡아두고 초대장도 몇 장 정도는 미리 보낼 생각이란다. 초대장을 받은 사람들의 리스트를 알면 아무도 이 파티에 대해 더는 입을 놀리지 않겠지.”

설령 케틀렉 공작이라도, 이미 결정 난 사항을 가지고 감히 그녀에게 더 뭐라 하지 못할 것이다.

“영영 비밀로 할 수 없다면 아예 빠르게 해치워버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란 다.”

일그러진 공작의 얼굴이 멜비나는 벌써부터 기대되었다.

더없이 다정하고 상냥한 손길로 알테어의 머리를 쓸어 넘겨주며 멜비나가 속삭였다.

“잘 기억해 두렴.”

그녀가 말을 마친 것과 동시에 향이 진한 꽃차가 든 찻주전자와 함께 사라가 방으로 들어왔다.

“늦어서 죄송합니다, 왕비님, 왕자님.”

“괜찮아, 사라.”

지금이라면 세상 모든 잘못을 관대하게 넘길 수 있는 멜비나가 웃음기 서린 얼굴로 그녀를 보듬었다.

“그리 늦지도 않았는걸.”

알테어는 무언가 골똘히 생각하는 중이라 사라의 말에 답하지 않았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곧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의 빈 찻잔에 차를 따라주던 사라는 깜짝 놀라 길을 비켰다.

“가려는 거니?”

“예. 고민해야 할 일이 좀 있어서.....”

“그래.”

그녀가 내준 숙제를 벌써부터 고민하다니.

숙제를 싫어하긴 해도 예나 지금이나 알테어는 해야 할 일에서 눈을 돌리진 않았다.

“조심해서 돌아가렴.”

멜비나는 그를 손수 입구까지 내려다주었다. 떠나가는 마차의 뒷모습을 응시하는 그녀를 바라보며 사라가 고개를 갸웃거렸다.

“기분이 좋아보이세요, 왕비님.”

“그러니?”

“네. 아까는 너무 우울해보이셔서 걱정했는데.....다행이에요. 알테어 왕자님과의 대화가 즐거웠나 봐요.”

“맞아, 즐거웠어.”

멜비나가 솔직한 심정을 밝히며 웃었다.
처음이었다. 알테어와 함께 있는 게, 레굴루스의 아들과 함께 있는 게 이렇게 즐거웠던 적은.

“자, 나를 좀 도와줘 사라.”

성 안으로 몸을 돌리며 멜비나가 말했다.

“할 일이 많아.”

* * *

자신의 거처로 돌아가는 마차 안, 혼자 생각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걸 핑계로 마차에 아무도 들이지 않은 알테어는 소리 없이 어깨를 떨었다.

“숙제라니.....”

그는 도무지 새어나오는 웃음을 참을 수 없었다.
이렇게까지 생각한 대로 일이 흘러갈 줄이야.
어떻게 하면 아무에게도 의심사지 않고 그녀를 초대할 수 있을지, 캄파넬라가의 타운 하우스에서 데네브와 의논했던 것 그 이상의 성과였다.

“예상외의 정보도 얻었고.....”

알테어는 레굴루스에게 애인이 생긴 것을 멜비나가 눈치 채고 있을 줄은 몰랐다.

‘아니, 그건 눈치챘다기보다는 의심하고 있다, 에 가까웠지.....’

물증도 심증도 없었다. 그건 그저 감에 의존한 결론이었다. 그 결론이 더할 나위 없는 진실임을 알기에 알테어는 멜비나의 직감이 예사롭지 않다고 생각했다.

“.....어쨌든 이걸로 아무 문제없이 널 초대할 수 있어.”

데네브에게 보낼, 그녀만을 위한 초대 문구를 떠올리며 알테어가 킬킬 거렸다. 돌아가는 길 내내 그는 차로 부른 배를 쓰다듬으며 포식한 사자와도 같은 표정을 지었다.

그 끔찍하도록 향이 지독한 방 안에서 코를 마비시키는 듯한 차를 몇 번이고 마신 보람이 있었다.

25. 열 살, 티파티, 여름(1)

너는 그저 그곳에 피어 있어라.
그 자체로도 빛나는 너는 나의 보물일지니.

“어라?”

데네브가 고개를 모로 기울였다.

그녀의 손에는 교양을 위해 어머니가 강제로 손에 쥐어준 시집 한 권이 들려 있었다.

두루뭉술하고 은유적 표현이 가득한 시집은 그녀가 평소 읽던 식물이나 약학과 관련된 책들과는 달리 뭐 하나 명확하지 않은 게 짜증스럽기 그지없어 데네브는 읽는 내내 얼굴을 찌푸리고 있었다.

“존재하는 것 자체로도 보물인 게 있어요?”

그런 그녀의 눈이 어느 한 구절에서 멈췄다.

작자 미상의 제목도 없는 단 두 줄뿐인 문장이었지만 어째서인지 그 시는 데네브의 시선을 끌었다.

가슴이 찡해지고 속이 울렁거리는 게 마음을 울렸다.

커다란 창을 통해 들어오는 햇빛 덕에 서재 안은 밝고 환하며 따스했다.

햇살과 책장 가득 꽂힌 서책 특유의 향이 봄바람과 섞여 데네브의 코를 간질였다.

“존재하는 것만으로 빛나는 것.....에.....에취!”

바람이 물고 온 꽃가루에 크게 재채기를 하며 지난 달 막 일곱 살 생일이 지난 어린 소녀는 집필에 집중하고 있던 백작을 향해 다시 물었다.

“큘.....아, 혹시 다이아몬드나 금 같은 보석을 말하는 거예요?”

“흠?”

딸의 질문에 손에서 펜을 놓은 캄파넬라 백작이 그녀를 돌아보았다.
책상 옆에 앉아 있던 데네브의 맑고 투명한 밤하늘 같은 검은 눈동자를 내려다보던 그는 이내 인자하게 웃으며 그녀를 안아 무릎 위로 올렸다.

“데네브. 존재하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빛나는 보물은 얼마든지 존재한다.”

“알아요. 그러니까 루비나 사파이어 같은 보석을 말하는 게 맞는 거죠?”

“그게 꼭 보석을 지칭하는 건 아니란다, 애야.”

정답을 맞췄다고 자신한 건지 데네브는 의기양양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그런 데네브를 향해 이에르곤 바론 캄파넬라는 자신이 낼 수 있는 가장 다정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그건 굳이 진귀한 보석이나 아름다운 비단, 혹은 화려한 성일 필요는 없어. 날 보렴. 이 아빠는 가진 보석도 비단도 많지 않고 으리으리한 성도 없지만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보물이 두 개나 있단다.”

“어? 정말요? 아빠한테도 있어요? 그게 뭔데요? 지금 어디 있어요?”

“하나는 아이나, 내 인생의 반려자인 사랑스러운 부인이고. 다른 하나는 데네브, 내 사랑스러운 딸. 바로 너란다.”

“에엑.”

기대했던 대답이 아닌 모양인지 아이의 표정이 크게 일그러졌다.

“그렇지만 나도 엄마도 빛나지 않는데요?”

조막만한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며 데네브가 중얼거렸다.
손가락을 꼬질거리는 그 모습이 어찌나 귀엽던지 이에르곤은 이렇게 귀여운 딸을 낳아준 아이나에게 마음 속 깊이 감사했다.

“하지만 내 눈엔 네가 빛나고 있단다.”

자꾸만 주인의 의사를 배반하고 벌어지려는 입과 풀어지는 눈에 힘을 주며 이에르곤이 말했다.

“세상 그 어떤 보석보다도, 심지어 태양보다도 빛나고 있단다.”

데네브가 그를 올려다보았다.
백작을 향한 아이의 눈엔 어느새 근심과 걱정이 한가득 묻어나고 있었다.

“아빠, 혹시 눈이 아픈 거예요? 난 전혀 빛나고 있지 않아요.”

“.....”

“자 봐봐. 빛 같은 거 안 나잖아요.”

“.....”

“의사를 불러야 하는 건가? 지금 당장 에반한테.....”

눈앞에 손바닥을 들이밀고 흔드는 데네브의 행동에 이에르곤은 심장을 틀어쥐었다.

어떻게든 근엄한 아버지의 모습을 유지하고자 견디고 노력했지만 이건 치명상이었다.

“아이고 우리 사랑스러운 딸!”

“으아악! 자, 잠깐만! 아빠!”

“넌 어째서 이렇게 귀여운 거니! 쪽쪽! 이렇게 예쁜 게 내 딸이라니! 세상에서 내 딸이 제일 귀여울 거야! 쪽쪽쪽!”

“으아아악! 아빠 아파! 수염 아파! 아프단 말이야! 으아악! 도와줘, 에반!”

이에르곤이 품에 쏙 들어오는 딸을 껴안고 볼에 수염을 비비자 데네브가 비명을 지르며 그의 품에서 나오려고 발버둥을 쳤다.

물론 그녀의 시도는 언제나처럼 허사로 끝났다.

칠칠맞은 딸 바보 아빠의 뽀뽀소리와 데네브의 비명소리가 서재에 울려 퍼졌다.

집사인 에반이 봤다면 제발 체통 좀 지키라며 한 소리 했을 법한 광경이었다. 하지만 이곳에 에반은 없었고 그에 따라 폭주하는 백작을 말릴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데네브는 어떻게든 목청 높여 그를 불러보았지만 지금쯤 티타임을 가지고 있을 아이나의 시중을 들어주고 있을 그가 멀리 떨어진 서재에서 나는 목소리를 들을 수 있을 리 만무했다.

이에르곤은 한참을 데네브의 뺨과 이마에 뽀뽀세례를 퍼붓고 난 뒤에야 그녀를 놓아주었다.

“데네브, 아빠의 눈에 데네브가 빛나 보이는 건 그만큼 내가 너를 아주 많이 사랑하기 때문이란다.”

“응?”

“너무너무 사랑해서 아이나도 너도 세상 그 어떤 보석보다도 더 빛나 보이는 거란다.”

손등으로 볼과 이마에 묻어있던 뽀뽀의 흔적을 지우고 있던 데네브의 표정이

그의 말을 듣곤 미묘하게 일그러졌다.

“나도 엄마랑 아빠 좋아하는데.”

미간을 일그러트린 아이가 명백한 불만의 기색을 담아 그를 올려다보았다.

“왜 나는 아빠가 반짝반짝 빛나 보이지 않죠?”

“내 사랑스러운 아이.”

넘치는 애정과 사랑, 그리고 헌신을 가득 담아 이에르곤이 어린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언젠가 네가 좀 더 나이가 든다면, 그래서 사랑의 의미와 그 깊이를 좀 더 깨닫게 된다면 자연스럽게 네가 사랑하는 모든 것들이 빛나 보일 거란다.”

“.....사랑.”

데네브가 중얼거렸다.

“나도 사랑을 하면 사람이 빛나 보일까요?”

“물론이.....아, 데네브. 혹시 그런 일이 생긴다면, 그 사람이 가족이 아닌 다른 짐승, 아니 다른 사람이라면 꼭 가장 먼저 아빠에게 알려줘야 한다, 알았지? 응? 꼭이야?”

아직 일곱 살 밖에 되지 않은 딸에게 애인이 생길 것을 염려하며 이에르곤이 데네브를 향해 즐랐다.

에반이 봤으면 한심한 눈길을 숨기지 않을 법한 모습이었다.

".....엄마도 나랑 아빠가 태양보다 빛나 보일까요?"

백작의 극성에도 말없이 골똘히 무언가를 고민하던 데네브가 이에르곤에게 물었다.

"별처럼 반짝반짝 빛이 날까요?"

"그야 당연하지."

이에르곤은 그 질문엔 너무나도 쉽게 대답해 줄 수 있었다.

"아이나도 아빠랑 데네브를 세상에서 제일 좋아하니까."

"그치만.....그건 말이 안 되는데?"

"응?"

"'세상에서 제일'이라는 건 단 한 명 뿐이잖아."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보물을 쓰다듬듯이 데네브의 머리칼을 쓸어 넘기고 있던 이에르곤의 손이 그대로 멈추었다.

"'세상에서 제일'이란 표현을 쓰고 싶으면 한 명만 골라야죠."

"아....."

"그래서 아빠는 나랑 엄마 중에 누가 더 좋아요?"

쉬운 질문이 나와 안심했는데 그 다음 바로 어려운 질문이 나와 버렸다.
대답하기 곤란한 그 질문에 식은땀이 이에르곤의 뒷목을 타고 흘러 내렸다.
아직 일곱 살밖에 되지 않았지만 데네브는 벌써 그림 없는 책도 곧잘 척척 읽었고 한 번 본 건 전부 기억했다.

소녀는 똑똑하고 영특했으며 영리했다. 과연 많은 학자를 배출한 캄파넬라 가문의 아이다웠다.

그렇기에 핵심을 찌르고 들어오는 아이의 질문에 이에르곤은 마른침을 꿀꺽 삼켰다.

허튼 대답을 했다간 데네브에게 한 소리 들으며 미움 받을 상황이 눈에 뵈었기 때문이다.

게다가 아내와 딸 중 누구를 더 사랑하냐니.

마치 엄마와 아빠 중 누가 더 좋아?, 의 어른 버전 질문이지 않는가.

“아, 아빠는 엄마도 데네브도 둘 다 좋아하지.....”

“에에.....”

데네브의 말간 얼굴을 바라보며 한참을 고민하던 이에르곤은 결국 가장 무난한 대답을 던졌다.

그러나 그 대답은 데네브를 만족시켜주지 못했다.

입술을 삐죽 내민 아이는 재빠르게 이에르곤의 무릎에서 폴짝 뛰어내렸다.

“엄마한테 물어볼래요.”

“어어? 데네브?”

“그런 것도 대답 못하고..... 아빤 바보야. 미워!”

“데.....데네브! 잠깐, 데네브!”

그가 걱정했던 대로 데네브에게 만족스런 대답을 주지 못한 이에르곤은 딸에게 미움 받아 버렸다.

이에르곤은 절망했다.

그러나 그의 고난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으니 캄파넬라 백작 부인, 아이나가 이 에르곤보다 데네브를 더 사랑한다고 온 저택 사람들에게 선포해 버리고 만 것이다.

“다들 나만 미워해!”

사랑하는 두 모녀의 연속 공격에 격침당한 이에르곤은 결국 에반이 나서서 제발 체통 좀 지키라고 한 소리하기 전까지 내내 카펫마냥 바닥에 늘어진 채로 침울해 했다.

이야기는 길었지만 이 날 이 일련의 사건을 통해 데네브는 아주 중요한 것을 배웠다.

사랑하면 빛나 보인다.

이것이 태어나 처음으로 데네브가 배운 최초의 ‘사랑의 정의’ 였다.

사랑의 정의는 언제나 두루뭉술해서 어떤 책에선 희생이라 말하고 또 어떤 책에선 열정이라 말하며 또 어떤 책에서 가족이나 연인이라 표현했다.

사람들 입에서도 나오는 사랑의 정의는 각각 달라 데네브는 언제나 사랑이란 무엇인가? 란 질문에 단번에 답하지 못했다.

기껏 표현 해봐야 어머니의 포근한 품, 아버지의 자상함, 자기 전 이불을 덮어 주는 에반의 투박한 손길, 같은 이런 애매하고 두루뭉술한 대답밖에 할 수 없었던 것이다.

그러나 그 날 처음으로 데네브는 이에르곤을 통해 사랑의 정의에 대해 들었다.

드디어 사랑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설명할 답을 알아냈다.

얼마나 더 나이를 먹어야 아버지가 말한 사랑의 의미와 그 깊이를 깨달을 진 몰랐지만 데네브는 그의 말을 믿었다.

아버지, 이에르곤은 데네브 앞에선 유독 허술하게 행동하고 바보 같은 소리도 곧잘 했지만 지식을 주는 행위에 한해선 언제나 그가 옳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고향에서도 몇 년 뒤 수도에 올라와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어서도 데네브의 눈에 반짝반짝 빛이 나는 사람은 없었다.

사실 그녀의 눈에 드는 사람자체가 없었다는 게 더 정확한 표현이었다.

도도하고 콧대 높은 사교계의 영양들은 가문에 권력도 없고 인맥도 빈약한데다 성격도 특이한 데네브를 썩 반기지 않았기 때문이다.

직접 약초를 재배하고 연구한다는 그녀의 남다른 취미는 결코 남들에게 쉬이 고개 숙이지 않는 성격과 맞물려 타인과 불협화음을 만들어냈다.

‘고향에서는 다들 내가 만든 약이 굉장하다고 칭찬했는데.’

오물을 뒤집어 쓴 자기네 집 정원사보다 더 독한 향을 풍긴다며 그녀를 모욕

한 이름 모를 자작 가문의 영애의 코뼈를 부러트린 날, 데네브는 처음으로 아버지의 가르침에 의문을 품었다.

‘이러다가 사람이 반짝이는 걸 보긴 커녕 사람 자체가 싫어지게 되면 어쩌지.’

실제로 그녀는 슬슬 자신의 얼굴만 보면 시비를 걸어대는 수도의 귀족 자제들에게 신물이 나던 참이었기에 데네브는 자신이 영영 사람을 사랑하지 않게 되면 어쩌나, 걱정스러웠다.

하지만 언제나 그렇듯 아버지는, 이에르곤은 옳았다.

한 달에 두 번, 데네브는 아버지를 따라 수도 외곽의 별장으로 향했다.

예반의 눈을 피해 몰래 숲에서 자생하는 약초를 캐기 위함이었다.

그 날도 마찬가지로였다.

마침내 철통 같은 예반의 감시를 따돌린 그녀가 발을 바삐 놀리며 뒷문으로 향할 때였다.

“.....!”

“아야!”

모퉁이를 돌아마자 느껴지는 강한 충격에 그녀는 다급히 옆에 있던 기둥을 붙들었다. 누군가와 부딪친 것이다.

가슴에서 느껴지는 통증을 참으며 데네브는 고개를 돌렸다.

‘어?’

그리고 데네브는 눈앞의 광경을 믿을 수 없어 몇 번이고 눈을 깜빡였다.

‘정말로 있었어!’

거기엔 데네브가 그토록 보고 싶어 했던 그녀의 눈에 반짝반짝, 마치 별빛마냥 빛나는 사람이 있었다.

26. 열 살, 티파티, 여름(2)

‘역시 아버지가 옳았어!’

데네브는 속으로 탄성을 질렀다.

그는 데네브보다도 작은, 그녀의 또래로 보이는 소년이었다.

소년은 어둠보다도 짙은 새카만 검은 머리칼과 맑은 호수의 표면을 떠올리게 하는 연한 푸른 색 눈동자를 가지고 있었다.

아직 어려 얼굴은 앳되었지만 큰 눈과 반듯한 코가 또렷한 인상을 주었고 내리깐 긴 속눈썹은 어쩐지 나이에 맞지 않은 어른스러운 분위기를 풍겼다.

태양빛을 받아 반짝이는, 아니 마치 햇살을 망토마냥 두른 듯한 소년은 몹시도 아름다웠다.

그에게는 보통 사람으로선, 적어도 데네브로선 도저히 흉내 낼 수 없는 우아함이 서려 있었다.

그러나 마침내 제 눈에 빛나 보이는 사람을 만나 감탄하기도 잠시, 데네브는 이내 자신이 이 소년을 사랑하는가에 대해 고민하기 시작했다.

‘방금 처음 봤는데 내가 옐 사랑한다고?’

생각해보니 어쩐지 말이 되지 않았다.

“그보다 너, 정원이 어디 있는지 알아?”

그리고 이 소년은 무척이나 재수 없었다.

평소 그녀를 모욕하느라 바쁜 다른 귀족 영양들처럼 모욕적인 언사와 손짓을 내보인 건 아니었지만 소년이 내뱉는 말이나 그녀를 대하는 태도는 몹시도 통명스러우며 불만스러워 보였다.

마치 그녀가 제 앞에 있다는 걸 견디지 못하는 듯한 그 모습을 보며 데네브는 제 생각을 수정했다.

‘내가 뭔가를 잘 못 이해한 게 분명해.’

아버지의 가르침 중 그녀가 놓친 것이 있는 게 분명했다. 아주 중요한 무언가가.

‘그렇지 않고서야 이 심술궂어 보이는 애한테 내가 사랑을 느낄 리가 없잖아?’

기껏 비밀장소에 함께 가자고 권해줬음에도 필요 없다는 말을 내뱉는 소년을 마주하며 데네브는 속에 불이 화륙 붙는 것을 느꼈다.

그의 태도가 아무 이유 없이 남에게 불이익을 받으면 꼭 그 두 배를 돌려줘야 직성이 풀리는 그녀의 투쟁심에 불을 지핀 것이다.

데네브의 눈에서 불꽃이 튀었다.

마침 소년을 모욕하는데 적당한 단어가 떠올랐기 때문이다.

“으음.....”

소파에 누워 휘적휘적 다리를 저으며 알테어와 만났던 첫 날을 떠올리고 있던 데네브는 상념에서 깨어났다.

다시 생각해봐도 이 날은 자신이 좀 심했던 것 같다.

평소의 데네브라면 별 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며 넘어갔을 일이건만 당시의 그녀는 끝모를 적의를 보이는 타인에게 지쳐 예민할 대로 예민해져 있었다.

때문에 마주한 누구라도 약간의 적의를 보이면 고슴도치마냥 가시를 세웠던 것이다.

‘역시 아버지 말대로 행동하기 전엔 두 번 세 번 생각해야 해.....’

알테어와 이렇게까지 친해질 줄 알았다면 풀밭에서 몸싸움을 할 때 주먹으로 코는 치지 않을 걸 그랬다고 데네브는 생각했다.

‘개도 내 머리채를 잡았으니 할 말은 없겠지만, 그래도.....’

적어도 데네브는 그를 서쪽 탑에는 데려가서는 안 됐다.

다시 만났을 때 여전히 알테어의 손에 붕대가 감겨있는 걸 본 그녀는 양심이 콕콕 찔러오는 걸 막을 수 없었다.

성으로 돌아가는 그에게 자신만의 특제 레시피로 제조한 특히 손이 많이 가는 약초 사탕을 선물로 듬뿍 안겨 준 건 그 때문이었다.

효능은 좋지만 맛은 기가 막히도록 없을 텐데 어째서인지 알테어는 그 사탕을 받고 뭘 듯이 기뻐했다.

‘그 사탕을 받으며 그렇게 좋아하다니.....생각해보면 개도 참 이상한 애야.’

알테어도 똑같이 그녀에 대해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지 알리 만무한 데네브가 그를 그렇게 평했다.

테이블을 향해 손을 뻗은 데네브는 방금 전 에반이 놓고 간 초대장을 집어 들었다.

알테어에게서 온 초대장이었다.

페블 벨루란을 받고 나서도 티파티 따위 열기 싫네, 귀찮네, 어찌네 하면서 엄청 투덜대더니 결국 의논했던 대로 왕비님을 설득하는데 어떻게 잘 성공한 모양이다.

[내가 하는 일이야, 성공하는 건 당연한 결과지.]

데네브의 생각을 읽기라도 한 듯이 초대장 안에는 그 한 줄만이 쓰여 있었다.

그녀는 제 친구의 재수 없는 도발에 킬킬대며 초대장의 뒷장을 보았다.

거기에는 파티의 날짜와 시각, 그리고 드레스코드가 적혀 있었다.

데네브는 소파에서 일어났다.

무려 왕비님이 주최하는 파티였다.

이 자리에 걸맞는 드레스가 과연 그녀에게 있을지 고민하며 데네브는 방 밖을 나섰다.

이럴 땐 다른 누구보다 에반의 도움을 받는 게 최선이었다.

* * *

데네브는 귀족 영애치고 대단히 독특하고 남다른 존재였다.

예를 알되 굽히진 않았고 백작가의 영양이면서 신분 차이에 크게 신경 쓰지 않았으며 일에 귀천을 따지지 않았다.

이는 그녀의 아버지인 이에르곤 바론 캄파넬라 백작의 교육 때문이었다.

작위는 백작이지만 가진 영지라고는 시골의 작은 땅덩어리가 전부인 이에르곤은 영지민들과 직접 소통했다.

영지가 워낙 작고 사람이 적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더불어 역사학자인 그는 저서를 집필하기 위해 서적에 파묻혀 있기도 하지만 어떤 때는 먼 지방으로 나가 직접 그곳의 지질과 역사, 그리고 유물들을 조사하기도 했다.

한 마디로 몸을 움직이는 일에 전혀 거리낌이 없단 뜻이다.

이 때문에 그는 필요하다면 영지민들과 함께 몸을 움직여 농사를 짓거나 짐을 날랐다.

홍수가 났을 땐 사람들의 피난을 돕기도 했으며 일손이 모자랄 땐 대신 들판으로 나가 양을 치기도 했다.

영지민들은 모두 이런 캄파넬라 백작을 마음속 깊이 존경했고 또 백작 또한 그런 존경을 당연하다는 듯이 받아들였다.

어렸을 때부터 데네브는 백작의 이런 모습을 제 눈으로 직접 보며 자라왔다.

자식이 데네브뿐이기에 캄파넬라 백작이 그녀를 그의 뒤를 이어 영지를 물려받을 후계자처럼 길러왔기 때문이다.

그래서인지 그녀는 영지민 모두의 얼굴을 알고 있고 그들의 집안의 우환이나 경조사에 대해 속속들이 알고 있었다.

나중에 그녀가 작위를 물려받았을 때 다 알아야하는 이야기들이었으니 당연했다.

자신들 한 명 한명에게 관심을 가져주는 차기 영주를 싫어하는 영지민은 없었다.

영지에 사는 모두가 데네브를 사랑했다. 그 때문에 백작의 후계자라는 격식은 차렸지만 데네브와 영지민들 사이엔 벽이 없었다.

어릴 적 데네브는 동네 아이들과 함께 닭을 쫓으며 놀기도 했었다. 당시 이런 그녀를 말리는 사람은 에반 밖에 없었다.

작은 영지에서 살아가기 때문인지 그곳의 사람들은 각각 자기가 도맡아야 하는 일이 있었다.

그 일들은 전부 영지의 생활을 유지하는데 꼭 필요한 직업들뿐이었다.

대장장이, 도제가, 제빵사, 농부 등.

필요 없는 직업을 가진 이는 단 하나도 없었다.

데네브가 다른 영애들과는 달리 약초를 만지고 연구하고 공부하는데 거리낌이 없는 이유는 여기에 있었다.

필요 없는 직업이 없기 때문이다.

약학 공부를 계속해 언젠가 약사가 된다면 그녀 역시 반드시 영지에 어떤 식으로든 도움이 될 터였다.

특히 치료사는 귀했으니 더더욱. 데네브는 영지를 위해 열심히 살아가는 영지민들에게 보답할 수 있을 것이다.

영지민들에겐 안전과 생활을 보장하고 나를 위하는 이에겐 보답하며 어려운 일은 이야기를 통해 함께 해결할 것.

데네브의 상식은 대충 이런 식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어머, 저게 누구람?”

하지만 수도, 비르마스에 오니 데네브의 상식은 이곳에선 전혀 먹히지 않았다.

대다수의 귀족들에게 영지민들이란 감히 자신에게 말도 붙여서는 안 될 하찮은 존재들이었고 이익을 따라 움직여야 하며 속내를 솔직히 드러내서는 안 됐다.

특히 수도의 사교계에서는 권력과 인맥에 따른 대우의 편차가 심했다.

“분수에 맞지도 않는 이가 어떻게 여기에 발을 들였죠?”

매우.

“보호자도 샤프롱도 없이.....아주 천박하네요. 가난한 시골 귀족들은 뭐가 예의 인지도 잘 모르나 봐요.”

부채 너머로 살랑살랑 바람을 부치는 데네브 또래의 소녀의 말에 주변에 있던 다른 영애들이 기분 나쁘게 킁킁거리며 웃음을 터트렸다.

데네브는 작게 한숨을 쉬었다.

블루벨 후작가의 둘째 딸, 에클레르 베리 블루벨 영애는 데네브를 싫어했다.

기억하기론 그녀는 데네브가 사교장에 모습을 보인 그 순간부터 그녀를 싫어했다. 이유는 몰랐다. 대놓고 물어봤지만 그녀는 데네브를 상대도 해주지 않았다.

무릎까지 내려오는 치마 끝단에 알알이 박힌 작은 모조다이아 장식들을 만지작거리며 데네브는 필사적으로 그녀의 시비를 무시했다.

집을 나서기 전 귀에 피가 날 정도로 들은 에반의 당부가 아직도 뇌를 울리고 있었기 때문이다.

“왕비님의 파티입니다. 절대, 절대! 폭력이나 폭언을 써서 문제를 일으켜서는 안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왕비님이 주최하는 파티에 간다는 소리에 캄파넬라 백작 가에서 가장 뒤집어진 사람은 당사자인 데네브도 보호자인 이에르곤도 아닌 바로 에반이었다.

태평하게 ‘왕자님이랑 친해졌나 보구나. 이런 파티에도 초대받고. 잘 즐기고 오렴.’ 따위의 소리를 늘어놓는 이에르곤과는 다르게 에반은 그녀가 성까지 타고 갈 특별한 마차를 준비하고 직접 머리를 손질해주고 드레스 코드에 맞는 데네브의 드레스를 맞췄다.

“백작님은 일 때문에 자리를 비우지 못하시고 아이나님도 지금은 영지에 계십니다.”

헝클어진 데네브의 머리를 물에 젖은 빗으로 빗어 내리며 에반이 심각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샤프롱을 부탁할 만큼 친분이 있는 귀부인도 없으니 데네브님께선 보호자 없이 그 자리에 혼자 가셔야 합니다. 즉, 더더욱 자신의 행동에 신경 쓰고 절대로, 절대로 예의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시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엑.....”

평소와는 다르게 목소리에 힘이 들어간 에반의 태도에 데네브는 그가 ‘꼭 지켜야 하는’ 종류의 당부를 이야기하고 있음을 알았다.

다른 귀족 영양들과 자신의 관계를 떠올린 데네브는 첫째도 암전히 있기 둘째도 암전히 있기를 강요하는 에반의 당부에 기운이 빠질 수밖에 없었다.

“지키지 못할 거 같으면 아예 가지 마세요.”

불만스럽다는 듯이 입술을 삐죽 내민 데네브를 내려다보며 에반이 엄한 목소리로 말했다.

“다른 누구도 아닌 왕비님의 파티입니다. 여기서 사고를 치시면 일전에 메디아 백작가의 영애를 때린 것처럼 수습할 수 없단 말입니다. 캄파넬라 가문을 생각하신다면.....”

“무슨 말인지 알아, 에반.”

손을 뺀 데네브가 머리 위에 얹어진 그의 손을 다독였다.

“그래도 갈 거야. 잘 할 수 있어. 말썽 피우지 않을게. 나 믿지?”

“.....”

데네브를 내려다보는 에반의 눈엔 ‘아니요.’ 라고 적혀 있었지만(데네브는 거울을 통해 그의 얼굴에 쓰인 온갖 근심걱정들을 읽어낼 수 있었다.) 결국 작은 한숨과 함께 고개를 끄덕였다.

“.....믿겠습니다. 정말 말썽 피우시면 안 됩니다?”

“알겠다니까. 걱정 마, 나만 믿어.”

과거의 그녀는 대체 무슨 자신감으로 저를 믿으라고 한 것일까.

데네브는 생각했다.

“듣자하니 캄파넬라 백작은 영지민들과 함께 진흙을 구른다는데 그런 사람들이 이 정원의 가치를 알아볼 수나 있을지 모르겠네요. 안 그런가요?”

‘오, 오펜하임이시여!’

평소엔 믿지도 않는 신을 향해 데네브는 빌었다.

‘부디 제가 그녀의 얼굴에 주먹을 갈기지 않도록 인내심을 주세요!’

“제 티파티에 오신 걸 환영해요, 여러분.”

그 때 정말로 주신 오펜하임이 그녀의 기도를 들어주기라도 한 것인지 파티의 주최자인 왕비, 멜비나가 단상에 올랐다.

모두의 시선이 그쪽을 향해 쏠리며 그녀를 향한 수군거림도 멎었다.

데네브는 그제서야 손가락이 새하얗도록 쥐고 있던 주먹을 펼 수 있었다.

신이 그녀의 기도를 들어주어서 다행이었다.

조금만 더 늦었다면 데네브는 에클레르의 저 구불구불하게 말린 머리칼을 전부 쥐어뜯어 버렸을 것이다.

에반의 걱정을 가라앉히는데 성공 했다고 생각하며 멜비나가 티파티를 시작하는 짧은 연설을 하는 동안 데네브는 자신의 인내심을 자축했다.

멀리서 알테어가 시시각각 변하는 그녀의 표정을 보며 즐거워하고 있다는 것도 모른 채.